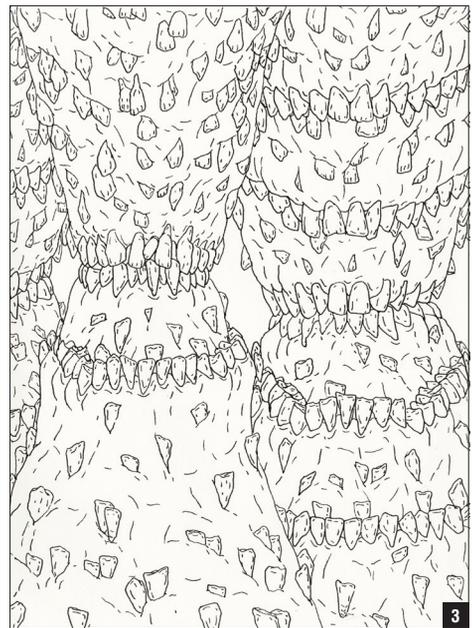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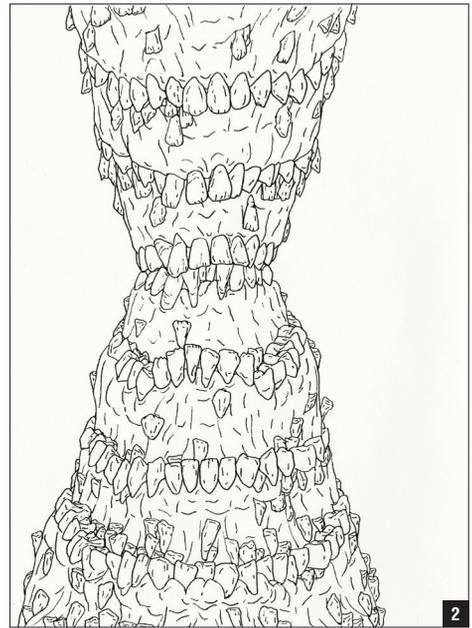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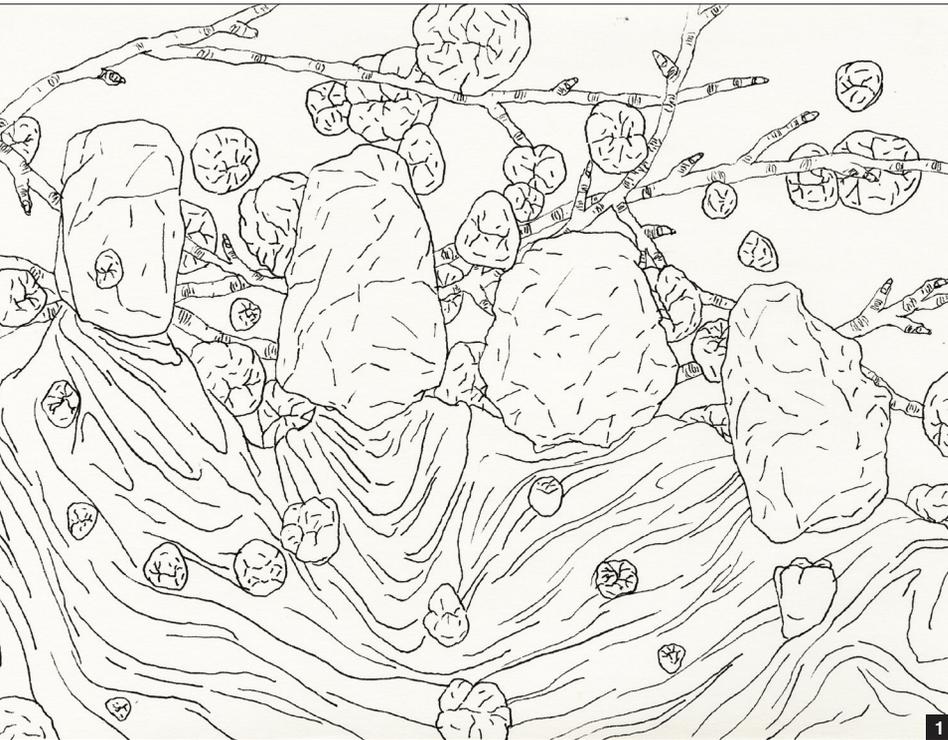


12. 2017. 11. 17. 3





이달의 표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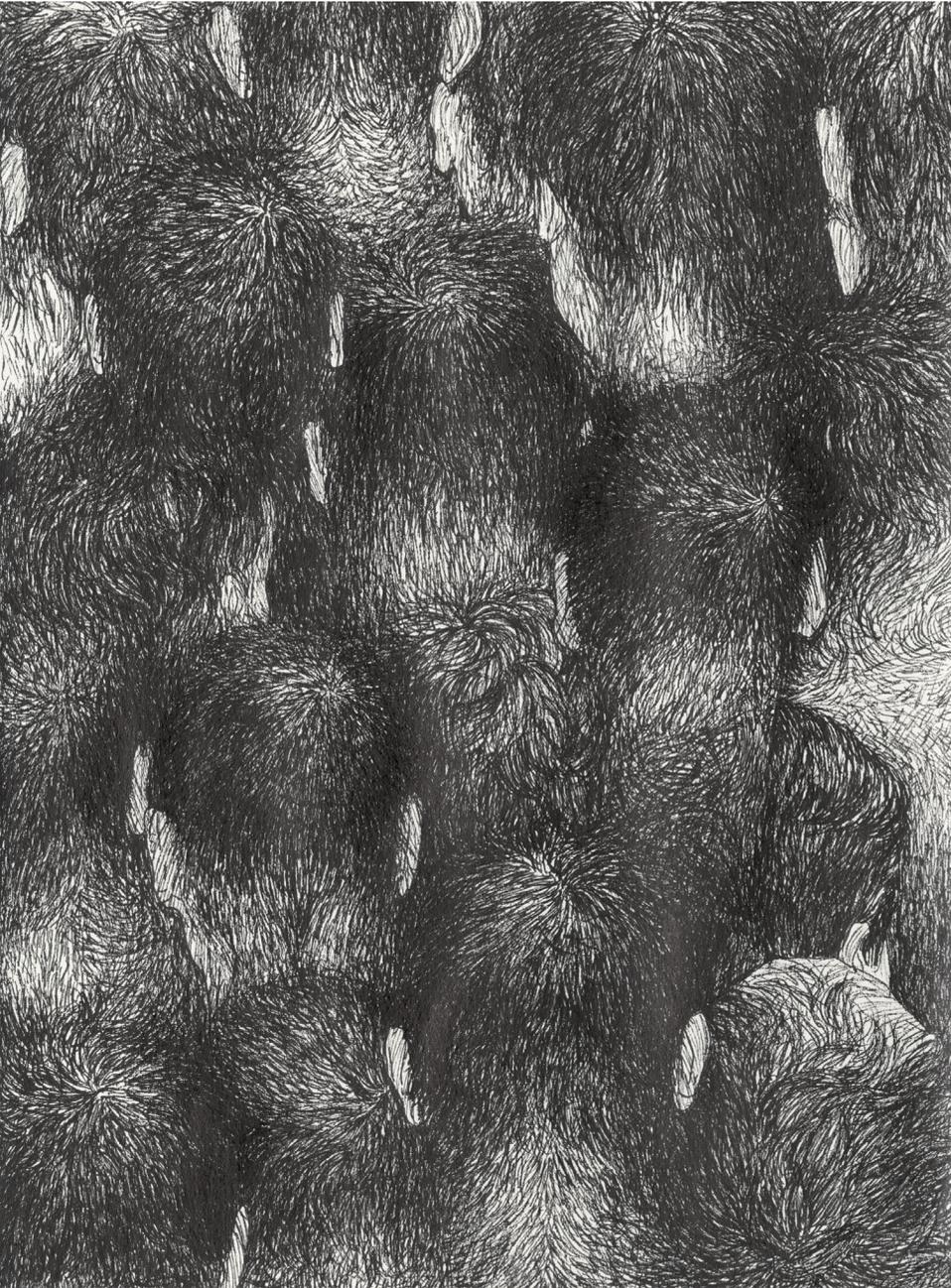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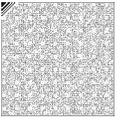
이정희

성신여자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제2회 충청청년작가비엔날레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주된 작업은 드로잉으로, 최근에는 드로잉을 바탕으로 한 영상 작업으로 매체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오는 7월, 예술을 통한 시민의 삶과 사회 치유 공간인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맏음에서 개인전 <흩어진 말>을 개최할 예정이다.



표지 작품 <A Useful Thing-1>
color pencil on paper | 100×70cm | 2011

- 1 <미끄러진 대화-3> 종이에 펜 | 21×29.7cm | 2015
- 2 <흩어진 말-1> 종이에 펜 | 29.7×21cm | 2015
- 3 <흩어진 말-2> 종이에 펜 | 29.7×21cm | 2015



<생각의 길-1> 종이에 펜 | 29.7×21cm | 2015

표지 작품 <A Useful Thing-1>은 소외되고 버려진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작업으로, 신체에서 분리되어 기능을 잃은 발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자라는 상상을 표현했다. 과거의 작업들은 대부분 이렇듯 소외되고 불완전한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최근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 또는 사회 속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소통의 불확실성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본질은 그릇된 소통에 있다'라는 말처럼 매번 빛나가고 미끄러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학교나 직장과 같은 크고 작은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소통의 기본인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작용하며 또 사람들을 이합집산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최근 작품은 주체적 생각의 생명체라기보다 소문이 머물고 증식하는 숙주와 같은 인간, 그리고 그들 사이를 떠도는 의미 없는 텅 빈 언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그런 관계의 수용들이 속에서 중심을 잡고 표류하지 않기 위해 소통의 불확실성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 필요를 느꼈다.

이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머리를 결합하여, 소문이 흘러 다니는 살덩어리라는 개념의 대중을 표현했다. 그리고 소통의 수단이자 말의 최후 통로인 입에 초점을 맞추어 입 속 기관을 해체·조합하여 쏟아지고 흘러지는 말을 시각화했다. 대부분 종이에 펜으로 그린 드로잉이며 가느다란 선으로 입 속 기관을, 선의 집적으로 균중을 나타냈다.

신체 기관을 재배열한 낯선 이미지로 주제를 표현하지만, 이러한 이미지의 분절과 조합은 파괴를 향한 파괴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이는 다양한 주체와 맺는 관계 속에 내재된 욕망과 폭력, 부조리에 대한 고민, 사회와 제도의 모순을 향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

CONTENTS

2017.4 — VOL.122



테마 토크 문화 민주주의 시대, 일상으로 걸어 들어온 예술

소수 향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순수예술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고, 대중은 자발적 예술의지를 바탕으로 한 예술인간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문화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예술은 대중에게, 대중은 예술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4월 '테마 토크'에서는 공공과 민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의 대중화, 그리고 대중의 변화된 일상을 짚어봤다.



사람과 사람 저스틴 사이먼스 런던 문화부시장 이창현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장

세계 주요 도시들이 서로의 문화정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이하 WCCF)이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현재 WCCF의 의장을 맡고 있는 저스틴 사이먼스(Justine Simons) 런던 문화부시장이 2017 WCCF 총회 준비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그에게서 WCCF와 런던의 문화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안현미,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발행일 2017년 3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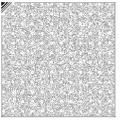
진실 혹은 대담 청년예술가들이 말하는 생업으로서의 아티스트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포크 노래상을 수상한 가수 이랑의 퍼포먼스가 화제를 모았다. 자신의 수입을 공개하며 트로피를 시상식 현장에서 경매에 부친 그의 퍼포먼스를 통해 '배고픈 예술인의 삶'이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수상이나 다양한 활동이 반드시 수입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아이러니한 구조에 놓인 예술인의 삶에 대해, 청년예술가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화제 서울문화재단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미리보기

서울문화재단의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가 4월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조사결과를 미리 엿보았다.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실시된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2016년 11월 말부터 약 3주간 온라인패널 2,000명 및 서울시 공공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 5,7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01 커버 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이정희

04 발행인의 말

주철환의 더다이즘, 일곱 번째

테마 토크
문화 민주주의 시대,
일상으로 걸어 들어온 예술

08 예술의 대중화, 대중의 예술화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라!
춤추기 위해!
노래하기 위해!

10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공공의 노력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14 예술의 대중화, 우리 결의 변화들

일상적으로 예술 즐기기

18 국립극장 'NT Live'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 전막 실황 중계

공연이 영상을 만났을 때

사람과 사람

22 저스틴 사이먼스 런던 문화부시장

이창현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장

도시, 문화에 길을 묻다

28 구자혜·이연주 연출

더 이상 금기는 없다

32 진실 혹은 대담

청년예술가들이 말하는
생업으로서의 아티스트

38 예술가의 밥그릇

페이퍼 아트 작가 이지희

40 서울 찰나

문태준 시인의 <봄별> 중에서

공간, 공감

52 공간 1

서교예술실험센터 내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54 공간 2

단편·독립영화 상영관 '자체휴강 시네마'

56 공감 1

연극 <왕위 주장자들>과 <보도지침>

58 공감 2

전시 <YOUTH-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와
<모리스 드 블라맹크>

60 공감 3

책 <할배의 탄생>과 <공터에서>

62 예술적 상담소

이슈 & 토크

42 쟁점 1

'가족과 함께하는 날' 지정에 관한 논란

44 쟁점 2

재조명받는 애국심 콘텐츠

46 화제

서울문화재단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미리보기

50 아무나, 아!문화! 서울문화PD

Soul of Seoul

64 메모리 인 서울

을지로1가에서 7가 사이

66 서울 단상

이지원 영화감독의 고덕동의 추억

68 고재열의 설(說)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듣고

70 최은규의 음악 정원으로

봄을 노래한 클래식 명곡

72 서울 건축 읽기

서울 기상관측소

74 영화의 틈

차별의 시대를 조명한 실화 영화들

4월의 서울문화매뉴얼

76 4월 Calendar

84 편집 후기

주철환의 더다이즘, 일곱 번째

꽃보다 문화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근육이 꿈틀거리는 기분이라고 누군가 고백했습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마음도 되살려보라고 저는 권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동심입니다. 유치하지만 순수했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직장의 정글에서 별이는 인간회복운동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여행 내내 들었습니다.”

저의 주말은 금요일 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혼자 놀기’의 달인이 됩니다. 이른바 TV 사냥이 시작되고 저는 본방, 재방, 다시보기를 통해 방송 후배들의 창의성 심사에 들어갑니다. 첫 장면부터 채널 이동을 가로막는 프로그램도 더러 있습니다. 몇 개의 예능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자막에 유난히 눈길이 갑니다. <정글의 법칙> <1박 2일> <개그콘서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연출 김진호, 연출 유일용, 연출 이정규. 이 세 사람과 저는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딱 10년 전 저는 신생 방송사 OBS의 대표였고 이들은 1기로 뽑힌 신입사원 동기들이었습니다. 필기와 실무면접을 거치고 최종면접에 올라온 친구들은 사실 누구를 뽑아도 ‘능력’ 면에서는 그다지 나무랄 점이 없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대표인 저의 마음을 흠치는 첫 번째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명량성 여부입니다. 밝은 기운의 젊은이가 밝은 회사를 만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어두운 표정의 사원들이 많이 모이면 회사가 어둡게 변하겠죠. 앞에 지목한 세 사람은 첫 만남부터 쾌활했고 발랄했습니다. 신입사원들과 일주일 동안 일본으로 연수를 겸한 여행을 떠났을 때 평생 유쾌한 직장생활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모두 우리 편인 듯했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설레고 벅찼습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고 각자도생의 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졌지만 결코 갈라서지는 않았습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건 오로지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상대인 그도 잘살기를 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 혼자 만족하기를 바라는 건 좋아하는 마음의 구역이고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 사랑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어서 혼자 즐기다가 시들면 내다버리는 반면에 꽃을 사랑하면 꽃이 생명을 잃지 않게 잘 돌보고 키우죠. 개를 좋아하면 복날에 개를 잡아먹고 개를 사랑하면 개를 자식처럼 잘 기르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인 삶이란 결국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날로 굳어집니다. 문화(culture)의 어원을 ‘재배하고 경작한다’(cultivate)라고 배웠는데 농업(agri+culture)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교육과 문화는 농부의 마음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를 제때 하여 잘 기르고 돌보고 키우는 게 문화의 정신입니다.

저는 그 시절 신입사원들을 ‘희나리’라고 불렀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리더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들과 ‘당분간’ 헤어지면서 저를 더 이상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나리 마을의 이장이 될 터이니 저를 이장님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사장에서 이장이 되니까 마치 4에서 2로 줄어든 느낌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사장은 중역이지만 이장은 현역입니다. 사장은 돈을 벌어야 하는 자리지만 이장은 마을사람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는 역할입니다. 희나리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 어디

상상마당은
예술적 상상을 키우고
세상과 만나고
함께 나누며
행복해지는 곳

이권팔씨
감병인씨



서 무엇을 하더라도 희망을 나누는 리더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저를 '이장님, 이장님'하고 부르며 살갑게 맞아줍니다.

인생은 짧지만 일생은 길게 느껴지는 건 주변에 싫고 미운 사람이 생겨서입니다. 싫어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옷이 맞지 않는다고 옷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서는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것은 싫어함을 넘어서 미워함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그가 잘 안 되고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누군가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껴려보고 다가가서 옷에 더러운 걸 묻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건 잇몸약이 해내야 할 원대한 목표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씻고 뜯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일곱 번째 직장에 오면서 '즐거운 회사 만들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대결이 아니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꽃보다 문화'입니다. 할배들도, 누이들도 사이좋게 여행하는 모습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문화'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1박 2일로 여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월에는 간부직원들 40여 명과 봄내(춘천)에 다녀왔습니다. 3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직원들과 ITX 청춘열차를 타고 가며 사진도 찍고 과자도 먹었습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근육이 꿈틀거리는 기분이라고 누군가 고백했습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마음도 되살려보라고 저는 권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동심입니다. 유치하지만 순수했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직장의 정글에서 벌이는 인간회복운동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여행 내내 들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이진아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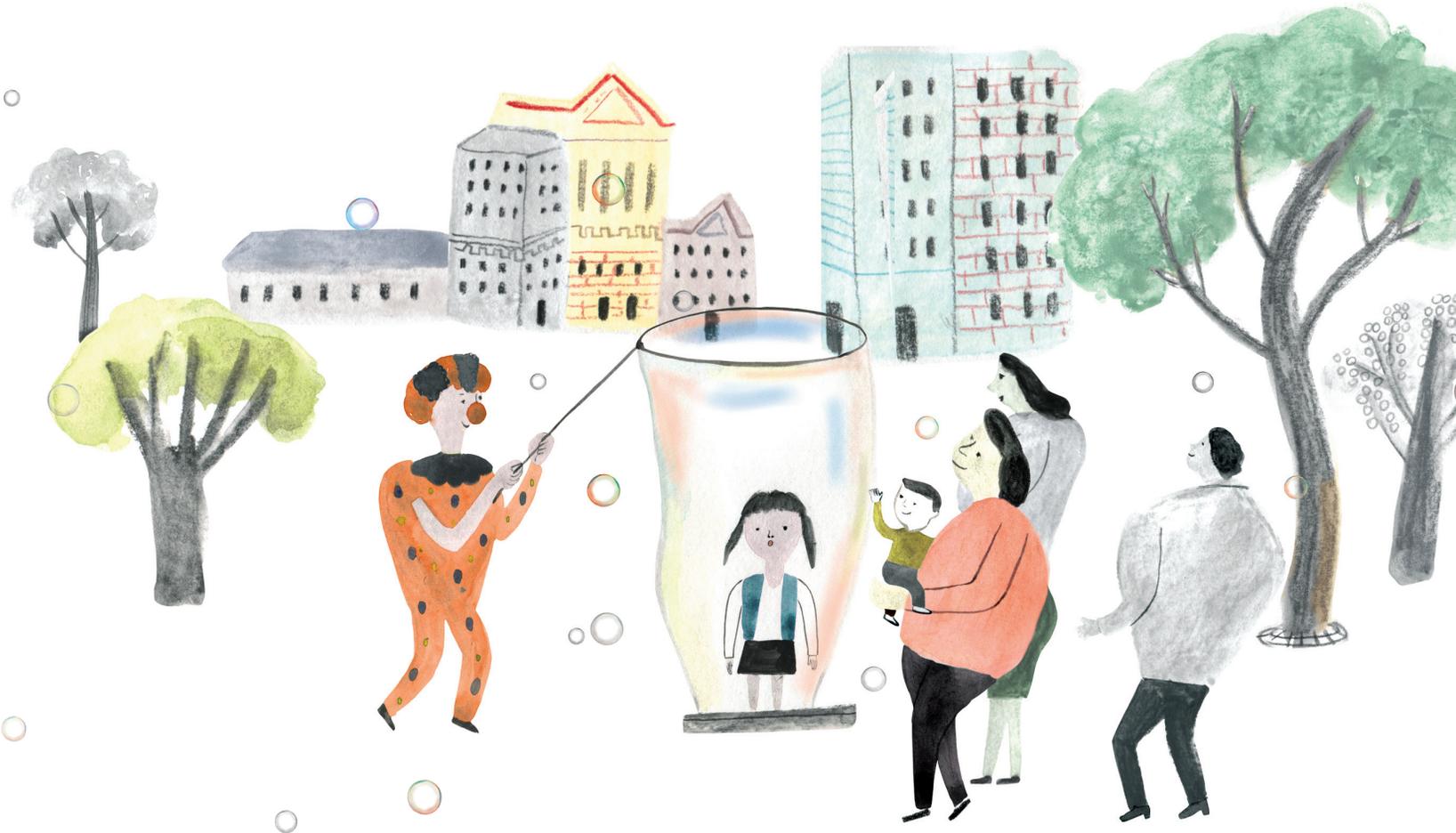




문화 민주주의 시대, 일상으로 걸어 들어온 예술

‘예술’과 ‘대중’은 오래전부터 이분법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오래됨과 새로움, 고급화와 저급화로 구분되기도 했으며,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처럼 무겁고 딱딱한, 가볍고 재미있는 것으로 구획되어왔다. 하지만 사회가 관습적으로 구분지어온 그 이분법의 개념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그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소수 향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순수예술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고, 대중은 자발적 예술의지를 바탕으로 한 예술인간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예술의 대중화가 먼저인지, 대중의 예술화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바야흐로 문화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고, 예술은 대중에게, 대중은 예술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4월 ‘테마 토크’에서는 공공과 민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의 대중화, 그리고 대중의 변화된 일상을 짚어봤다.



예술의 대중화, 대중의 예술화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라! 춤추기 위해! 노래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예술가인 시대, 예술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또한 서울시민 모두를 예술에 참여시키고자,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들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자발적 예술의지를 지닌 예술인간이 등장하는 문화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예술의 대중화, 대중의 예술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문화가 만든 우리 일상의 변화

인문학 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 조정환 대표가 쓴 책 <예술 인간의 탄생>을 보면, 현대 다중은 자발적 예술가라기보다 예술을 강요받는 노동인간이자 경제인간이라고 설명한다. 노동 과정이 미적, 예술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노동자의 예술화가 강제된다는 것이다.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 이후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으면서 우리 사회는 '잘살게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경제인간이라는 정체성만으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외치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 예술인간으로의 변화를 꾀했다. 서울문화재단 또한 2007년부터 '서울시민 모두를 예술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미션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고, 지금은 '예술로 더 새롭게 문화로 다 즐겁게'를 모토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예술의 일상화, 일상의 예술화'를 실천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은 우리 사회 곳곳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을까? 미적체험 통합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교가 즐거워졌다고 한다.



‘좋아서 예술동아리’에 참여한 시민들은 ‘재미없는 인생에 낙이 생겼다’며 좋아한다. 공연장 상주단체 활동을 해온 안은미컴퍼니는 할머니가 무대에 오르는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를 비롯, 청소년과 아저씨들의 막춤 속에서 현대무용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

극장이 아닌 거리에서 열리는 거리예술시즌제와 축제 또한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경험케 한다. 골목길, 시장, 병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전사로 지루한 일상이 재미를 찾고, 동네 곳곳에 표정이 생겼다. 서울문화재단은 이처럼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포털에 이르기까지 신진작가들의 작품과 스토리 플랫폼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과 만나도록 돕고 있다.

대중을 사랑하는 예술, 예술을 사랑하는 대중

최근 사진, 영화 등의 기술 복제 장르뿐만 아니라 경험재로 대량 생산과 복제가 불가능했던 공연 장르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과의 만남을 확장하고 있다. 국립극장의 ‘NT Live’를 비롯하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뮤지컬 실황 중계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대중연예인이 자기소개를 할 때 아티스트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하고, 예술영역이었던 뮤지컬은 대중 엔터테인먼트로 그 색깔을 바꾸고 있다. 버스킹 형식의 JTBC <말하는대로>라는 프로그램에는 한국화가 김현정, 복제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자는 메시지를 던진 극사실주의 작가 정중원이 출연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팟캐스트를 포함한 1인 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대중의 예술화 추세도 거세다.

문화예술계는 그동안 예술의 대중화를 꾀하면서도 자본이나 정치 목적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계하며 거리 두기를 해왔지만, 대중문화는 대중의 높아진 문화욕구에 적극 조응하며 예술가를 통해 오락의 품격을 높이고 자아를 찾아가는 철학 영역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 숨씨가 능수능란하여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노력해온 예술의 대중화 성과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약 오를 정도이다. Mnet <댄싱 9>에 출연해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안무가 김설진은 대중매체에서는 열광하는 현대무용이 왜 무대에서는 외면받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라고 한다.

촛불 시민혁명을 이룬 예술인간의 탄생

그렇다면, ‘예술의 대중화’ 노력을 넘어선 ‘대중의 예술화’ 추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즈음하여 인공지능보다 나은 인간의 조건으로 창의력과 공감 능력, 감수성이 꼽힌다. 강제된 예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자발적 예술의지, 예술활동, 예술행동이 새로운 예술인간의 탄생이며 희망이다.

그 사례 중 하나를 지난 100일간의 탄핵심판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음악과 무용, 연극과 공공미술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전달한 블랙리스트 예술가, 광화문광장의 블랙텐트에서 본다. 또 지난해를 광통교, 서대문형무소, 한강다리 등 서울의 역사적 장소에서 근현대사의 아픔을 몸으로 기억하며 춤을 춘 경험으로 이순신 동상 아래에서 하야댄스를 춘 서울댄스프로젝트 100인의 시민춤단에서도 본다. 풍자와 유머 가득 찬 깃발 문구, 용기에 찬 자유 발언, 그리고 촛불에서도 그러한 예술인간의 사례를 만날 수 있었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지미스 홀>에서 주인공인 지미 그랄튼은 이런 말을 했다. “삶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일합시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축배를 들기 위해, 춤추기 위해! 노래하기 위해!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예술인간의 시대에, 되새겨볼 만한 이야기다.

글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그림 이선희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공공의 노력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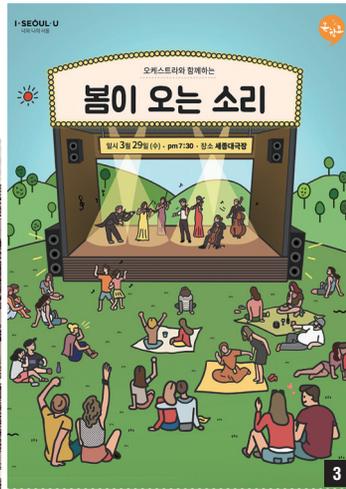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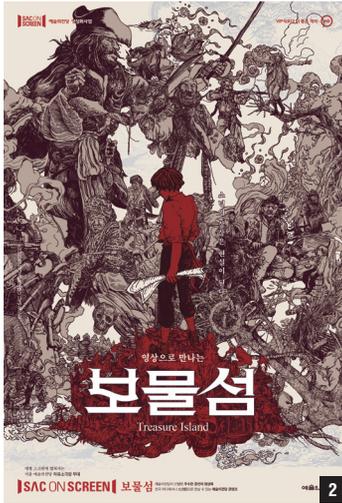
‘예술의 대중화’ 정책의 역사는 사실 오래되었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운동장, 사무실빌딩 근처에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문화 대중화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는 기사가 나온 게 1995년이다.¹ 그동안 순수 예술지원에 치중했던 문화정책에서 일반시민과 저소득 계층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2017년에도 ‘예술의 대중화’는 진행 중이다. 탑다운 방식의 엘리트 중심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소위 고급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계속되어왔다. 최근에는 상업화와 저급화에 대한 우려로 조심스러웠던 공공영역에서 먼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민간과 손을 잡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낮은 순수예술 관람률

문화향유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3분의 2는 순수예술을 멀리하고 있다.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78.3%로 2014년보다 7% 증가했다.(서울시는 81.6%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영화’와 ‘대중음악/연예’를 제외한 순수 예술행사 관람률만 보면 절반 이하인 34.4%이다. 분야별로는 전통예술 7.6%, 서양음악 4.5%, 무용은 1.3%에 불과하다. 미술 전시회 관람률만 12.8%로 2014년 대비 2.2% 증가했고, 평균 관람횟수(0.29회)도 2배 이상 높아졌다.

국민들은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행사 관람의 걸림돌은 비용이 많이 들고(31.9%),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고(26.2%),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14%)이다. 문화예술 행사 관람 시 ‘예술 행사의 내용 및 수준’(31.5%), ‘관람 비용의 적절성’(25.2%), ‘접근성’(12.6%) 등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는 답과도 연결된다. ‘2016 국민 여가활동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국민들이



- 1 카페에서 진행된 '작가미술장터' (blog.naver.com/vamarket).
- 2 예술의전당 '썩 온 스크린' <보물섬> 포스터.
- 3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시즌 2 '온칩표'.

가장 많이 한 개별 여가활동은 TV 시청(46.4%)과 SNS를 포함한 인터넷(14.4%)이다. 가장 많이 참여한 유형별 여가활동은 휴식이 56.7%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 활동은 각각 0.8%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TV와 영화, 인터넷에 가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공공영역의 정책 방향은 '수준'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덜고,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대세로 떠오른 공연 영상화

공공 공연장과 단체들은 리허설 현장을 공개하고 공연장 로비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백 스테이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연 영상화'는 공연 선택의 기준인 '가격', '작품의 질', '접근성' 3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 NT Live(National Theatre Live)는 영국 국립극장이 연극계 화제작을 촬영해 전 세계 공연장과 영화관에 생중계 또는 앙코르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3월부터 NT Live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국립극장은 올해 2월 <프랑켄슈타인>과 <제인 에어> 두 편을 상영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최대 장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을 저렴한 가격(1만 5천원)으로 한국에서 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것. NT Live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64.6%는 1년에 최소 5회 이상 공연을 관람하는 기존 관객층이었지만 3명 중 1명은 NT Live를 보기 위해 국립극장을 처음 방문했다고 답했다. 새로운 관객층 유입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예술의전당이 최초로 시도했다. '썩 온 스크린(SAC on

Screen)'은 서울과 지방 관객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예술의전당 공연 영상화 사업이다. 서울 예술의전당의 공연을 촬영해 고화질의 영상물로 제작한 다음 극장이나 지방 문예회관 등에서 상영한다. 2013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이는 NT Live 국내 상영보다 앞선 시점이다. 주로 국립예술단과 예술의전당 기획 공연이 대상이었고, 최근 민간 주최의 공연도 추가하고 있다. 상영 장소의 조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사기(프로젝터)와 스크린, 음향 설비를 갖춘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영상물을 배포한다. 지난 12월에는 예술의전당 공연 3개를 전국 9개 상영처에서 실시간으로 상영하는 'SAC LIVE'를 시작했다. 굳이 서울에 오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가까운 공연장에서 예술의전당 공연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녹화 중계뿐 아니라 실황 중계도 점차 늘어나 간다는 방침이다. 2017년 3월 기준 총 24작품을 영상으로 제작했으며,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에는 2017년 선보일 9편의 신작 중 4편을 특별 상영했다. 2017년에는 창작 뮤지컬 <운동주, 달을 쏘다>, 연극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페라 <라 보엠> 등이 스크린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수익 창출보다는 관람 기회 확대가 목적이라 무료 배급과 상영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비롯한 2016 공연예술 창작산실 우수신작 공연 6편을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레드북> 공연은 생중계 직후 티켓 판매율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품의 완성도를 확인한 관객이 티켓을 구입하는 관객 저변 확대 효과를 입증한 셈이다.

서울시의 장수 프로그램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클래식을 어려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2007년 5월부터 정기 공연이 있는 주의 월요일에 연습실을 개방해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 클래식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정기 공연 프로그램을 연습할 수 있다. 공연 예매자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신청하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1 중앙일보, 1995. 10. 1. 서울시 문화 대중화운동 전개-내년부터.

세종문화회관의 천원의 행복 시즌 2 ‘온심표’는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는 취지로 양질의 공연을 단돈 천 원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 시작해 만 10년 동안 185회의 공연이 열렸고 누적 관객 약 22만 명을 기록했다. ‘천원의 행복’을 통해 처음 공연장을 방문한 시민도 적지 않을 터. 입장료는 천 원이지만 공연의 수준은 높다. 서울시예술단을 포함해 국내외 정상급 예술가들이 참여하며 클래식, 뮤지컬, 무용, 국악, 오페라 등 전 장르를 망라한다.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도 곁들인다. 매회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넘길 정도로 신청자가 많다. 2017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21회의 공연을 진행한다.

일상에서 즐기는 미술

‘감상하는 미술관’에서 ‘즐기는 미술관’으로의 변화는 공공영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입장료를 할인해주면서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SNS와 ‘인증샷’ 시대에 맞추어 작품의 사진촬영도 점차 허용하는 추세다.

‘미술주간’은 미술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미술 행사다. 201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국·공·사립미술관, 갤러리,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서울·광주·부산 비엔날레 등이 협력해 운영했다. 미술관이 누구나 쉽게 찾아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무료 입장 또는 할인, 체험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6 미술주간’에는 비영리 전시 공간과 신생 공간 33곳도 참여했다. 전국 사립미술관 40곳에서는 전시 연계 포토존 이벤트 ‘좋아요 #미술관스타그램’을 진행했다. 각 미술관에 마련한 각양각색의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는 관람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했다. 주최 측에서는 포토존 이벤트가 20~30대 젊은 층 공략에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참여관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미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해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응답이 많았다. 2017년 미술주간은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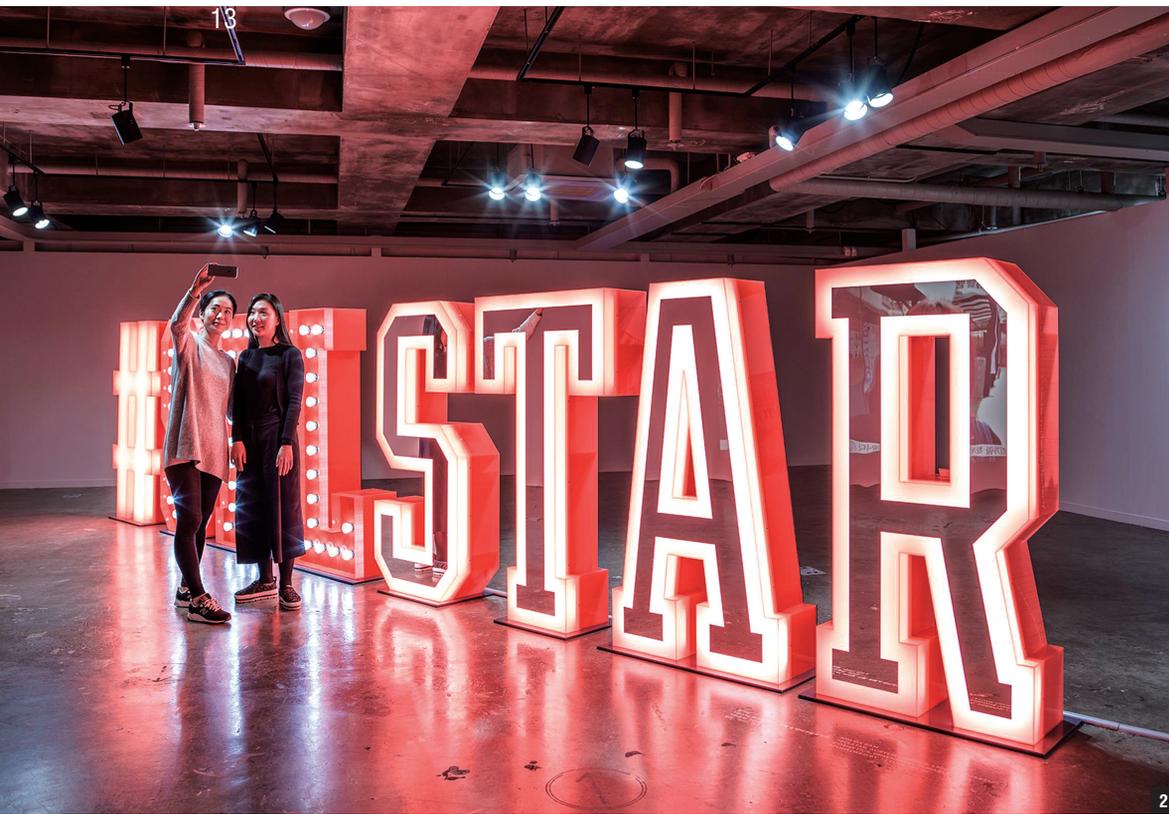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은 기존의 딱딱한 미술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화요일 점심시간(오후 12~1시)에 열리는 ‘예술가의 런치박스’에는 매회 30~50명이 참가해왔다. 별도로 시간을 내기 힘든 미술관 인근 직장인들이 작가와 직접 만나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와 식사를 하며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그달의 작가가 직접 행사를 기획해 콘셉트에 맞는 미술관 내 공간을 정하고 음식 메뉴와 프로그램을 준



비한다. 지난 2월 김가람 작가는 대놓고 ‘셀카’와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도록 미술관을 꾸미고 관람객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었다. 시민들은 작가와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하면서 현대미술과 미술관에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뮤지엄 나이트’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낮과는 다른 분위기의 미술관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미술관 야간개장 프로그램 ‘뮤지엄 데이’를 변경해 2016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둘째, 마지막 주 수요일 미술관 야간개장 시간(오후 7~10시)에 방문하면 음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고 영화, 퍼포먼스,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이 시간만큼은 작품을 설명해주는 오디오가이드에서 큐레이터나 DJ가 직접 선정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예술가의 런치박스’와 ‘뮤지엄 나이트’는 2017년에도 매월 운영될 예정이다.

감상 다음 구입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은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을 통해 미술의 대중화와



- 1 2017 미술주간 포토존 이벤트.
- 2 #SELSTAR_Acrylic, Mirror, Lights & Makeup cosmetics Dimensions variable 2016 서울시립미술관 '예술가의 런치박스', 김가람 작가.
- 3 서울시립미술관의 '뮤지엄 나이트'.



예술의 일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작가미술장터'는 기존의 아트페어와 달리 판매금액 전액을 작가들에게 돌려줘 작가의 작품판로 개척과 창작 활동을 돕고, 국민들은 미술품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터이다. 고급 갤러리가 아닌 백화점, 은행, 카페, 동네 골목 등에서 장터가 열린다. 매일 가던 카페에서 생애 처음으로 미술작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16년에는 신세계백화점, 인터파크씨어터, 신한은행, 탐앤탐스커피 등이 장소를 제공했으며,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12개 단체가 '창고형 아트 마켓', '예술 소坪센터' 등 대중들이 친숙하게 느낄 만한 타이틀을 걸고 장터를 열었다.

서울문화재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을 진행했다.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를 슬로건으로, 영화관, 구청, 병원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 '찾아가는 전시'를 비롯해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그림가게'를 운영했다. 현대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문턱이 높은 갤러리를 나와 시민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어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연희문화창작촌에서도 이웃문화다방, 연희목요일낭독극장 등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고 독자와 만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17년에는 생활문화지원단이 신설되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던 '생활예술오케스트라'가 재단으로 이관되었다. '생활예술오케스트라'는 아마추어 음악인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꿈히던 세종문화회관을 전

격 개방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제는 단순한 감상과 소비를 넘어서 일상 속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대중의 예술화'를 지향한다.

딜레마 속 점점 찾기

'예술의 대중화'는 공공영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순수예술은 쿼터 높은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되어 대중들이 외면한다. 관객을 끌기 위한 이벤트는 작품 자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 관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을 일으킨다. 지나친 사진촬영은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기도 한다. 무료 관람 정책이 그나마 있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료로 볼 수 있으면 누가 돈을 주고 티켓을 구입하겠냐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일단 경험을 해보야 예술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정답은 없어 보이지만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공공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자료 및 사진 각 기관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예술의 대중화, 우리 결의 변화들

일상적으로 예술 즐기기

예술을 어렵거나 무겁고 재미없는 분야로 여기던 시대는 지났다. 대중에게 있어 '비싸다', '지루하다', '올드하다' 등의 의미로 점철되던 예술은 스마트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대중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젊은 감각의 파격적이고 참신한 기획, 저렴한 티켓 가격, 단순한 관람을 벗어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는 등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술계의 노력과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문화예술을 즐기려는 대중의 욕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예술은 대중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찰칵' 소리를 내며 기념 촬영을 하고, 음식을 먹으며 아티스트와 대화를 나누는 미술관이 있는가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유명 작품을 우리나라 공연장에서 상영하고, 실시간 공연을 마치 스포츠 중계 보듯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시대다. 그뿐인가. 클릭 한 번으로 인테리어를 위한 미술품을 집안에 들여놓기도 한다.

예술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즐길 수 있는 분야라고 치부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폭이 확대되고 예술을 '흥미로운 즐길거리'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턱을 낮추고 대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

- 1 대림미술관의 'SUNDAY LIVE' 공연 모습.
- 2 전시장에서의 사진 촬영을 허용하는 대림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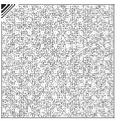
대림미술관

1

하며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문화예술계의 노력에서 시작됐다. 상업적이라는 비판과 지나친 대중화 전략이라는 우려의 시각 속에서도 딱딱한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대중 친화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간절히 대중을 원하는 예술계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 촬영으로 공유하고 기록하는 전시

미술관은 더 이상 그림만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다. 발자국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던 미술관이 재미와 휴식이 있는 일상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커피나 맥주를 즐기기도 한다. 아티스트와 함께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플라마켓 등의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 사진 촬영 허용, 개관 시간 연장, 공간 용도의 확장 등 그동안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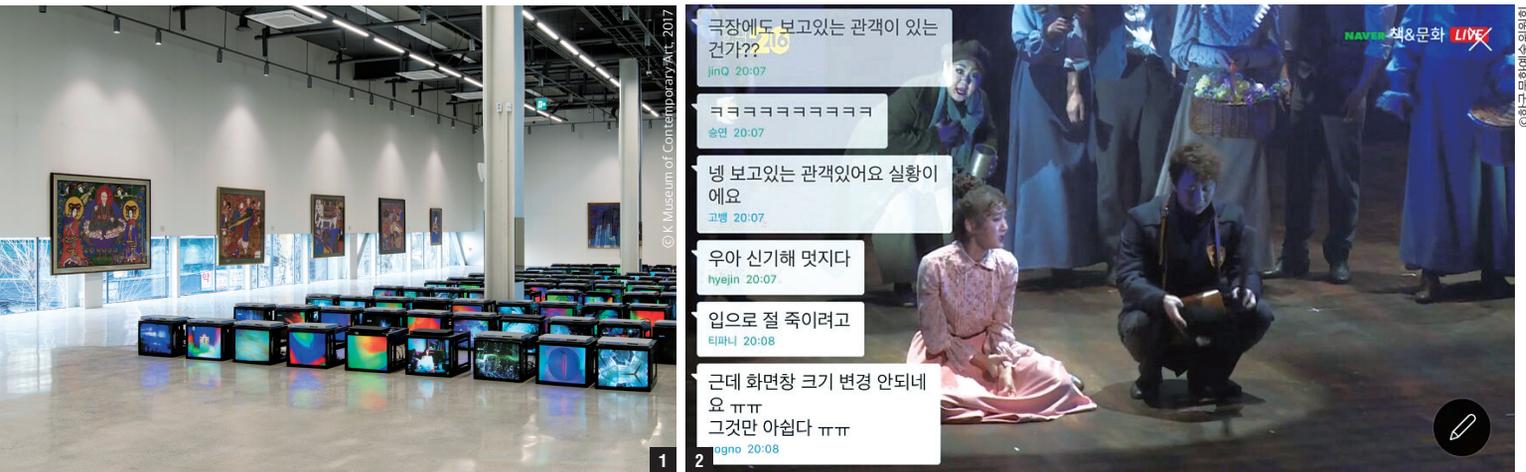


대림미술관

2

감상' 본연의 취지를 위해 금지하던 것들을 허물고, 좀 더 캐주얼하고 친근한 공간으로의 변화가 이어졌다. 그 결과 미술관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진 찍기 좋은', '데이트하기 좋은'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미술관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사진 촬영 허용이다. 카메라 플래시로 인한 작품 손상의 위험, 작품의 창작의도를 왜곡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거나 관람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사진 촬영을 허락하지 않던 미술관들이 하나둘 촬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카메라가 작아지고 휴대전화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무조건 촬영을 제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데다 사진 촬영이 작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며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관람객의 욕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전시 '인증샷'은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어지며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중 무료로 상설 전시가 진행되는 전시관의 경우, 플래시와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진지함을 내려놓고 대중과 호흡하는 미술관

미술관의 대중화를 견인하고 있는 대표주자는 대림미술관이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미술관'이라는 모토에 맞게 미술관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진과 디자인 등을 소재로 하는 특화된 전시 콘셉트, 공연과 파티 등의 이벤트를 통해 젊은 세대를 만족시키는 '즐거움' 전시 분위기를 형성했고, 전시장에서 마음껏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것을 권장하며 20~30대 관람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취미를 즐기려는 젊은 층 관객의 방문이 많아지면서 지난 3월 26일 막을 내린 <니 나이트-거침없이, 아름답게> 사진전은 입장 대기 줄이 평일에도 길게 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대림미술관은 2015년 12월 한남동에 분관인 디뮤지엄을 오픈하면서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시도를 더욱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전시 <YOUTH-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는 약 2주 만에 관람객 3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문화 워크숍 'CLASS 7PM',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미술관 파티&라운지 'MEET UP' 등 콘서트, 클래스, 아티스트 토크, 마켓 등이 풍성하게 열린다. 그 외에도 국내외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의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소개하는 뮤지엄숍 등 편의성을 높인 공간 구성으로 복합문화공간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개관한 K현대미술관도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는 미술관이다.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이곳의 운영 시간은 개관 초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다. (4월부터는 오전 10시~오후 12시까지 단체 관람만 가능하다. 화~목 오후 12시~10시, 금~토 오후 12시~11시, 일 오후 12시~7시로, 요일별 운영시간이 다르다.) 평일 퇴근 후 여가를 즐기는

직장인들을 감안해 미술관 운영 시간을 늦춘 것이다. 관람객이 창밖으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장 2층 벽면 일부를 유리로 제작했으며, 음식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퇴근 후 맥주 한 잔과 함께 부담 없이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근사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이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 늦은 밤까지 문을 여는 미술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난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갤러리문에서 열린 2016 DDP 오픈 큐레이팅 '밤에 여는 미술관'은 오후 10시까지 개장하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예술시장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술에 접속하기

예술의 대중화는 미술관이나 공연장의 변화 외에 예술소비자가 대중의 세련된 생활습관으로 정착해가는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6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에서는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결과, '보다 문턱을 낮춘 예술시장 마련에 창작계·지원계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평균 3.9점(5점 척도)의 높은 동의도를 나타냈으며, 문화예술전문가 중 65%가 '향후 국내 예술소비 및 향유 층의 정체화 현상을 풀어낼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방향성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네오비트 세대의 특성상 '쉽게 사고 쉽게 쓸 수 있는, 문턱을 낮춘 예술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인테리어 차원에서 미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



서 다양한 콘셉트와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캐주얼한 갤러리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크고 작은 아트페어나 작가 갤러리와 아트숍, 공방 등 소소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들이 여럿 있다. 그 가운데 국내 최대 미술 경매 회사 서울옥션에서 론칭한 미술 대중화 브랜드 프린트베이커리(Print Bakery)는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취지로 계획됐다. 빵집에서 빵을 고르듯, 프린트베이커리 매장에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한 한정판 에디션 작품 및 다양한 아트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날 수 있어 조금 '아트쇼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화랑협회 회원 화랑들이 각 화랑 대표작가의 우수한 미술품을 선보이는 미술품 견본시장, '화랑미술제'도 이러한 예술소비 시대를 반영한다. 한국화랑협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5회 화랑미술제에서 전년보다 3,000여 명 늘어난 3만 5,000여 명의 관람객 수와 30여 억 원의 작품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예술에 관심은 있으나 바쁜 일상 속에서 직접 발품 팔며 공연장이나 미술관을 찾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쉽고 빠르게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굳이 갤러리나 아트페어를 찾지 않아도 손쉽게 작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인기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버가 오픈한 온라인 예술품 판매 플랫폼 '아트윈도'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문을 연 '아트윈도'는 전문 큐레이터들이 엄선한 미술작품들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감상하고 손쉽게 구매하도록 한 서비스다. '연인에게 달콤한 그림 선물', '향기로움이 가득한 꽃 그림' 등의 기획전으로 누구나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온라인 미술관을 꾸려가고 있다.

그 외에도 네이버는 '헬로! 아티스트'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작가들의 작품과 작업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네이버 TV를 통해 클래식부터 뮤지컬, 연극 등을 생중계하기도 한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쇼 케이스, 창작뮤지컬 <레드북>의 전막 실황 등이 네이버 TV캐스트와 V 라이브를 통해 중계됐다.

안방 스타가 된 예술가들

한편 예술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예술 분야의 관심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인기를 얻은 예술인 덕분에 대중의 관심 밖에 있던 예술 분야가 화제에 오르기도 한다. 국내를 대표하는 바리톤 중 한 명인 성악가 고성현은 현재 방영 중인 MBC 주말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에 조연으로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무대 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성악에 무관심하던 시청자들은 그의 앨범 <시간에 기대어>를 찾아 듣는 등 클래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리코더 연주자 염은초는 지난해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게스트로 출연해 각종 리코더를 연주하며 재치 있는 모습을 선보여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염은초는 하프시코드 연주자 나오키 키타야와의 듀오 콘서트, 브런치 콘서트 등을 통해 대중과의 만남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중영된 JTBC <팬텀싱어>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남성 4중창 그룹을 결성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돈 내고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귀 호강 방송'이었다. 방송을 통해 유승기, 백인태, 손태진, 권서경 등 인기 성악가를 탄생시켰고 성악, 뮤지컬, 클래식 등 크로스오버의 정수를 보여주며 클래식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출연자들이 참여하는 공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최종 결승 진출 3팀이 함께하는 <팬텀싱어 콘서트>는 티켓 오픈 당시 30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당초 4월 28일과 29일로 계획됐던 서울 콘서트는 하루 더 연장됐고 부산, 대구, 인천 등 지방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글 윤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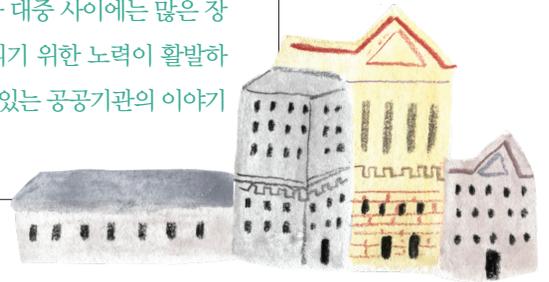
- 1 2층 전시장 벽면 일부를 유리로 제작한 K현대미술관.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레드북> 전막 실황 중계 모습.
- 3 디뮤지엄의 전시에서는 밥 딜런의 노래 <Forever Young>(영원히 젊기를)을 작가 허재영과의 콜라베이션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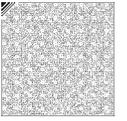


국립극장의 'NT Live'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창작산실' 전막 실황 중계

공연이 영상을 만났을 때

접근성의 제약과 부담스러운 관람 비용, 어렵다는 고정관념 등 공연예술과 대중 사이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고, 예술 향유의 기쁨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플랫폼을 발판 삼아 대중에게 성큼 다가가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야기 속에서, 관객의 마음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힌트를 얻어본다.





접근성을 높여 심리적 문턱을 낮추다

NT Live 상영, 국립극장

국립극장이 2014년부터 레퍼토리 시즌의 일환으로 NT Live (National Theatre Live)를 도입해 국내 관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영국 국립극장에서 상연된 연극계 화제작을 생생한 화면으로 국내에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기에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담 없는 금액은 매력에 방점을 찍는다. 국립극장 공연기획팀에게 NT Live의 인기 요인을 질문했다.



2014년 NT Live 첫 상영 이후 8개 작품을 선보였고, 2차례를 제외하고는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완성도 높은 화제작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유통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NT Live의 가장 큰 힘이지요. 공연의 현장성은 살리되, 공연장 객석에서 보는 공연과는 차별화된 영상을 구현해낸 것 또한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라이브 공연 관람과 영상 관람이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설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제공과 1만 5,000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도 빼놓을 수 없지요.

NT Live를 도입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국립극장은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2012년 9월 레퍼토리 시즌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주요 관객층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젊은 관객들은 국립극장에 대해 ‘올드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죠. 때문에 이런 편견을 없애고 젊은 관객을 유입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NT Live 역시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되었어요. 실제로 NT Live를 보기 위해 처음 국립극장을 찾기 시작한 관객들이 국립극장의 다른 공연까지 관람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 위주의 국립극장에서 영상을 상영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작품이었던 <위 호스> 상영 당시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해오름극장에서의 상영을 위해 영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준비를 했는데도 상영 후 영상 품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남더군요. 두 번째부터 영화용 대형스크린을 NT Live용으로 별도 제작하고, 프로젝터 또한 최고 사양으로 교체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상영을 거듭하면서 자체 노하우가 쌓여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자막은 동일 작품 상영 중에도 관객의 의견을 반영해 가장 적절한 제공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현재의 가로형 자막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영화관에서도 뮤지컬 작품이나 클래식, 오페라를 상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극장의 공연 상영과 국립극장 NT Live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국립극장의 경우 시즌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공연장에서 영상을 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과 마케팅, 공연 운영 등 전체 과정을 공연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측면에서도 1,500석의 대극장에서 음향 등 공연장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영화관 대비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7-2018 레퍼토리 시즌의 NT Live 상영 계획은 어떠한가요? 아직 NT Live를 접해보지 않은 관객들에게 한 말씀 들려주세요.

차기 상영작은 2017-2018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을 오픈하는 7월 중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른 공연을 접할 때와 마찬가지로 NT Live 역시 영상이라는 선입견 없이, 작품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접근한다면 보다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대 최고의 연출가, 배우들이 만들어낸 수준 높은 연극 작품들을 국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관객의 마음을 두드려 공연예술의 자생력을 키우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공연 전막 실황 중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매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 장르의 작품 창작을 지원하고 있다. 공연예술 창작산실에서 선정한 작품들과 관객들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던 예술위가, 지난해에는 급기야 새로운 플랫폼을 선택하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예술위 공연지원부 강보경 씨에게 전막 실황 중계의 의미와 의의를 들어보았다.

예술위는 지난해 ‘2016 공연예술 창작산실 우수신작 릴레이공연’의 6개 작품 전막을 네이버 TV캐스트 및 V 라이브를 통해 실황 중계했습니다.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하게 된 배경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공연예술 창작산실은 연극, 무용, 뮤지컬, 전통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엄선된 초연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장입니다. 2016년에도 총 4개 장르, 23개 작품이 상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들 오랜 시간 준비해 어렵게 선정되지만, 실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관객의 저변 확대는 모든 공연예술인의 숙제라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우수한 창작공연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고, 그러다 찾게 된 방법이 바로 실황 중계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얻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나요?

창작산실 작품들은 예술위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연예술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고 유통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이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공연예술 작품을 어렵게 느끼는 대중들에게 재미와 개성을 갖춘 우수 창작공연을 소개하고, 공연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전막 실황 중계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실제로 관객들을 공연까지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들이 있었지요. 관객의 반응과 효과는 어떠했나요?

처음으로 생중계를 진행한 뮤지컬 <레드북>의 출발이 좋았습니다. 약 1만 3,000뷰(view)를 기록한 데 이어 네이버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 7위에 올랐고, 마지막 공연까지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 뒤에 진행한 뮤지컬 <경성특사>도 1만 5,000여 명이 생중계로 관람하면서 상승세를 탔고, 연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총 7시간의 공연을 실황 중계로 보고 난 후 다시 공연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황 중계가 창작공연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향후 좋은 문화예술 작품을 대중적으로 선보이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이버와 협력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네이버도, 예술단체 측도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공연 예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작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창작공연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버에 직접 찾아가 계획과 의지를 피력했고, 공연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설득했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점도 물론 있었지만 전석 매진, 재공연 확정 등과 같은 좋은 성과로 연결되었기에, 지금은 만족과 보람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도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하여 더 많은 관객들이 우수한 창작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예정입니다.

글 이지영 사진 제공 국립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스틴 사이먼스(런던 문화부시장) 이창현(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장)

도시, 문화에 기울고 크크크

세계 주요 도시들이 서로의 문화정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이하 WCCF)이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현재 WCCF의 의장을 맡고 있는 저스틴 사이먼스(Justine Simons) 런던 문화부시장이 최근 서울을 찾았다. 2017 WCCF 총회 준비를 협의하기 위해서다.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던 그를 만나 WCCF와 런던의 문화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이 자리에는 서울 총회에서 한국 측 좌장을 맡은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동석해 인터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산업화 도시에서 창조적인 문화도시로

20세기가 국가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다. 20세기를 지배하던 협소한 국경의 개념은 사라지고, 세계는 도시 간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이들 도시들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며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발족한 세계 도시문화포럼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서로의 문화정책을 공유하고 최신 이슈를 토론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현재 런던, 뉴욕, 베를린, 도쿄, 베이징 등 25개 국 32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WCCF의 출범에 산과 역할을 했으며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저스틴 사이먼스 런던 문화부시장이 3월 12~16일 서울을 찾았다. 사이먼스 부시장은 서울에 있는 동안 류경기 부시장을 비롯한 문화정책 관계자들을 만나 서울 총회 주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가 하면 DDP, 서울돈화문국악당 등 다양한 시설을 둘러봤다.

사이먼스 부시장은 현대무용 프로듀서, 축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다가 2000년 런던시 공무원이 됐다. 이후 런던의 문화예술 분야를 진두지휘한 그는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2012년 런던올림픽의 문화 프로그램 총책임자이기도 했다.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 신임 시장 취임 후 문화부시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런던시는 9명의 분야별 부시장을 두고 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문화정책은 교통이나 주거처럼 도시의 핵심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21세기 들어 세계의 많은 대도시들이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도시들을 보면 문화를 통해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했거든요. WCCF는 문화정책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아이디어, 성공사례, 시행착오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는 것도 WCCF를 설립한 주요 이유입니다. 사실 문화예술은 다른 분야와 달리 수치로 개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발전시키려면 공통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동안 문화예술 데이터는 박물관이나 극장의 수 등으로 단순했지



중지, 세계도시문화포럼 홈페이지



중지, London 2012 Festival 페이지 북



만 우리는 이런 시설은 물론 시민의 향유와 참여 등까지 포함해 60가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지표를 만들다

사이먼스 부시장은 WCCF의 설립 배경으로 리더십과 데이터 구축을 꼽았다. 설립 이듬해인 2012년부터 매년 다른 회원 도시에서 총회를 열고 있는데, 아시아 도시에서 총회가 열리는 것은 올해 서울이 처음이다. 서울 총회의 주제는 ‘문화와 민주주의’로 최종 확정됐다. WCCF 총회의 주제는 매년 개최도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결정하는 만큼 이창현 교수가 답변에 나섰다. “산업화 도시에서 창조적인 문화도시로 변모해가는 것이 세계적 어젠다라는 점에서 이번 총회는 서울에 시사점이 크다고 봅니다. 런던과 뉴욕 등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한국의 경우 민주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많이 소외됐습니다. 서울이 대표적인 곳이죠. 다만 서울 총회는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최근 한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은 블랙리스트를 극복하



출처: London 2012 Festival 페이스북

- 1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2016년 WCCF 총회.
- 2 런던을 대표하는 댄스 축제 'Big Dance'도 2012년에는 런던 문화 올림픽피아드와 연계하여 진행됐다.
- 3 설치미술가 제레미 델러는 2012 런던 문화 올림픽피아드의 일환으로, 스톤헨지에서 뛰어놀고 싶은 자신의 상상을 구현한 작품을 설치했다.

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광화문의 공공극장 블랙텐트는 민주주의의 회복에 앞장섰던 예술가들의 활약을 보여주는 사례죠. 게다가 우리나라 예술가들은 산업화 이후 도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낙원상가 등 산업화의 현상이 예술가와 손잡고 변모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외면받았던 예술가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선봉장이자 산업화 이후 생활문화를 이끄는 주역이 된 것은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사이먼스 부시장은 이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약간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세계 대도시들은 각각의 독특한 특성으로 차별화되어 있지만 공통점도 많다는 것이다. 국제화를 통해 비슷한 문화를 누리고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대도시들은 비슷한 부분이 매우 많아요. 각각의 대도시에서 보통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데서 알 수 있듯 비슷한 문화를 누리니까요. 런던의 경우 영국의 북부 소도시보다는 미국 뉴욕과 훨씬 닮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의 스케일을 고려할 때 세계 대도시들은 공통된 문제점이 있거든요. WCCF 총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주제를 뽑아냅니다. 예를 들어 회원들을 보면 과

거에 올림픽을 개최했거나, 조만간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거나, 앞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들이거든요.”

런던, 도시 재생의 세계적 성공 사례

런던은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 정부의 'Creative Britain' 정책에 발맞춰 큰 발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공 디자인 중심으로 펼친 도시 재생 사업 덕분에 런던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했다. 창조산업을 앞세운 런던은 21세기 들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됐다.

“런던이 변화할 수 있었던 전환점은 2000년 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로 바뀌고 시장을 직접선거로 뽑게 되면서부터입니다. (2000년 전까지 런던 시장은 정부가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1986년 광역시가 해체되면서 1999년까지 우리나라의 구에 해당하는 33개 기초자치체로 각각 운영됐다.) 통합된 도시가 등장하면서 문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게 됐거든요. 덕분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토양이 마련됐죠. 예를 들어 과거 런던은 영화를 촬영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그러나 런던시가 2000년 '필름 런던'이란 기구를 만들면서 영화 촬영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제작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촬영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거죠. 필름 런던 설립 이후 런던에서 영화 촬영 횟수가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런던은 또 2012년 런던올림픽을 도시 재생에 성공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문학적인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가 지속되길 바란 런던은 낙후됐던 런던 동부 지역 재생을 목표로 삼았다. 쓰레기 매립장에 올림픽 공원을 조성했으며 8개의 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해체, 축소하거나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했다. 또 예술가들이 몰려 있던 지역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거점 공간들을 구축했다.

“런던올림픽은 런던에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교통 네트워크 확충과 동부 지역 재생은 대표적이죠. 동부 지역 재생은 이제 주택개발 등 2단계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예술가들도 이곳으로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5월 서울에서 공연하는 영국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도 이곳에 스튜디오가 있죠. 올림픽을 계기로 런던에 자원봉사자가 늘어난 것도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당시 자원봉사자로 7만 명이 나섰는데, 올림픽 이후에도 3만 4,000여 명이 런던 곳곳에서 꾸준히 활동 중입니다. 또한 새로운 자원봉사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천문학적인 개최 비용 때문에 올림픽 개최 도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런던올림픽이 적자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은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문화 인프라를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건물을 세울 때
전기배선 계획을 세우듯
세밀하고 전략적으로
문화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스틴 사이먼스 부시장

“그동안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외면받았던
예술가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선봉장이자
산업화 이후 생활문화를
이끄는 주역이 된 것은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창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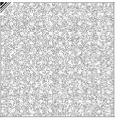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도시 재생과 시설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화 올림픽피아드’로 성공한 런던올림픽

런던올림픽과 관련해 역대 올림픽 가운데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던 문화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문화 올림픽피아드’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런던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강국으로서 영국의 자신감과 국제도시 런던의 매력을 지구촌에 뚜렷하게 각인시켰다. 사이먼스 부시장은 바로 런던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였다.

“올림픽은 어느 도시에서 열리든 정형화되어 있어요.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 개최지 도시를 알려야만 합니다. 문화 올림픽피아드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만들었는데, 가장 핵심은 ‘내 인생의 한 번뿐인 올림픽’이라는 테마 아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도시에서 평생 한 번 만나는 올림픽이니만큼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에게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라고 독려했죠. 덕분에 멋진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제레미 델러 같은 아티스트는 스톤헨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스톤헨지와 똑같이 만든 레플리카가 올림픽 기간 동안 런던에 설치돼 큰 인기를 끌었죠. 올림픽 이후에는 영국 도시들은 물론 해외 여러 도시로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이외에도 런던의 모든 조각상에 동시에 모자를 씌우는 퍼포먼스,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에서 이름대로 서커스를 개최한 것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런던을 세계



에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조각상에 모자를 씌우는 퍼포먼스의 경우 영국 모자산업에도 도움이 됐어요.”

2020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쿄는 런던올림픽의 문화 올림픽피어드 사례를 벤치마킹해 더 나은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그래서 그를 비롯한 문화 올림픽피어드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초청해 조언을 구했다.

“도쿄의 문화 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런던을 넘어서라고 격려했어요. (웃음) 사실 문화 올림픽피어드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런던의 경우 2004년, 올림픽 유치도시로 확정됐을 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체계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은 올림픽 개최 2년 전부터입니다. 2년도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도쿄에는 좀 더 빨리 시작 하라고 조언했어요.”

세계 도시의 공통 과제, 젠트리피케이션

런던이 창조도시로서 각광받아왔지만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정책은 무엇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걸까.

“런던의 창조산업 규모가 420억 파운드(약 59조 원) 안팎이고, 런던시민 6명 중 1명이 창조산업에 근무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런던은 강력한 문화 DNA를 보유한 성공한 도시예요. 하지만 표면 아래로 내려가면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인구 급증,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런던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도전 과제가 됐어요. 개발 초기 런던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 커뮤니티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없어지고 있어요. 대중음악의 산실인 라이브클럽의 경우, 지난 8년간 40~50%가 사라졌어요. 이런 라이브클럽은 비틀즈 같은 밴드가 젊은 시절 활동하는 곳으로 영국 음악유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최근 안정되었지만 20년 앞을 내다보고 문화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문화 인프라를 포함해야 한

다는 거죠. 마치 건물을 세울 때 전기배선 계획을 세우듯 세밀하고 전략적으로 문화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어떤 도시도 이런 방식의 문화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런던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대학로, 인사동, 홍대, 성미산 마을, 북촌, 서촌 등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로와 홍대는 특히 아티스트들의 피해가 크다. 이 교수는 런던과 서울이 각각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을 드러냈다.

“서울에서도 도시 재생에 예술가들이 큰 역할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서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도시 재생을 위해 아티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티스트를 위해 도시가 재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서울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런던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는 방식은 서울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런던의 또 하나의 도전 과제다. 런던은 유럽에서 창조산업의 50%를 차지하는 곳으로 자유로운 인적 교류야말로 창조도시로 성공하는 밑거름이 됐다. 앞으로 2년간 유럽연합과 협상을 벌이지만 탈퇴는 기정사실이다.

“런던 시민들의 브렉시트 반대 비율은 국민 평균보다 높습니다. 창조산업 분야에서는 무려 96%가 브렉시트에 반대했죠. 런던에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유럽 출신이 일하고 있는데,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과 활발하게 교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런던은 전 세계에 늘 열려 있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현대무용 분야에서 일하던 그가 어떤 계기로 런던시 공무원이 됐는지 궁금했다. 한국에서 그와 같은 커리어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어릴 때 청소년 무용단에서 활동했어요. 무용 테크닉도 배웠지만 창의성,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등 학교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프로 무용수가 되지는 않았고 대학에서 예술경영을 공부했어요. 이후 무용단에서 매니저와 프로듀서를 거쳤고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예술계 현장에서 일하면서 늘 정책 분야에 관심이 컸어요. 그러다가 2000년 런던이 광역시가 되고 본격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때 공무원에 도전했습니다. 현재 런던시 문화예술 분야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탁상공론으로 끝나겠지만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잘 이해하는 만큼 좋은 문화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사진 서울문화재단

남산의 봄을 여는 두 연출가
구자혜, 이연주

더 이상 표기는 없다

올해 남산예술센터의 연극 무대는 활어처럼 싱싱하다. 시즌 시작인 4월부터 연말까지 포진한 작품들만 살펴봐도 펄떡이는 에너지가 전해진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국가와 개인, 검열, 일상에서의 차별과 집단의 폭력까지 2017년 한국 사회의 화두들을 정면으로 마주 본다. 금기도, '이래도 되나' 하는 자체 검열도 없다. 연극이라는 거울을 통해 역사적으로 되풀이된 모순과 억압을 햇빛 아래 드러낸다. 남산의 봄을 여는 두 연출가, 구자혜, 이연주로부터 올해의 무대를 달굴 열기를 미리 엿봤다.

'이 세계'의 근본 문제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공연하는 구자혜 연출의 <가해자 탐구_부록: 사과문작성가이드>는 예술계 성폭력에 메스를 댄다. 구 연출은 "성폭력이라는 가해가 어떻게 옹호되는지 원리를 탐구하는 공연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문화계에서는 문학, 만화, 미술, 음악 분야를 망라해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터져나왔다. 스승과 제자, 문인과 작가 지망생, 작가와 팬, 미술관장과 큐레이터 등 주로 수직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회적 관심은 컸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구 연출은 "연극계는 아직 성폭력 문제가 공

문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위 말하는 예술계 성폭력은 과거부터 계속 존재해왔다"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집중해서 다루려 한다"고 말했다.

"작품에서 예술계를 '이 세계'로 상징했어요. '이 세계' 안에 속한, 잘 나가고 위대한 예술인들이 존재해요. 이들이 여기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습작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죠. 이런 위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공연에 서는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온 예술인들이에요. SNS를 통해 봇물 터지듯 피해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이 더는 숨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해자 주변인들이 무대에 올라 직접 가해의 역사를 책으로 써내는 콘셉트예요."

작품에 등장하는 '이 세계'는 한 장르에 국한되거나 특정 분야를 연상시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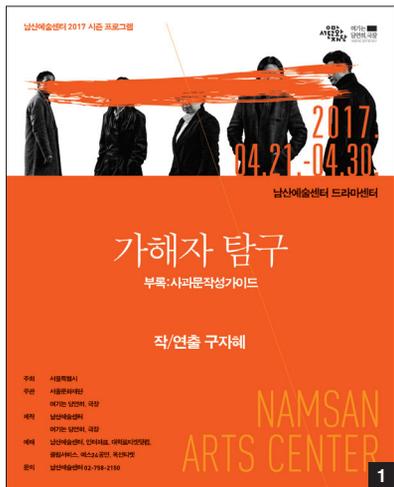
않는다. 문단과 연극계, 심지어 직장 내 성폭력도 모두 근본적으로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구 연출은 그간 성폭력 피해가 공론화되고 해결되지 못한 이유로 ‘예술계의 폐쇄성’을 들었다. 그는 “다른 예술은 모르겠지만, 연극이나 문학은 서로 밀고 끌어주는 가족주의적 태도가 근본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연에서 가해자 주변인들이 ‘오케이, 우리가 가해자를 추적해서 그를 처벌할게, 이 판에서 쫓아낼게라고’ 정당한 논리처럼 이야기해요. 실제로 추방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술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요. 이들이 가해자의 등급을 나눠요. ‘시도 못 쓰는 ‘새끼’가 그런 가해를 저질렀으니 애는 100점짜리 가해자다. 이런 시인은 추방하겠다, 우리 세계에 이런 시인 하나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판을 견고하게 지키려면 영역을 좁혀야 된다. 나갈 사람은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귀족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남성 중심의 문화를 비판하다

구 연출은 “어느 스포츠 기사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야구 선수 성 매매나 원정 도박을 했다면 그의 줏값이 좋은 성적으로 만회될 수 있는가’라고 하더라”며 “저희는 이를 ‘만약 시인이란면 그의 줏값이 그의 시성



1, 2 <가해자 탐구.부록: 사피문작성가이드>
포스터와 구자혜 연출.



으로 만회될 수 있는가라고 바꿔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을 옹호하는 논리로 가족주의와 함께 남성 중심적 문화를 들었다.

“예술계 내에서 힘과 예술성을 높이 평가받은 성별이 남성에 몰려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인류 역사상 계속 작동해온 원리인 것 같아요.”

연극 무대 역시 아무런 반추 없이 성차별을 되풀이한다. 구 연출은 “연극 캐릭터를 보면, 성장은 항상 남성이 하고 여성은 남성의 성장을 돕는 도구나 산파, 순결한 존재이다. 여성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성장은 남성 캐릭터가 한다”며 “연극에서 여성을 다루는 방식까지 작품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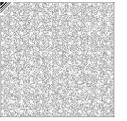
“팀원들과 수다를 떨던 중 ‘연극에서 여성 배우가 맡을 수 있는 캐릭터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출산한 여배우는 어디로 사라지나, 무대에서도 남성 중심적 서사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죠. 한 여배우가 ‘그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라고 했는데 그 배우가 ‘우리 팀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먼저 씨앗을 던졌죠.”

구 연출은 연극계 성폭력에 대해 “정말 간당간당하게 공론

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힘든 이유는 공동 작업이라서 그런 것 같다”며 “연극은 집단 작업이고 편이 좁고 극단 단위로 굴러가기에 더 공론화시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성폭력은 일부 주류 예술인들을 불편하게 할 주제다. 자신이 몸담은 예술계의 치부를 드러내다 보면 자기 검열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나 구 연출은 “연극계를 비판하는 일이라 자기 검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반’이 아닌 ‘이반’의 이야기

4월 6일부터 16일까지 <2017 이반검열>을 올리는 이연주 연출도 날선 문제 제기를 던진다. 우리 사회 모든 ‘이반’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제도나 교육을 통해 학습되는지, 국가가 이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파헤친다. 이 연출은 “청소년 성소수자와 세월호 형제자매·생존 학생의 구술에서 출발하는 작품”이라며 “각각의 미시사를 통해 국가의 검열이라는 거시사를 다룬다”고 소개했다. ‘이반검열’이라는 용어는 본래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쯤까지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설문으로 가려내 징계한 사태를 가리킨다. 이 작품에서 ‘이반’은 성소수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가 정한 기준, ‘일반’에 어긋나는 모든 이들을 이반으로 통칭한다. 이 작품은 지난해 <권리장전2016-검열각하>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4명의 배우가 성소수자, 세월호 희생 학생의 형제자매, 세월호 생존 학생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이 경험한 일상 속 차별, 제도적 폭력과 검열은 박정희 정권의 재건국민운동중앙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삼청교육대,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 최근의 쿼어 페스티벌



별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이번 공연에서도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이반검열과 역사적 사건 사이의 연결 고리를 더 선명히 보여주는 선에서 수정했다.

“존재 자체가 배제, 부정되는 이들을 무대 위에 온전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를 놀리거나 동정하거나 연민으로 바라본다면 그 또한 차별과 배제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이 집단화되면 혐오 표현으로 연결되고, 혐오 표현이 누군가의 집단화된 목소리와 권력을 통해서 더 큰 폭력과 증오로 확장된다고 봐요.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어떤 틀 안에서 재생산되는지를 바라보는 거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차별과 폭력의 역사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안의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는 “결국 이반검열이 무엇인지, 검열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차별과 배제, 폭력으로 나아가는지 작동하는 장치를 들여다보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가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 인물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이 연출은 공연을 위해 성소수자들의 차별 경험이 담긴 구술집 <무지개들의 작은 비밀일기>,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과 형제자매의 속내를 담은 육성 기록집인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참고했고 이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

화 <이반검열>과 <불온한 당신>이 작품의 모티프가 되었다. 무대에는 이들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긴다. 때문에 그는 작가가 아닌 ‘구성·연출’로만 이름을 올렸다.

“작년에 이반검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료를 찾았을 때 처음 읽은 자료들이에요. 신문기사와 누군가가 쓴 글, 즉 기억들을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자료로서 접한 글들이었는데, 그 말을 대체할 다른 말을 쓰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들이 소중한기에 그 이야기들로부터 출발하고 싶어요.”

그는 관객에게 “우리가 어떻게 교육받고 그에 익숙해졌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며 “내가 어떤 시선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공연에서는 ‘가만히 있어라’가 주요 키워드였어요. 전체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은 늘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인권과 민주주의는 늘 나중으로 미뤄야 하는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해야 해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작품들은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논리는 ‘가만히 있어라’와 연결된다고 봐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더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해요.”

글 송은아, 세계일보 문화부 기자. 연극 뮤지컬·국악·클래식 음악 무용 등 공연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 서울문화재단

3.4 <권리장전2016-검열각하> 공연 장면과 이연주 연출





김희천 시각예술작가

1989년 생.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를 졸업했다.
첫 개인전 <캘리 Wall
Rally Drill>(커먼센터,
서울, 2015)을 열었고,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6>(서울시립미술관)
<유명한 무명>
(국제갤러리, 2016) 등의
단체전 및 스크리닝에
참여했다.

청년예술가들이 말하는 생업으로서의 아티스트

예술가의 '진짜 수입' 그리고 '삶'

지난 2월 28일,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신의 놀이>로 최우수 포크 노래상을 수상한 가수 이량의 퍼포먼스가 화제를 모았다. "1월에 전체 수입이 42만 원이더라. 2월에는 감사하게 96만 원이었다. 어렵게 아티스트 생활을 하고 있으니 상금을 주면 감사하겠는데 상금이 없어서 이걸 팔아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트로피를 시상식 현장에서 경매에 부쳤다. 트로피를 현금 50만 원과 바꾼 그의 퍼포먼스를 통해 '배고픈 예술인의 삶'이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수상이나 다양한 활동이 반드시 수입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아이러니한 구조에 놓인 예술인의 삶에 대해, 청년예술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최태섭 문화평론가

1984년 생. <잉여사회>
<모서리에서의 사유>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공저) 등의
책을 썼고, 경향신문,
시사IN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젠더, 노동, 계급과 같은
주제들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쓴다. 장래희망은
먹고살기.



이지혜 연극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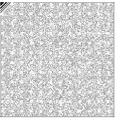
1986년 생. 극단
달나라동백꽃 소속으로,
연극 <선사인의 전사들>
<권리장전2016-
검열각하.안티고네
2016> <북도에서,
美성년으로 간다>
<순우삼촌> <달나라
연속극> <이건 노래가
아니래요> 등에
출연했다.



안태운 시인

1986년 생. 201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제35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 <감은
눈이 내 얼굴을>을
출간했다.





사회 최태섭_문화평론가
토론 김희천_시각예술작가, 안태운_시인, 이지혜_연극배우
일시 2017년 3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로비

최태섭 저는 문화평론가라는 직함을 쓰고 있고, 글 쓰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처음 썼던 책은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예요. ‘열정 노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다 감수하라”고 했던 새로운 노동 착취를 바라보려고 했어요. 지금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문제제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가 생긴 건 이랑 씨의 퍼포먼스 때문인데요. 먼저 수상 소감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김희천 솔직히 다들 아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는 것에 놀랐어요.

이지혜 주변에서 말이 많잖아요. 퍼포먼스의 의도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 놀랐어요. 제가 이랑 씨 팬인데, 이랑 씨 정도의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가 실제 금액을 공개했잖아요. 생각보다 적게 버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안태운 이랑 씨의 퍼포먼스를 뒤늦게 알아서 찾아봤는데요. 예술가의 생활이 어려운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것을 표현한 방식이 재미있었습니다.

최태섭 제가 퍼포먼스를 보고 감명받은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제 수입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얼마 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치명적인 정보처럼 생각하잖아요. 고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인식이 팽배해요. 결국 서로가 얼마나 버는지 모르고 사는데 공개적으로 ‘탁’하고 까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많이 나온 반응은 ‘그렇게 배고프면 왜 음악을 하나, 때려치우고 돈 많이 버는 거 하지’인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음악의 가치가 트로피 가격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나요?

이지혜 저는 주변이 다 연극인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 잘 버는 거 아닌가?’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배우들이 연극으로 버는 돈에 비해서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50만 원에 팔아서 좋겠다’라는 반응이 씁쓸하지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안태운 보통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지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작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지금 하는 작업은 국립극단이라 돈을 그나마 제대로 받아서,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작업일지도 모르겠어요. 작년에 <권리장전2016-검열각하>라는,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연극으로 저항한 공연에 참여했는데, 의미야 너무 좋고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그런 성격의 공연은 아예 처음부터 인건비는 못 받았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죠. 출연료는 보통 두 번에 나누어 줘서, 연습 중에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수입이 들쭉날쭉해서 월별 수입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어요.

안태운 그렇군요. 저는 ‘자기 음악의 가치가 겨우 50만 원이라고 말하는 꼴’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생활과 예술을 대립시키며, 생활을 버리고 예술을 택하는 삶을 높게 여기는, 이상하게 낭만화되고 신화화된 예술가 상에 빠져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또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먹고살기 어려운, 그야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궁창인 현실 속에 생활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미 자본주의에 익숙해 있으니 예술을 금전적으로 치환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없어요. 오히려 인간이 예술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섭 그나마 팔 수 있는 물건의 형태로 작품이 나오는 것이 시각 예술인데요. ‘예술적 가치가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가?’라는 이야기에 대해 시각예술 하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김희천 반반인 것 같아요. 우선 미술 시장이 그렇게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팔릴 만한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모호하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 금전적 가치를 저울질할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태섭 사실 가장 보장이 확실한 것이 공공기관이잖아요. 가끔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도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당황스러워요. 국가마저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돈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놀란 것이 이랑 씨가 음악 외에도 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만화도 그리고, 영화도 찍고, 글도 쓰고, 모든 일을 다 해도 이렇다는 거잖아요. 예술가도 사람이고 먹고살아야 한

다는 것에 너무 무심한 거 같아요. 생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할까요?

김희천 생계를 보장받는다든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어요. 미술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전시를 할 때 ‘아티스티 피’ 이야기를 먼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아티스트 피를 바로 물어보거든요. 아티스트 피가 제가 하는 노동의 양에 충분할 리는 없겠지만 받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면, 빙빙 돌리면서 이야기를 안 해줘요. 예산이 없으면 전시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돈은 없는데 전시는 열고 싶어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시 참여만으로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큰 기대는 안 하고요. 차라리 작업이나 잘하고, 자아가 몽개지지 않도록 어떻게 잘 버텨보아야지 하고 있죠.

이지혜 저도 금전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면 자꾸 구회를 나누게 돼요. 돈은 못 벌지만 의미가 있고 예술적 성취를 기대하는 공연이 있고, 이런 제작자에게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버는 공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나마 돈을 받는 극장의 공연도 연습시간과 공연시간을 더하면 최저시급도 안 돼요. 계약하는 날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도 출연료를 들으면 의욕이 확 떨어져요. 저도 노동자로서 돈을 받아야 먹고사는데요, 제 연기 활동에 대해 얼마만큼 가치를 매겨야 하는지는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 같아요.

안태운 연극에서는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이지혜 작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경력과 나이에 따라 전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줘요. 어르신들이 많으면 밑에 있는 배우들은 적게 받고요. 보통 상업 쪽으로 가야 공연회당으로 주고, 거의 그냥 통으로 계약해서 줍니다.

최태섭 시는 가난의 대명사와도 같은, 오랫동안 선입견이 있는 장르인데요. 등단도 하고 김수영문학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 시집도 내신 상태잖아요. 시를 써서 돈을 버는 일이 일상적으로 많지 않을 텐데, 예술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나요?

안태운 함민복 시인의 <공정적인 밥>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 한 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이 시가 쓰인 지 20년은 지났는데요. 그런데 2017년인 지금도 시 한 편 원고료가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물론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지만요. 아예 원고료를 주지 않는 문예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인이 원고료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죠.

최태섭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안태운 제 포대를 보면 대학원에 다니거나 출판사에서 일하는 경우

“예술의 가치가 공동체에 대해 직접 발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작품을 통해서 미적인 실험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것, 영감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예술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최태섭 문화평론가

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출판사에 다니는데, 다니기 시작하는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또 다른 직장을 다니기도 했고, 잡다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최태섭 저도 직장을 다니던 때가 있었거든요. 글에는 쓰기까지 필요한 예열 시간부터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했던 시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시를 쓰거나 창작 활동을 할 때의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안태운 물론 일 안 하고 한가할 때 시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매일 쓰는 것도 아니니 일하면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정이 되어야 무언가 쓰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법정근로시간인 주 5일, 하루 8시간만 지켜진다면야 충분히 시 쓰기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겠지요.

최태섭 두 분은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하세요?

이지혜 아르바이트, 카페 서빙, 과외도 하고요.

김희천 저는 작년까지 서울문화재단에서 일을 했어요. 제 생활 패턴이 돈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서, 1년간 번 돈 중 남은 거, 상금 받은 거, 작품 소장으로 받은 돈으로 버티고 있어요. 1년 정도 직장인으로 일을 해보니 저는 그나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편이라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회사일 때문에 자아가 구겨지면 작업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는데요. 언젠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직장을 또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최태섭 저는 한 달에 조금씩 맞춰 쓰는 건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큰돈이 들어간다가, 하다못해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 글을 못 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당혹스러우면서 돈이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슬퍼했던 일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 생활고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예술가들은 임금과 기회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일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대가가 없어도 전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공립기관이라 해도 기준이 없거나,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 돈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구는 태도가 있어요.”

김희천 시각예술작가

이지혜 평소에 문득문득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되도록 안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편이에요. 옷을 안 사고, 안 사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삶의 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도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좀 더 다양한 와인을 마셔보고 싶지만 마트에서 항상 제일 저렴한 물건을 고르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욕구를 그냥 누르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서 문득 비참함을 느껴요.

최태섭 이랑 씨의 퍼포먼스에 대해 ‘돈이 없으면 돈 많이 버는 일을 하지, 왜 굳이 예술 하겠다고 나서서 징징거리냐’라는 식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말을 만약 누군가가 본인에게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김희천 그 말이 저한테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돈이

없으면 돈 버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든 상황을 견디면서 한 작업이 좋을 수도 있지만, 힘든 상태의 저를 반영한 작업이 좋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일과 예술 중에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술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좋은 작업이고 그 작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최태섭 그 댓글들이 의미하는 바는 예술 하는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예술의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지혜 고민이 많은 지점 같아요. ‘예술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사회적 발언을 하는 연극에 꽤 많이 참여했는데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댓글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해진 것 같아요. 이랑 씨가 제기했던 건 정당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사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최태섭 사람들의 인심이 팍팍해져서 누가 조금만 지원받는다 하면 ‘나도 힘든데’ 식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는 사실 논쟁거리이긴 하거든요. 예술인복지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거가 되는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쌍한 애들이니까 돈을 주자는 식의 시혜적인 형태의 복지 같은

“시를 생활처럼 쓰는 것과 대가를 받는 것은 별개죠. 제가 시 쓰는 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시는 육체 혹은 정신노동의 산물이니까 그 대가는 필요하죠. 대가가 적더라도 말이죠.”

안태운 시인

느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공통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책이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시비성 댓글이 나오구요.

김희천 이랑 씨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술인복지법에 의문이 들면 왜 예술인만 주느냐는 질문을 하기보다 자기 영역의 부족한 복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이랑 씨는 자기 영역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에 대해 퍼포먼스를 한 것이죠. 댓글을 단 사람들은 퍼포먼스의 맥락은 모르고 그냥 자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태운 국가는 공적인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죠.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없어질 것 같은 영역에 말이에요. 그 영역에 예술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오래전부터 국가는 예술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효과가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아니면 즉각적이든 점진적이든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합의한 건데, 이를 묻고 늘어지는 건 억지라고 생각해요.

이지혜 예술의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는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예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압박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공적 지원금을 받은 작업에서 인건비를 받아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건가 하는.

최태섭 사실 저는 예술의 가치가 공동체에 대해 직접 발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작품을 통해서 미적인 실험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것, 영감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예술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김희천 대중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계자들까지 '너희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태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시집이 팔려서 그 인세로 생계를 유지하면 좋고, 대중들이 연극을 돈을 내고 보러 가면 물론 좋겠죠.

최태섭 그제 한국에서 문화예술을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태도거든요. 관에서도 공짜로 일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빈번해요. 굉장히

악질적으로 본 것 중 하나가 재능기부를 정부에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사람이 기부를 하든지 하는 것이죠.

김희천 관계자들이 예술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해야 해요. 문학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원고료가 낮아도 먼저 이야기는 한다고 들었어요.

안태운 문예지마다 다른데요. 청탁서에 원고료를 기재하지 않는 데도 많아요.

김희천 예술가들은 임금과 기회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일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대가가 없어도 전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립기관이라 해도 기준이 없거나,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 돈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구는 태도가 있어요. 대중은 커녕 관계자들까지 그래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죠. 이랑 씨가 공연을 많이 해도 돈을 이것밖에 못 번다는 이야기를 한 건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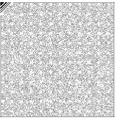
최태섭 비문학 분야의 한 유명 잡지에서 급하게 원고 청탁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쓸 수는 있다, 그런데 얼마냐고 했더니 표준 단가의 절반인 거예요. 하지만 유명 잡지에 글을 기고할 수 있는 기회니까 쉽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해서 실은 적이 있어요.

김희천 그 이야기를 예술가들이 먼저 꺼내게 만든다는 게 정말 치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너한테 기회 아니냐'라는 태도로 나오요. 저는 운이 좋아서인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곳과는 전시를 안 했어요.

이지혜 연극 분야에서는 청년연극인들을 끌어주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시켜서 예술인으로 만든다는 관점이 팽배해요. 공공기관은 우리가 당신들을 가르쳐주면서 공연 기회까지 준다는 태도예요. 왜 많은 지원제도들이 청년예술가들을 계속 교육시키려드는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어요.

안태운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작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슈퍼스타K>와 같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포맷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접을 보고, 멘토링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젊은 예술가들을 개개의 독립적인 예술가로 보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김희천 공공기관에서는 멘토링과 인큐베이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는 ‘직업인으로 여기느냐’ 인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보다는 ‘결국 직업인이긴 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제 스스로 이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지점 같아요.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직업인으로 바꾸는 건지 의문이 가요. 특히 공공기관이 도리어 더 안 그런 경우가 많고요.

최태섭 결국 청년 문제와 열정 노동 문제가 같이 얽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이랑 씨가 ‘돈, 명예, 재미’ 중에 2개 이상 없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좋았거든요. 사실 이 명예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관계자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가의 명예는 무엇일까요?

김희천 사실 명예와 재미만 있어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저도 안 하고 모두가 안 해야 그런 것이 없어지는데 할 사람이 분명 있거든요. 적어도 나라도 돈이 없다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안태운 저는 시 쓰는 데에 의무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일정 기간 시를 못 쓰면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서 억지로라도 쓰는 편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시 쓰는 게 그냥 생활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명예나 재미, 돈에 대해서 별 고민을 안 해요.

김희천 작품을 만드는 것과 발표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원고 청탁이 있을 때 이미 써놓은 시가 있으면 원고료가 없다고 해도 시를 발표하세요?

안태운 원고료가 없다면 안 하겠죠. 시를 생활처럼 쓰는 것과 대가를 받는 것은 별개죠. 제가 시 쓰는 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시는 육체 혹은 정신노동의 산물이니까 그 대가는 필요하죠. 대가가 적더라도 말이죠.

“연극 분야에서는 청년연극인들을 끌어주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시켜서 예술인으로 만든다는 관점이 팽배해요. 왜 많은 지원제도들이 청년예술가들을 계속 교육시키려드는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지혜 연극배우

최태섭 연극은 대가 없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이지혜 연극은 워낙 개인 작업이 아니라 공동 작업이잖아요. 특히 저는 배우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위치에 있어요. 연출은 저한테 권력자예요. 잘 보여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연극계 어른들과 작업을 많이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젊은 연극인 중에 스스럼없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선생님 세대들은 어떻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고요. 관계중심의 작업이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좋은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분위기를 해치는 이야기는 작업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안 돼요.

최태섭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는 오히려 파편화되고 개인의 문제에는 관계가 끼어들어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많은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태운 저는 문학 쪽에 있으니까 다른 영역의 상황은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각 장르마다 특수한 게 있어서 처한 상황도 조금씩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지혜 오늘 ‘가난 경연 대회’를 펼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다른 장르의 이야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기성세대 예술인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주고, 그 전에 우리끼리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서로 참고하고 연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김희천 어려운 영역 같아요. 한 해에 전시를 끝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져보면 전시도 돈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인식이 조금 개선되면 좋겠고, 관계자분들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최태섭 작업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장르에 갇혀서 싸우면 결국 전부 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장르에서는 젊고 힘 없는 소수자들이잖아요. 공통의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서로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으니, 이 자리가 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백종현



<도그살롱>

페이퍼 아트 작가 이지희

한계를 뛰어넘는 종이의 변주

3D를 넘어 4D의 시대에, 페이퍼 아트 작가 이지희는 여전히 손으로 종이를 접고 오리고 붙여 작업을 한다. 작가의 정성스러운 손길과 애정으로 태어난 페이퍼 아트 작품에는 종이 고유의 색과 질감,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느끼기 어려운 특유의 정서가 배어 있다.

현장의 경험을 녹인 페이퍼 아트

첨단 기술이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감촉을 느끼고 싶은 본성이 남아 있는 것 같다. 3D로 제작해도 될 것을, 수고스럽게 종이를 손으로 접어 칼로 잘라내고 풀칠을 한다. 그렇게 둔탁하게 완성된 페이퍼 아트 작품을 보면, 작업을 하

며 느낀 고된 마음이 금방 녹아내린다.

간혹 페이퍼 아트를 어디서 배우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페이퍼 아트는 누군가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오랜 시간의 연습을 거쳐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 역시 유년시절부터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졸업 후 광고 회사를 시작으로 IR 전략, 정책 홍보, 기업 PR 등의 분야에서 15년 남짓 직장 생활을 했다. 인쇄 매체를 다루는 디자이너였기에 종이에 대한 이해는 필수였고, 그런 면에서 페이퍼 아트는 늘도 전해보고 싶은 분야였다.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2006 수출보험공사 애뉴얼 리포트'에 페이퍼 아트 워크 작업을 선보였다. 성공적인 작업과 함께 종이 작업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2010년에 독립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화장품 광고, 잡지 등의 매체, 캘린더 제작 등을 해오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왜 이제 시작했느냐고 묻기도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비축한 에너지 같은 것이다. 직장



<Running shoes>

에서는 디자인제작팀장으로 일을 하며 인쇄 가공 과정 등의 프로세스를 배웠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작업에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 원래 인쇄 가공에 관심이 많아 새로운 기법이나 기계 등이 나오면 시험해보는 편이다. 요즘도 인쇄 가공이 발달한 일본 쪽의 자료들을 늘 확인하고 있다.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디자인 관련 작업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작업들이다. 관련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 또한 큰 장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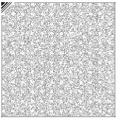
페이퍼 아트는 수작업이라 도면을 만들고 재단해서 붙이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작업 전 광고주와 협의해 최종 밑그림을 확정짓는 게 중요하다. 2D 작업물의 경우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지만, 페이퍼 작업은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정이 힘들다.

종이에 생명을 담다

페이퍼 아트를 하기 위해서는 관찰력이 필요하다. 페이퍼 아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혹은 갖고 싶은 것을 소재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페이퍼 아트로 다양한 사물을 만드는 데 주력했고, 생명이 있는 강아지를 소재로 한 <퍼피루스>(Puppyrus) 시리즈를 시작했다.

강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키우던 강아지와와의 추억과 따뜻한 교감의 순간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작업을 하면서 많이 행복했고, SNS를 통해 내 작업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촬영에 있어서는 단순한 구도나 연출보다 정서적인 교감을 담으려 노력했다.

그다음 좀 더 발전된 형태가 <페이퍼플레이 스톱모션>(Paperplay Stopmotion)이다. 예전에 <웰레스와 그로밋>이라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런 작업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영상 쪽에



<퍼피루스>

관심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게 됐고, 나의 역량을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다. 2분짜리 <페이퍼플레이 스톱모션>을 완성하기까지 재촬영을 반복해, 대략 5,000컷을 촬영했다. 엄청난 작업량으로 체력 소모도 컸지만,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 영상 안에서는 평면에 지나지 않았던 종이들이 살아 움직인다.

이렇듯 페이퍼 아트에는 한계가 없다. 어느 곳이든, 어떤 콘셉트이든 구현만 한다면 멋진 오브제가 된다. 종이에 고유의 색과 공간과 질감을 담는 것을 넘어, 어떤 정서를 담는 작업은 한없는 동기를 유발한다. 페이퍼 아트로 지금껏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완성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

국내의 페이퍼 아트 작업은 아직 외국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지만, 활동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영상,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많다. 하나의 오브제를 만들기보다는 주변 배경까지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작업 분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작품 중 <도그살롱>의 경우도 그렇고, 촬영을 위해 거의 1톤 트럭의 소품을 스튜디오로 옮기곤 한다.

나는 오는 5월, 첫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기존 작품은 물론 새로운 작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만 보던 작품들을 직접 관람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글·사진 제공 이지희. 페이퍼아트 작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 중. 오랜 기간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며 쌓은 노하우로 독립 후 페이퍼 아트를 선보이고 있다. 인쇄 매체를 포함한 광고나 홍보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www.jiheepaperwork.com





오늘은 사람도 하늘이
기르는 식물이다

_문태준 시인의 <봄별> 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지정에 관한 논란

문화생활 하는 금요일? 야근 없는 평일!

최근 정부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직장인들이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다면, 관람 인원 증가와 공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문화예술계 또한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시 퇴근도 힘든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에서, 금요일 조기 퇴근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요일 조기 퇴근, 중소기업은 연감생심?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근자 들어 일본에서 시행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했다는 이 방안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간 업무 시간을 연장하고,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해서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한다고 한다. 물론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가 시행되고 자리를 잡는다면 토요일 못지않은 ‘황금요일’ 특수를 기대하며 금요일 공연 횟수를 추가하거나 공연 시간을 앞당기는 등 문화예술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시 퇴근도 힘든 한국의 직장 문화를 감안할 때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시행 첫날인 지난 2월 24일, 대기업을 포함한 1,300여 개 회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조기 퇴근한 사람의 비율은 3%대에 불과했다. 당초 일본 내 전문가들은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1,200억 엔 수준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헬러윈 당일의 경제 효과(1,300억 엔)와 맞먹는 수치다.



그러나 일본의 민간 조사 회사인 인테지가 실시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시행 직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200명 중 조기 퇴근 제도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일본 SMBC 닛코증권의 자체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조기 퇴근 때 집에서 실 예정’이라고 답했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실시율은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이 5.8%, 100명 미만 기업은 2.4% 등으로 조사돼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참여 비율이 다소 높았을 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는 언감생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전한 여가 문화보다 건전한 직장 문화가 우선

한국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다. 최근 몇 년간 ‘야근 줄이기’ ‘정시 퇴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이유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여러 주자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칼 퇴근’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정시 퇴근만큼 어려운 과제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고, 이를 관련 기관과 지자체로 점차 확산시키겠다고 했으나 유명무실해졌다. 삼성그룹이 1993년 실시한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역시 별 효과를 못 봤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 도입을 앞두고 많은 직장인들은 평일 야근만 늘어날 것이라 우려한다.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 또한 탁상정책에 그칠 것임을 일본 사례가 시사하고 있다.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도입하겠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떠오른 건 한 편의 시였다.

서로 먼저 오려고 다투다가/ 수요일은 화요일 다음에 온다/ 은종이 같은 수요일이 오면/ 나뭇가지마다 쌀알 같은 꽃이 핀다/ 수요일은 이 땅이 처음이어서 다음에 또 오려고/ 이파리마다 햇빛 발자국을 찍어놓는다/ (중략)/ 나, 너 그리고 그, 그 사이가 세상 한복판이다/ 식물들에게 수요일이 먼저 오면/ 인간의 마을에도 수요일이 따라온다

- 이기철, <저 식물에게도 수요일이 온다> 중 (문학사상, 2017년 1월호)

시인은 “수요일이 사람한테만 오는가? 나는 수요일의 나뭇잎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수요일의 꽃이 분주히 열매로 가는 것을 보았다. 식물에게도 골고루 수요일이 온다”라고 ‘시작 노트’에 썼다. 식물들은 요일에 관계없이 햇살을 즐기며 양분을 열매로 실어 나르는 완전 무위의 상태를 유지한다. 식물에게 물어본다면 햇살은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공평하다. 그러나 사람에게 금요일은 공평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다.

여가 선행이란 게 결국은 돈과 시간의 문제인 까닭이다. 게다가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했다니 얼핏 문화사대주의적 발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슬라보예 지젝이 지적했듯, 일본의 최고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불교에서 유래한 젠(禪) 경영(Corporate Zen)이 폭넓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50년 동안 혼육과 희생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빠른 산업화와 군국주의는 대다수 젠 사상가에 의해서 유지되어왔다.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한데, 그 불가피성을 젠이라는 제어장치로 다독이고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근대를 이끈 무사도(사무라이 정신)가 작용하고 있다. 무사도는 원래 불교의 형이상학에서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戰時) 계몽주의의 한 폐단인 개인의 희생의지를 높인다는 목적을 가진 교묘한 영적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한 일본의 근대를 답습하듯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여과 없이 베낀다는 게 영 마뜩지 않다. 게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일을 더 한다는 발상도 그 축적의 주체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다. 30분 연장 근무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주체는 직장 상사다. 그것도 조기 퇴근하지 않을 게 분명한 상사말이다. 그러니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상사들이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고 조기 퇴근을 숭선수범해야 할 판이다. 건전한 여가 문화 이전에 건전한 직장 문화가 먼저이고 금요일도 어차피 세상 한복판이다.

글 정철훈, 문화저널리스트·시인 사진 제공 한겨레



재조명받는 애국심 콘텐츠

국가란 무엇인가

최근 안중근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영웅>이 인기를 끌고, 연대와 인권의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화 <눈길>이 개봉하며 화제를 모았다. 설민석의 역사 강의 역시 기존에 없던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애국심 콘텐츠가 새롭게 떠올랐다.

애국심의 의미를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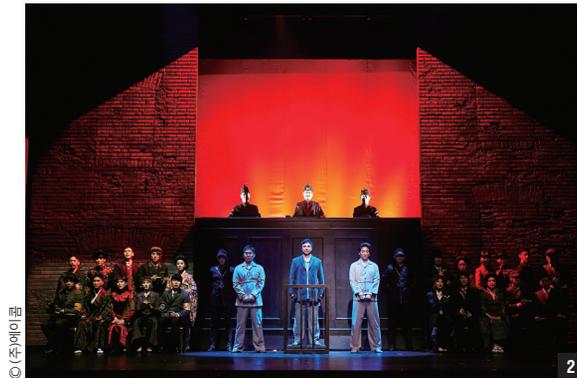
소위 '국뽕'(국가에 과도하게 취해 있음을 뜻하는 신조어)은 예전부터 존재했다.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남한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위로부터의 '애국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부정한 권력을 정당화했다. 최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애국심'이라는 담론은 '국뽕'과는 별개의 것이다. 국가주의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문화콘텐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젊은 층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애국심을 소재나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는 여럿 있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영화 <국제시장> <명량> <인천상륙작전> 등, 그 편향적인 '애국심'에의 고취가 정당한 비판과 신랄한 비난에 직면했던 작품들이 소위 애국심 콘텐츠의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위로부터 강요된 애국심이 아닌, 애국심 자체의 의미와 의의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여러 문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 1, 2 뮤지컬 <영웅> 공연 모습.
3 영화 <눈길> 포스터.



그중에서도 설민석의 역사 강의는 하나의 신드롬을 만들어낸 문화콘텐츠이다. (물론 ‘콘텐츠’라는 말로 가장 극명하게 대변되는, 현재의 문화적 현상에 대한 소비의 형태가 지닌 자유주의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속성에 대한 강조 또한 일반적으로 주목해야 할 어떤 징후임을 지나가는 길에 밝혀둔다.) 이 강의는 ‘역사적 윤리와 상황적 인식에 대한 단순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확장된 인문학 호기심에 힘입어 한국사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설민석의 강의는 단순히 우리의 한국사가 특별하며 우월하다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강조하지 않는다. 민족이나 국가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아전인수 식의 강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문제된 상황들이나 인물들을 통해 현재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학적 윤리를 따른다. 그 점에서 기존의 대중적 역사 강의와 차별화된다. 최근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폄훼 발언 논란도 있었지만, 그의 강의를 쉬운 말과 가까운 예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설민석의 역사 강의가 하나의 문화콘텐츠이자 현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강의만의 장점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이후 거의 전 국민적으로 일어난 어떤 근본적인 의문과 관련이 있다.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 역사를 통해 그 국가는 국민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던가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의문으로 인해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새삼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관심이 애국심 콘텐츠의 부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애국심의 이행, 애국에서 애민으로

물론 설민석의 역사 강의 역시 자국 중심의 역사 해석의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강의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될 것인가 하는 국가 미래주의적 기본 인식이 깔려 있고, 또한 ‘국력’이라

는 담론으로 대표되는 국가 간 권력 이론의 한계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특히 설민석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의에서, 이러한 담론을 통일 논의의 가장 ‘상식적인’ 논리로 삼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 강의와 과거의 담론들과의 차이점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애국(愛國)이 아니라 애민(愛民)이다. 국가나 민족을 절대적인 실체로 추상화할 수 있는 위험을 벗어나, 애국심의 실체가 단순히 국가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애국’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 민중, 국민, 시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애민’의 의미로 강조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파시즘적 애국심으로부터 탈피하여, 애국심의 근원이 역설적으로 국가 그 자체의 가치를 떠나 근본적인 인간에 자체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일 수 있다.

그 이행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중요한 이행의 징후에 주목하며 다시금 애국심의 의미를 민주주의와 애민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반추해본다. 여전히 민주주의와 애민의 기본적인 인간 정신을 잃고 그저 폭력적인 국가와 강요된 희생만을 찬미하는 애국자가 있다면, 마크 트웨인의 애국자에 대한 촌철살인 정의를 다시 한 번 상기하기를 바랄 뿐이다. “애국자: 자신이 무엇에 대해 소리치는지도 모르는 채 가장 시끄럽게 소리 칠 수 있는 사람(Patriot: the person who can holler the loudest without knowing what he is hollering about).”

글 최정우_비평가, 작곡가, 기타리스트. <사유의 악보-이론의 교배와 창궐을 위한 불협화음의 비평들>을 썼고, 프랑스 파리 국립동양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음악집단 레나타 수이사이드(Renata Suicide)를 이끌고 있다.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미리보기

나는 ‘현실순응층’일까? ‘적극활동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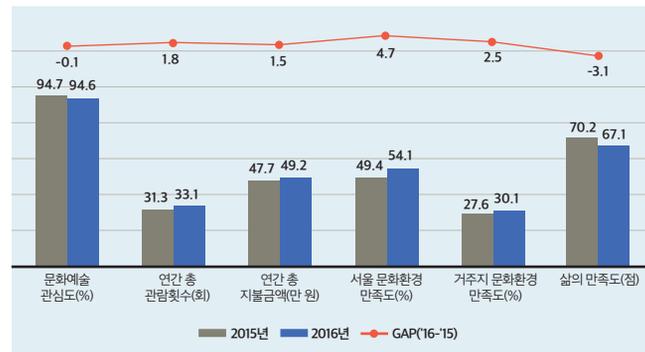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의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가 4월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조사 결과를 미리 엿보았다.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실시된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2016년 11월 말부터 약 3주간 온라인패널 2,000명 및 서울시 공공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 5,7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민들의 문화활동은 위축되지 않았다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가구소득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오락문화 부문의 지출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은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의 비교를 위해 서울문화재단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 회원들은 문화예술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연간 문화예술 관람횟수는 1.8회, 연간 총 지불금액은 1만 5,000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문화환경 만족도 및 거주지 문화환경의 만족도가 각각 4.7%, 2.5% 증가한 가운데,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6년 주요 항목 조사 결과 비교>(서울문화재단 회원집단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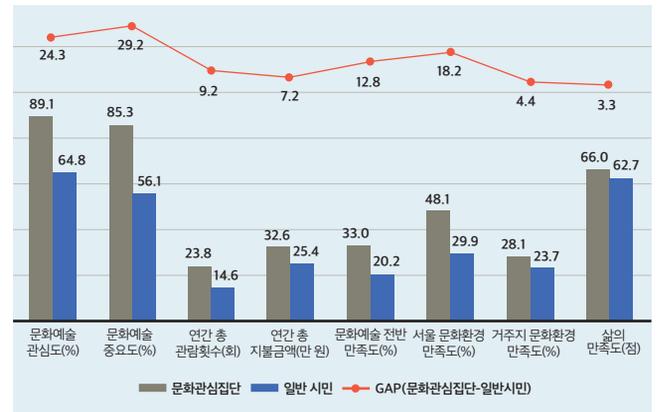
문화관심집단과 일반 시민 간의 문화향유 실태 차이 확인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그간 서울문화재단 회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6년 조사에서는 문화에 관심이 많은 집단과 일반시민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유사한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문화관심집단과 일반 시민 간의 차이를 추정했던 이전까지의 조사와는 달리, 동일한 내용의 설문을 통해 조사집단 간의 비교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우선 일반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온라인조사패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서울인구에 비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문화관심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문화재단 회원을 포함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자 등 서울시 공공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항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관심집단은 서울문화재단 회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에 비해 문화향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심집단의 연간 문화예술 관람횟수는 평균 23.8회로 일반 시민 14.6회에 비해 9.2회 많았으며, 연간 총 지불금액은 약 32만 6,000원으로 일반 시민이 연평균 25만 4,000원을 지출한 것에 비해 약 7만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도는 문화관심집단과 일반 시민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문화관심집단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는 89.1%로 일반 시민의 64.8%에 비해 약 24.3% 높았으며, 문화예술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는 85.3%로 일반 시민의 56.1%에 비해 약 29.2%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시민에 비해 문화관심집단의 높은 욕구가 실제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주요 항목 조사 결과 비교>(문화관심집단 및 일반 시민 비교)



1 시민예술대학 넘나들이.
2 시민예술대학 몸소리.

기존의 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분석 시도

2014년과 2015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시민들의 삶과 문화생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생애주기별 특성 그룹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문화생활을 분석했다. 이러한 유형분석은 나이와 성별, 결혼 및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어떤 문화적 패턴을 띠는지를 관찰하고 파악하기에 유용하였다. 그러나 삶의 형태와 여가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생애주기별 유형분류만으로는 비슷한 삶의 시기에 있더라도 개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생애주기와는 별도로 문화에 대한 욕구 및 참여, 만족 정도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7개 유형, 즉 ‘무관심층’ ‘불만누적층’ ‘현실순응층’ ‘관람주력층’ ‘활동주력층’ ‘활동만족층’ ‘적극활동층’을 도출하였다.

7개의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현실순응층’으로 전체 조사자 중 29.4%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순응층은 특히 자녀가 있는 30~40대 여성들(30대 육아맘, 40대 컬처맘) 사이에서 33% 이상의 높은 비율을 이루었다. 현실순응층에 속한 이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의 관람이나 창작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주어진 여건과 현실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룹이며, 전 연령과 생애주기 그룹에 고루 분포된 편이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무관심층’이다. 무관심층은 전체 응답자 중 19.4%

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40대 남자와 50~6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본 조사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문화적 욕구와 참여가 가장 활발한 ‘문화열광족’ 20대에서도 무관심층이 11.5%나 차지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시민청에서 진행된 ‘토요일은 청이좋아’.



<‘욕구 참여-만족’ 분석모형별 분포도>

구분		문화 욕구-참여-만족에 따른 7개의 유형						
		무관심층	불만누적층	현실순응층	관람주력층	활동주력층	활동만족층	적극활동층
전체 분포(%)		19.4	18.4	29.4	8.0	12.1	8.6	4.2
생애 주기별 특성 그룹	20대 문화열광족	11.5	18.2	29.9	11.4	12.2	9.8	6.9
	30대 싱글녀	9.6	18.8	28.6	15.2	11.0	10.1	6.9
	30대 육아맘	18.2	19.1	33.2	6.4	10.0	9.8	3.2
	40대 프렌디	25.9	24.9	29.1	5.9	7.8	4.8	1.6
	40대 컬처맘	18.4	16.0	33.4	5.3	14.5	9.9	2.6
	40대 싱글녀	13.8	18.5	27.1	13.2	11.9	10.3	5.2
	50대 낭만족	26.8	16.9	26.9	4.5	12.8	9.3	2.8
	60대 액티브	27.9	11.7	26.7	2.9	16.9	10.7	3.2



문화향유 실태조사도 진화한다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이전 조사들에 비해 통계적 타당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변화이다. 이전까지 주로 서울문화재단의 회원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범위를 서울시 공공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로 확대하고, 서울문화재단의 회원은 물론 서울시통합회원 중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자 및 서울시립미술관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대상범위의 확대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둘째, 일반 시민의 문화향유 실태파악을 위한 온라인패널 조사의 병행이다. 이전 조사에서 기존 일반 시민과 문화관심자 간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유사한 타 조사와의 비교를 통한 추정방법뿐이었으나, 이번에 온라인패널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문화향유 실태파악도 가능해졌다.

셋째, 유형세분화 및 '욕구-참여-만족'에 따른 문화지수 도입 시도이다. 기존 생애주기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성별, 나이, 결혼유무 등에 따라 어떻게 문화활동이 변화하는지 알 수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및 참여, 만족 정도를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더불어 서울문화재단이 연구개발한 '욕구-참여-만족' 분석모형이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지수화되었다. '욕구-참여-만족' 문화지수를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이해가 쉬워졌으며 연도별 비교 분석이 더 용이해진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구분	문화 지수	세부 요인			
		욕구 지수	관람 지수	활동 지수	만족 지수
	178.7	77.5	19.8	24.8	53.7
무관심층	119.3	57.0	9.8	4.3	48.1
불만능적층	137.6	81.3	13.4	9.1	33.8
현실순응층	173.5	82.1	15.2	13.9	62.3
관람주력층	216.8	90.0	50.8	13.3	62.7
활동주력층	224.3	80.2	16.5	76.5	51.1
활동만족층	270.6	92.3	26.9	72.1	79.3
적극활동층	280.3	94.2	62.1	67.7	56.3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기대한다

서울문화재단은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패턴과 문화생활에 대해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사회 변화와 더불어 1인 가구, 베이비부머, 육아맘, 노인, 여성, 중년 등 다양한 삶의 패턴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생애주기만으로는 시민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서울문화재단은 2016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 베이비부머, 육아맘 등 다양한 삶의 패턴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 탐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양한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과 문화를 더 밀접하게 반영하는 서울의 문화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글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대리 사진 서울문화재단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요>

구분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문화관심집단			일반 시민
	서울시통합회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문화재단	
조사대상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자	미술관 홈페이지 접속자, 미술관 뉴스레터 수신자	재단 홈페이지 접속자, 재단 뉴스레터 수신자	온라인 조사패널
유효표본	5,706명			2,000명
	3,846명	959명	901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웹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웹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웹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웹 조사 및 50대, 60세 이상 50% 면접조사 병행
표본추출	서울시 홈페이지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 대상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서울시립미술관 뉴스레터 수신 대상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문화정책패널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서울 거주자 중 성/연령/지역별 일반 패널을 활용한 조사
조사기간	2016년 11월 21일 ~12월 2일	2016년 11월 21일 ~12월 2일	2016년 11월 21일 ~12월 9일	2016년 11월 21일 ~12월 2일
조사기관	서울문화재단 (조사 및 분석 대행: 월드리서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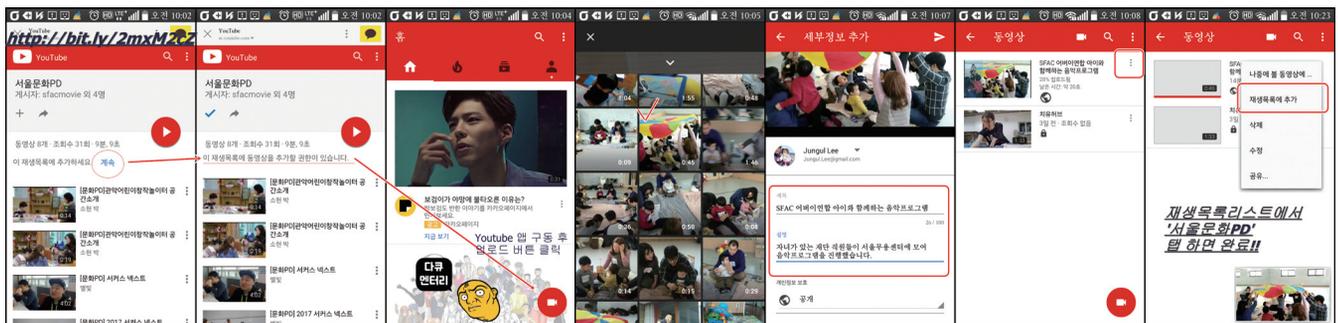
2017년, 서울문화재단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서울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문화현장을 찾아, 예술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숨은 영웅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바로 '아무나, 아!문화! 서울문화PD'다. 명칭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아무나, 아!문화! 서울문화PD'는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아! 문화'를 느끼며 즐겁게 살도록 도와주는 문화기획자이자 문화메신저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1,000명의 시민이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문화정보의 메신저로서 서울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고,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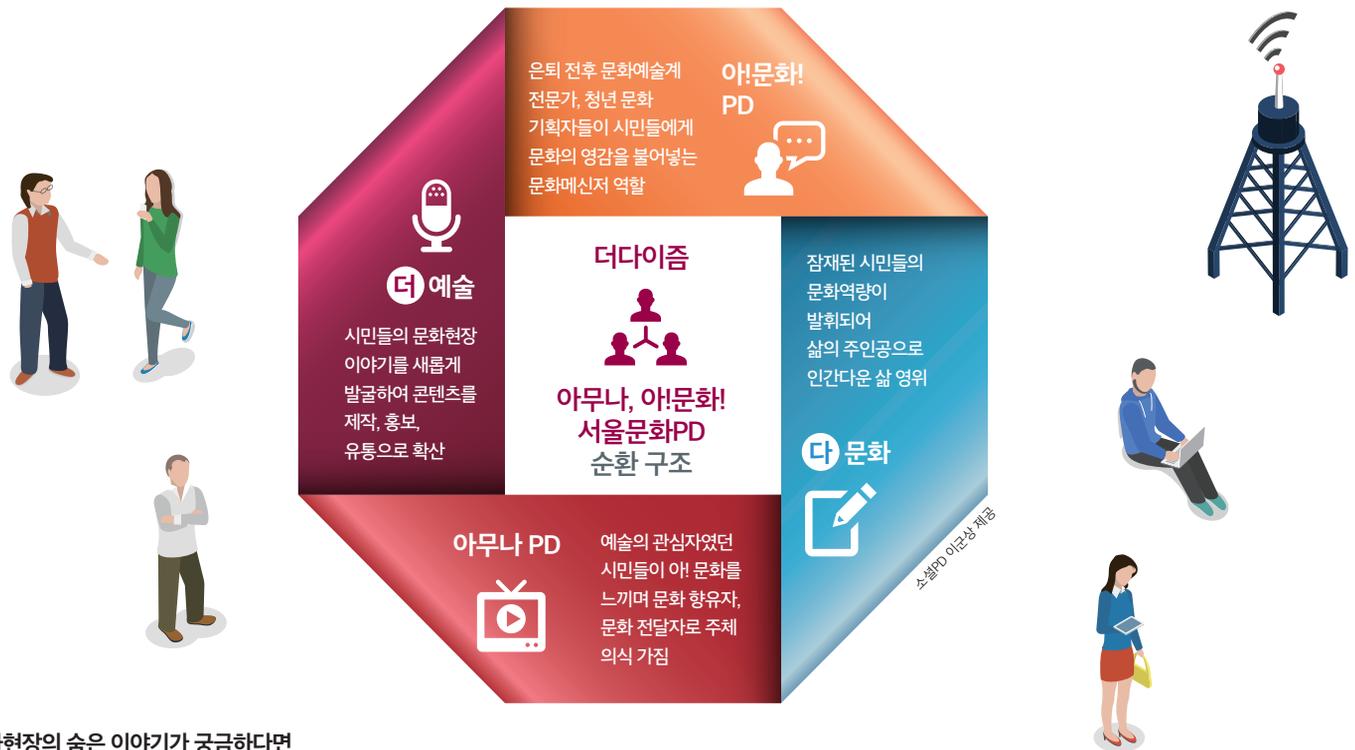
창의적 시민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흔히 '아마추어'라고 하면 프로페셔널의 반대말로, 아직도 성숙된 상태로 전문적인 수준에 닿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아마추어(Amateur)는 라틴어 'amator'(lover)에서 나온 단어로, '돈이나 권위, 승진 따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아마추어 정신으로 푹푹 뭉친 '아무나, 아!문화! 서울문화PD'는 25개의 지역구에서, 1,000만 시민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시각으로 서울시민의 문화적인 삶을 연출하고 전달할 것이다.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는 SNS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어 새로운 지역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유튜브에서 서울문화PD 영상 업로드하는 방법.



문화현장의 숨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무나, 아!문화! 서울문화PD’ 프로젝트는 서울문화재단의 분야별 자문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문위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매니저 역할을 하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아!문화PD,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아무나PD로 나뉜다. 세 그룹은 서로 협력하여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무나, 아!문화! 서울문화PD’ 프로젝트는 방송계·언론계·출판광고계·디자인계·학계·예술계·대중문화계 종사자나 예술 전공자, 1인 미디어, 온라인 홍보 전문가 등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아무나 참여 가능하다.

‘아무나, 아!문화! 서울문화PD’가 서울의 문화현장 곳곳을 누빌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피어난다. 서울문화재단의 서울거리예술축제, 문화철도 2017, 생활문화주간 등 100여 개 프로젝트 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예술가들의 숨은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아무나, 아!문화! 서울문화PD’가 진정한 문화전령사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이제 시작이다.

글 최문성_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교류팀 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 1 서울시민예술대학 <문화미디어 줄>.
- 2 TA 역량강화 아카데미.





서교예술실험센터 내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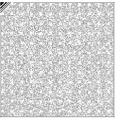
삶과 예술의 문제가 만나는 곳에서 눈물을 닦다

예술가는 삶에서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이 곧 예술활동으로 이어지며, 예술가로서의 작업이 쌓여 생계를 위한 일로 연결된다. 삶과 일, 먹고살기와 예술활동이 늘 맞닿아 있다. 이 경계에서 예기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때, 그리고 충돌이 선을 넘어 삶을 위협할 때 도움을 손길을 청할 곳을 소개한다.

#맛집 #놀거리 #데이트 #술집, SNS에서 '홍대'와 나란히 나열되는 태그들이다. 그러나 이 태그들이 따라 붙기에 앞서 '홍대?' 하면 '버스킹, 작업실, 예술가, 문화공간, 라이브클럽, 인디음악!'을 외치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홍대 인근 지역은 일찍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겪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혹자는 '이제 홍대는 끝났다'고 등을 돌리지만, 이곳에서 예술의 역할을 긍정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생계를 위한 직업을 물으면 각기 다른 대답을 할 것인지만, 느슨하게나마 이들을 통칭할 수 있다면 그 이름은 바로 문화예술인일 것이다. 홍대 거리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는 다양한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써왔다. 이러한 서교예술실험센터 안에 문화예술인들의 일과 삶에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생겼으니, 바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다.

문화예술인 불공정피해 사례를 상담해드립니다

2월 27일 개소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불공정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문을 연 상담센터다.



이름은 상담센터지만 꽤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9명의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가 예술가나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교육한다. 예술가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챙겨야 할 사항과 규정을 검토한다. 또한 계약 후에 발생하는 임금 미지급, 성명표시권 및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구제 상담을 시행한다. 사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모든 지원과 상담은 무료이며, 이 과정에서 쌓인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시 차원의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의 법률상담관 임애리 변호사는 만화가들의 불공정피해 상담 사례를 예로 들면서, 무형자산과 창의를 바탕으로 사회 첫걸음을 뚫은 이들이 많은 분야인 탓에 업체나 기관과 계약하는 주체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안에서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가들이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다. 업체와 문화예술인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나 치우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도움으로 예술인 복지의 공백을 채우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보니 조금이나마 작업을 이어가는 주위의 선배, 후배, 동기의 직업은 작가가 아니었다.”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보다 부업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야 했다는 어느 작가의 고백이다. 최근 5년간 고등 교육기관의 예체능계열 졸업자 수가 70만 명을 웃돌고 문화예술계 종사자도 해를 거듭하며 늘고 있지만, 이들의 일과 삶은 그리 녹록지 않다. 예술활동을 통한 연간 수입은 중앙값이 300만 원, 평균이 1,255만 원(문화체육관광부, 2015 예술인실태조사 기준)이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예술인의 삶을 보여주는 참담한 통계 앞에서 창작의 기회가 적고 작품을 발표할 곳이 없다는 호소가 공허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대목에서 서교예술실험센터와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의 만남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한다. 서교예술실험센터가 2009년에 설립된 이래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니 더욱 그렇다.



- 1 눈물그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2 서교예술실험센터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모습.

서교예술실험센터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면서 2013년부터 예술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민관 거버넌스 ‘공동운영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왔다. 예술 장르와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작은예술지원사업 ‘소액다کم’이나 공간지원사업 ‘쉐어프로젝트’와 같은 공동운영단 기획사업과 더불어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신진-유망-기성 예술가로 이어지는 경력별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미술, 음악, 공연, 문학, 영상, 서브컬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고, 서류와 숫자로 대변되는 것이 아닌, 살아 있는 지원 사업을 꾸려가려는 의지이다. 이러한 서교예술실험센터 안에 상담센터가 자리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의 공백이 실질적으로 메워지고, 예술인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한층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의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방문 상담을 받거나,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의 상담계시판을 이용해 수시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내담자들의 고충 해결 사례가 쌓여 문화 불공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나아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상생하는 그날을 기대한다.

글 임나래, 서교예술실험센터 5기 공동운영단



단편·독립영화 상영관
'자체휴강 시네마'

생활 밀착형 시네마를 소개합니다

영화 애호가들의 다채로운 취향을 반영하여, 전국 곳곳에 소규모 영화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중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녹두거리 초입에 위치한 '자체휴강 시네마'는 작품성을 인정받은 단편·독립영화들을 언제나 편히 들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젊은 시네필의 아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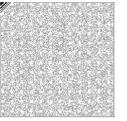
“글은 책으로, 음악은 음반으로, 영화는 스크린으로 나올 때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관객들과 만나지 못하는 영화가 과연 의미 있을까요?”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한 박래경 대표는 영화를 완성하고도 상영할 공간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직접 작은 상영관을 열었다. 대학동 녹두거리 초입에 위치한 이곳의 이름은 '자체휴강 시네마'. '관객에게 선택의 기회를, 영화인에게 상영의 기회를'이라는 모토대로 관객과 영화인이 좋은 영화를 매개로 모이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다. 박 대표의 의도처럼 언제나 편히 들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인 셈이다.

자체휴강 시네마는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

까지 문을 연다. 상영하는 영화는 단편 혹은 독립영화로,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돼 작품성을 입증받은 영화들이 주를 이룬다. <검은 사제들>의 원작이자 제13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절대 악몽 부문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며 2014년 최고의 단편으로 회자된 <12번째 보조사제>, 정동진독립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 소개되며 입소문을 탄 <병구> 등 단편영화 팬들에게 익숙한 작품들을 상영했다. 관객들의 보편적인 입맛을 고려해 수상작 위주로 리스트를 꾸렸지만 박래경 대표는 연출을 전공하지 않은 초심자들의 작품 또한 한두 편씩 꾸준히 상영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고시촌 단편영화제의 작품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영화 한 편당 관람료는 2,000원으로, 웬만한 카페의 음료 한 잔보다 저렴하다. 2~3주 단위로 새로운 작품을 개봉한다.

자체휴강 시네마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단연 상영관이다. 시야각을 고려한 알맞은 크기의 스크린, 1인용 침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폭신한 좌석이 상영관에 들어서 있다. 관객 5명이면 상영관이 딱 찰 정도로 아담한 크기다. 관객이 1명이든 2명이든 보고 싶은 작품을 고르면 영화를 바로 볼 수 있다. 늦게 온 관객들은 상영관 밖의 안락한 대기공간에서 기다리면 된다. 멀티플렉스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주전부리도 즐길 수 있다. 지금은 아메리카노, 콜라, 팝콘 등 기본적인 메뉴들만 판매 중이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카페에서 즐길 수 있는 음료들도 준비할 생각이다.

이제 갓 3개월 차에 들어선 새내기 영화관이지만 벌써 단골이 생길 정도로 대학동 일대에서 반응이 뜨겁다. 서울대, 삼성고, 서울정보산업고 등 주위에 학교가 많은 만큼 영화를 좋아하는 젊은 시네필들이 주 관객층이다. “좌석 수도 적고, 지하에 있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한 번 온 이후로 계속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영상 공부하는 어린 친구들이 공부 겸해서 영화를 자주 보고 가요. 그럴 때면 ‘틀린 일을 하진 않았다’ 싶어 기분이 좋죠.”

특유의 소담한 공간은 모임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알맞다. 자체휴강 시네마는 관객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다만 주요 시간대에 대관을 하면 일반 관객들이 이용하기 힘들니, 관객이 드문 시간대에 맞춰 대관 업무를 진행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대관 업무에서 나아가 박래경 대표는 자체휴강 시네마를 구심점으로 삼은 영화 소모임을 추진 중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모여 같은 영화를 보고 토론하며 친목을 다지는 것이다. 크기는 작지만 쓰임만 큼은 무궁무진하다.

지금도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영화를 찍는다

자체휴강 시네마 외에도 전국 곳곳에 소규모 영화관들이 있다. 그중 용산구 이태원의 극장관, 춘천의 일시정지시네마 등은 자체휴강 시네마처럼 모두 작지만 힘 있는 영화 공동체다. 세 곳은 최근 봄 상영작 공모를 함께 진행했다. 38편이 출품됐고 그중 5편을 4월 한 달간 세 영화관에서 동시에 상영할 예정이다. 이옥섭, 구교환 감독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허준석 감독의 <강냉이>, 강진엽 감독의 <백패킹>, 이동환 감독의 <트랙>, 박윤진 감독의 <퍼펙트 마라톤>이 그 작품들이다.

지금은 영화관 업무에 주력하고 있지만 박래경 대표 역시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꾸준히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상영작을 고르다 보면 자괴감이 들 정도로 뛰어난 영화들이 많아요. 지금도 어디선가는 영화를 찍고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걸 관객들이 알아주었으면 해요.” 박 대표는 자체휴강 시네마가 관객들의 공간을 넘어 영화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영화 촬영 후 기술시사를 하거나 스태프들이 함께 모이는 용도로 쓰였으면 하는 것이다.

그의 장기적인 바람은, 이곳에서 소개한 영화의 배우, 감독, 스태프가 장편영화 신에서도 활약하는 것이다. 훗날 큰 스크린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시작을 함께했던 이 공간을 관객들이 기억한다면 더없이 뿌듯할 거라고 한다. 물론 자체휴강 시네마도 그 자체로 더욱 다양하고 많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으로 커나갈 꿈꾼다. 지금은 단편영화만 상영하지만, 장편영화도 수익 구조에 맞춰 상영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 중이다. 최종적으로는 단편과 장편을 반반씩 틀고 싶다는 게 그의 구체적인 소망이다. 공간만큼 알차고 든실하게 그의 꿈이 영글어나가길 기원한다.

글 김수빈 사진 제공 자체휴강 시네마



- 1, 2 단편·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자체휴강 시네마.
- 3 편안한 좌석이 준비되어 있는 아담한 상영관.
- 4 차레를 기다리며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

연극 <왕위 주장자들>과 <보도지침>

역사는 돌고 돌아 무대에 오른다

수십 년이 지난 후 현재는 어떻게 기록되고 재생산 될까. 맥 빠지는 이야기지만, 아마 수십 년 전이나 수십 년 후와 비슷하지 않을까. 여기 국정 농단과 정쟁으로 얼룩진 현실정치를 떠올리게 하는 연극 2편이 있다. 물론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1 <왕위 주장자들>에서 호콘 역을 맡은 김주현 배우.

2 <보도지침>에 출연하는 봉태규, 고상호, 박유덕, 남윤호 배우(사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154년을 관통하는 권력에의 욕망

<왕위 주장자들> 3. 31~4. 23,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왕위는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수없이 많다. 모두가 왕위를 향해 나아간다. 누군가는 끝없는 자신감을, 또 다른 누군가는 실낱같은 불안을 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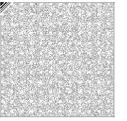
<왕위 주장자들>은 노르웨이의 유명 극작가 헨리크 입센이 1863년에 집필한 작품이다. 입센은 외국에서 셰익스피어 다음쯤으로 작품이 많이 공연되는 극작가다. 지금껏 국내에서는 입센 작품 25편 중 11편이 무대에 올랐지만 흥행에 성공한 건 <인형의 집>과 <유령> 정도다. 서울시극단이 올해 시즌 첫 공연이자 창단 20주년 기념작으로 선보이는 <왕위 주장자들> 역시 이번이 초연이다.

작품 속 '왕위 주장자'는 두 명이다. 호콘 왕(김주현 분)과 스쿨레 백작(유성주 분)은 스베레 왕 서거 후 왕위를 놓고 격돌한다. 호콘 왕은 백작의 딸 마르그레테를 왕비로 맞지만 형식적인 동맹은 서둘러 뺏어진 만큼 쉽게 깨진다. 호콘 왕은 자신의 장인인 스쿨레를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스쿨레는 호콘 왕의 아들이자 자신의 외손자를 시해하라 명하면서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는다.

13세기 노르웨이를 배경으로 했지만 현대 심리극과 비슷한 형태를 띤다. 스쿨레는 왕위를 탐하지만 깊은 자기불신과 불안을 지닌 인물이다. 추종자들 앞에서는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뒤돌아 욕망의 무게를 버거워하는 모습은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오르게 한다. 반면 호콘 왕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스스로를 '신'에 견주며, 많은 국민들은 그의 자신 있는 모습에 '희망'을 갖는다.

사상 초유의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관객들에게 이 연극은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연출을 맡은 김광보 서울시극단 예술감독은 "우연의 일치"라고 강조하면서도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현 시대와 너무 잘 맞아떨어져 한 방 맞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는 "(작품은)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는 인물이 과연 일반 민중의 바람을 이루어줄 수 있을지, 국민의 '희망'이 그들이 바라는 '희망'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입센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고국 노르웨이를 떠났다. 이탈리아와 독일, 문화적으로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한 여정이었지만 어쩌면 그 또한 무언가에 실망하고 질려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언론의 흑역사… 진실은 숨겨지고 편집됐다

[〈보도지침〉 4. 21~6. 11, 대학로 티오엠 2관](#)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과거다. 어쩌면 〈왕위 주장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정쟁보다도 뿌리 깊고 어둡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보도지침〉은 30년 전 언론계 흑역사로 남은 사건을 재구성했다. 제5공화국 시절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은 언론사에 보도 여부와 방향, 내용, 형식 등을 규정한 ‘보도지침’을 배포해 언론 통제에 나섰다. 1986년 한국일보 기자가 월간지에 ‘보도지침’의 실태를 폭로했지만 이 또한 ‘보도지침’에 의해 보도되지 않았다. 폭로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9년 후에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도지침〉은 지난해 수현재씨어터에서 초연되면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110분 내내 한 편의 법정드라마를 연상시키는 빠른 전개와 ‘사이다’ 같은 촌철살인 대사들이 설 틈 없이 몰아친다. 단순히 사건을 재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등장인물들을 ‘대학 연극

부 동기’라는 허구적인 설정으로 묶어 서사적인 재미와 연극적 기발함을 더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배우 봉태규가 사회부 기자 ‘김주혁’ 역을 맡았다. 2009년 연극 〈웃음의 대학〉 이후 7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한다. 같은 역에 〈라흐마니노프〉의 김경수와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의 이형훈이 공동 캐스팅됐다. 이외에도 편집장 ‘김정배’ 역의 고상호, 박정원, 기세중과 변호사 ‘황승욱’ 역의 박정표, 박유덕 등 떠오르는 뮤지컬 신예와 실력과 배우들의 조화가 기대되는 작품이다.

지난해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앞서 〈보도지침〉은 젊은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제작사 대표의 말실수로 인해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폐막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그날들〉과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등을 선보인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가 제작과 기획을 맡았다. 진보적인 연극을 올리는 관계자의 편협한 고정관념이 연극의 작품성을 가리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랄 뿐이다.

글 구유나, 머니투데이 기자 사진 제공 세종문화회관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전시 <YOUTH-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와
<모리스 드 블라맹크>

청춘이여, 폭발하라

청춘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2개의 전시가 연달아 열린다. 청춘의 열병을 맹렬하게 표출한 <YOUTH-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 전과 강렬한 색채와 휘몰아치는 붓놀림으로 정열적인 작품을 표현한 블라맹크의 전시가 그것이다. 청춘이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전시들이다.



용감한 청춘을 기대한다

<YOUTH-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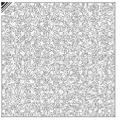
2. 9~5. 28, 디뮤지엄

청춘의 사진가는 누구일까? 먼저 라이언 맥킨리가 기억난다. 사막과 들판, 폭포 아래, 터널 속에서 알몸으로 뒹굴고 뛰는 청춘 사진들. 이런 작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국 땅이 부러웠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해야 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취업에 매달려 낭만도 사랑도 접어야 하는 현실에서 과연 저런 청춘의 자유와 열정과 뜨거운 발산이 가당키나 할까. 한국에서는 연애조차도 자유롭지 않다. 접고 사는 이들도 많다. 그저 청춘의 열병을 폭발시키지 못한 채 먹고살기 급급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인가. 2월 9일 개막한 <YOUTH-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 2주 만에 관람객 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청춘의 폭발력을 사진작품으로라도 즐기려는 듯이 느껴졌다. 나는 소녀친구에게 젊은 애들이 줄을 서서 보는 이 사진전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작품이 대단하다기보다 커다란 전시장의 코디가 흥미로웠고, 사진을 통해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대리 만족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닐까 싶어.”

친구는 “우리도 얼마든 저렇게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 막을 걸”하며 대답을 마무리했다. 웃음이 나왔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여자가 살기에는 피곤한 나라임을 청소년들도 희망 없이 말한다. 여성의 알몸 사진이 자유와 행복의 상징으로 읽혀지니 시원하면서도 씁쓸했다. 그러면서도 용감한 누군가가 나오길 나는 바란다. 아방가르드한 정신으로 폭발하는 청춘이 있기를 기대한다.



열정이 곧 청춘이다

<모리스 드 블라맹크>

6. 3~8. 20,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나는 스스로 물어보았다. 그렇게도 평생을 지니고 싶은 청춘은 무엇일까, 하고. 그러면 나이가 들면 청춘은 사라지는 것인가도, 청춘의 개념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 100세 시대라 더 그렇다. 나이 들어서도 열정이 곧 청춘이고, 노력하는 자만이 청춘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청춘의 모범인 작가들을 찾다가 프랑스의 화가이자 판화가인 <모리스 드 블라맹크> 전이 조만간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블라맹크는 1901년 파리에서 열린 반 고흐 회고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고흐의 열정적인 화풍에 매료되어 강렬한 색채와 휘몰아치는 듯한 붓놀림으로 작품을 완성해갔다. 센강 인근 지역인 샤투에 작업실을 구하고 그 자리 이름을 써서 '샤투 화파'를 만들었다. 1905년에는 마티스의 권고로 <앙데팡당> 전 등에 마티스, 드랭, 뒤피, 루오, 브라크 등과 함께했다. 아수주의 화가들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으로, 굵고 빠른 필치와 두툼한 채색으로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을 살려나갔다.

“직관이 예술의 기초를 이룬다.” 블라맹크가 믿었던 직관론에 나는 깊이 공감한다. 그는 단 한 번도 루브르박물관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과거의 거장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경멸했다는데, 이런 태도가 옳고 그림을 떠나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직관적인 몸의 활동은 그만큼 열정적이었다. 나는 그의 생각과는 달리 회화의 역사를 탐구하고 살펴야만 더 웅숭깊어지고, 자기만의 개성적인 작업을 찾는 때가 온다고 여긴다. 다행히도 그는 1907년부터 아프리카의 문화와 세잔의 작품을 연구하면서 몽마르뜨르에 있는 피카소의 작업실 '바토 라부아르'(세탁선)에서 피카소와 공동으로 작업했다. 어두운 색조 속의 견고한 화면 구성은 세잔의 영향으로, 철저한 프랑스식 표현성을 밀고 갔다. 그의 남다른 청춘의 정열에 젖어보기를 기대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뜻하며 끝까지 가는 것임을 새삼 다시 느낀다. 여기에 멋진 답이 될 시 한 편을 기억한다. 사무엘 올판의 시 일부를 노래하듯 흥얼거려본다.

청춘이란 장미 빛 불, 붉은 입술 그리고 유연한 무릎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다. /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이다. /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와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 때로는 스무 살의 청년보다 예순 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 나이를 먹는다고 누구나 늙는 것은 아니다. /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상실할 때 영혼이 주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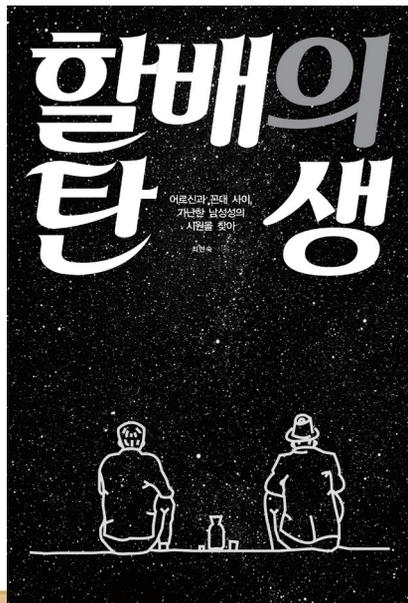
나이 들어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시인지 모른다. 이 시의 내용은 맞다.

글 신현림, 시인·사진가. 디자인과 국문학을 전공했고, 디자인대학원을 졸업했다. 신선하고 파격적인 상상력, 독특하고 매력적인 시와 사진으로 정평이 나 있다. 최근 베킷머리 시모음집 <시가 나를 안아준다>를 냈다.

사진 제공 디뮤지엄, 예술의전당



- 1 Young Mods near Carnaby Street, London, 1984, Courtesy of Derek Ridgers.
- 2 Soar, Palermo, 2016, Courtesy of Paolo Raeli.
- 3 Retour de pêche. Bretagne, 1947, Huile sur toile, 60×7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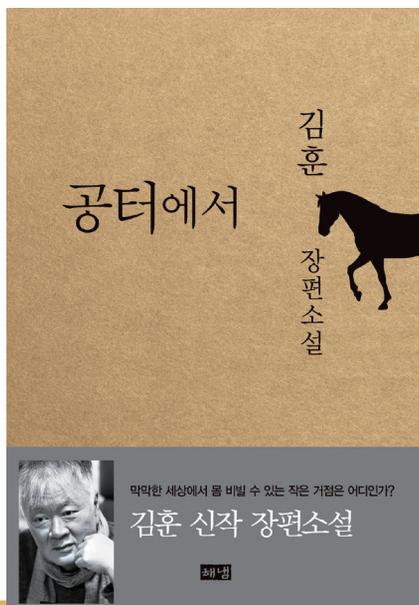
책 <할배의 탄생>과 <공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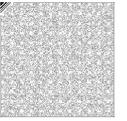
냉소보다 이해가 필요한 지금 꺼내보는 책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아끼는 지지자들이 있다. 그들은 왜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 같은 믿음을 보이는 걸까. 그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책 2권을 소개한다.

3월 12일 서울 삼성동 일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다. 태극기를 든 900여 명의 지지자들은 '중북 좌파 척결한 우리 국민 대통령 박근혜' 같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누군가가 "박근혜"를 선창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후창했다. 경찰은 사저 앞 골목길 350m에 걸쳐 좌우로 이중, 삼중의 인간 경계벽을 펼쳐 지지자들을 둘러쌌다. 10개 중대 1,000여 명이 투입됐다. 태극기를 흔들며 "박근혜"를 연호하던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차 안에서 손을 흔들자 눈물을 터뜨렸다. 박 전 대통령이 집으로 들어간 후에도 지지자들은 계속 남아 "탄핵 무효!"를 외쳤다. 곳곳에서 탈진한 지지자들이 쓰러졌다.

현재의 탄핵 인용에 연일 불복 시위를 벌이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지지자들의 무한 신뢰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은 기각"이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한스 켈젠의 "민주주의는 적을 가슴에 품고 가야 하는 제도"라는 말로 이들을 '꼰대 논외'로 취급해선 양분된 사회의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다. 이들 역시 7포 세대, 흡수저만금이나 제언어를 갖지 못한 서발턴이니까. 이들이 왜 종교와 같은 믿음을 정치에서 구했는지, 그 대상이 왜 박 전 대통령인지를 이해하려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술사 연구가 절실하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할배의 탄생> 최현숙 지음, 이매진

최현숙의 <할배의 탄생>은 70대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연령주의가 개인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관찰한 구술사 연구다. 저자가 만난 '할배'는 전북 부안 출신의 김용술(71), 강원 횡성 출신의 이영식(70·가명)이다. 이들의 진술은 왜 가난한 노년 남성이 불평등을 받아들이는지, 보수적 정치색을 띠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두 사람의 삶은 군대, 여자, 돈으로 점철된다. 김용술은 “군대는 남자라면 가볼 만한 재미있는 곳”인데, “인권이나 들먹이는” 한편에서 “자살이 끊이지 않는 거”고, “피 못 내고 요령 피울 줄 모르고 탈영한 놈들은 병신”이라고 말한다. 이영식도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 군대에서 사고가 많다”고, “때리는 놈은 통솔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폭력을 두둔한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군대 안 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김씨는 “대한민국은 유병언이 같은 사이비 교주가 나라를 쥐고 흔드는 그런 구조”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먹고살게” 했다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

둘 다 화려한 성매매 경험을 자랑하고, 평생 쉬지 않고 일했지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통점이 있다. 동거를 여러 번 한 김용술은 여자 때문에 밥벌이와 사는 곳을 자주 바꿨다. 성생활과 관계, 직업 변경과 주거 이주 사이의 상관성이 높은 건 가난한 사람들의 성생활 특징이다. 부유한 남성은 정상적인 가족과 직장, 주거지를 유지하며 결혼 바깥에서 성을 즐긴다. 이영식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관계하는 여자도 함께 바뀌었다. 이성애 결혼관계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남성이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는 방식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정상 성 규범’에 따르면, 두 할배는 늙고, 가난하고, 결혼을 안 하거나 깨져서 정상에서 밀려났다. 대화보다 훈계, 타협보다 명령이 가부장의 권위라고 여겼던 늙은 남성들은 자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한국은 유구한 갑질의 나라

<공터에서> 김훈 지음, 해냄출판사

김훈의 신작 소설 <공터에서>는 이 할배 세대와 이들의 아버지 세대가 겪은 한국 현대사를 통해 “시대가 개인에게 가하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도망 다니고, 시대를 부인하고, 결국 미치광이가 되어서 바깥을 떠도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린다.

주인공은 1910년 태어나 1979년 사망한 남자 마동수와 그의 아들 마차세. 한일병합의 치욕 속에서 태어난 마동수는 형을 따라 만주로 가 아나키스트들과 어울려 25년을 떠돌다 해방 후 서울로 돌아온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산 피난처에서 병원 빨래꾼으로 일하다 이도순을 만나 살림을 차리고 마장세, 마차세 두 아들을 낳는다. 군부 독재, 베트남전쟁 등을 겪는 그는 끝내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 방황하다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했듯이 아들들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

그가 그린 한국 근현대사는 “유구한 갑질의 역사”다. “내부의 상처를 통해 재편성된 외부 풍경을 옮긴” 특유의 문체가 빚어낸 갑질의 역사가 소설 장면마다 흐른다. 이를테면 6·25전쟁 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50만 명이 줄 지어 한겨울에 피난을 가는 대목에서, 이 나라 고관대작들은 군용차와 관용차를 징발해서 군용트럭에 응접세트, 피아노를 싣고 먼저 날리며 피난민 사이를 질주한다.

소설은 절망의 현실에서 모성에 눈을 뜬 여성을 통해 희망의 빛을 찾는다. 사내들의 마음속 공터는 여성의 사랑으로 채워진다. 문학적으로 진부한 발상이다. 각종 사료를 밀천으로 그린 초반부가 탄탄한 서사를 자랑하는 데 반해 아들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중·후반부는 다소 힘이 빠진 전개로 흐른다.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어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sfac.or.kr) - 열린광장 혹은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http://bit.ly/ltAX44>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고양이와 효과적으로 놀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제 갓 한 살이 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와서 틈틈이 놀아주려고 애쓰지만 고양이에게는 부족한가 봐요. 늘 더 놀아달라고 간절히 울어댁니다. 제가 놀아주기 시작할 때 환희에 찬 고양이의 눈을 보면 정말 시간을 더 내서라도 놀아주고 싶지만, 저도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은지라, 고양이의 애원을 애써 무시할 때도 많네요. 제 수고를 좀 덜 들이고 고양이와 효과적으로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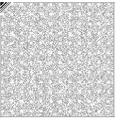
10분만 성의를 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세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집사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저 역시 ‘우와, 나도 이거 정말 궁금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예술적 상담소’라니요.

고양이는 놀이를 통해 튼튼한 몸과 심신의 안정을 얻습니다. 놀이는 운동이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합니다. 집사가 성실하게 놀아 주면 종일 혼자 있던 고양이가 고맙다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놀아주는 시간은 한 번에 5~1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일단 시간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10분만 열심히 놀아주면 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10분간 성의를 다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놀아주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양이는 같은 패턴에는 반응해주지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창의성을 기르도록 하는 고양이의 배려입니다. 기본적으로 놀이는 사냥을 흉내 내는 것이므로 사냥감인 벌레나 새, 쥐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다 갑자기 멈추거나, 숨겼다가 내보이거나 변화를 주어도 이내 시들해집니다. 고양이는 유난히 새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니 자주 새 장난감을 구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금전적 부담이 크죠. 머리끈이나 뒤집은 양말, 털실 등 집에 굴러다니는 잡동사니를 활용해보세요. 고양이가 레이저 포인터에 반응한다면, 집사는 편히 앉아 고양이가 말처럼 달리는 걸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쥐 모양 인형은 어떨까요. 갓 태어난 고양이라면 ‘쥐돌이’에도 흥분하지만 조금만 커도 쳐다보지 않죠. 진중권 교수가 쓴 <고로 나는 존재



하는 고양이>에서 고양이 루비가 말하길, 고양이는 쥐의 모양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쥐의 동작에 흥분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양이답게 노는 법의 첫 번째 계율은 “인간이 사주는 장난감은 거들떠보지 말라”라네요. “장난감 쥐는 무시하고 차라리 인간의 발을 쥐라고 생각하고 공격해보라”고 하니, 집사님의 발을 희생해보는 건 어떨까 조심스레 권합니다. 양말에 끈 같은 것을 달고 움직여보는 거죠. 쇼트트랙에 출전한 듯 방바닥을 발로 밀며 돌아다니면 최소 몇 번은 격렬한 반응을 보일 것 같네요. 또한 우리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가 바라는 건 관심과 존재감 확인

발을 내주더라도 곧 시들해질 겁니다. 그럴 때는 재빨리 캣닢(고양이가 좋아하는 풀)을 뿌려줍니다. 고양이의 격렬한 반응을 보면 왠지 죄책감이 들지만 몸에 나쁜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고양이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집사님은 자기 일을 시작하세요.

노트북을 펴면 잠시 후 고양이가 다가올 것입니다. 모른 척 모니터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키보드 위에 앉아 식빵 자세를 취할 거예요. 책을 펼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책과 얼굴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죠. 인간이 고양이를 필요로 할 때는 볼러도 모른 척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 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희 집 고양이는 빵 봉지를 묶는 끈을 좋아하는데, 가지고 놀다가 자주 물그릇에 빠뜨립니다. 물그릇 속에 발을 담그긴 싫으니 물그릇 밖을 발로칩니다. 물이 찰랑거리며 쏟아지고 집사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바닥을 닦고 끈을 꺼내줍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가 얻는 건 뭘까요? 매번 같은 행위에 호들갑을 떠는 인간이란 역시 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겠죠. 여기서 일단 우월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인하겠죠. 생각해 보면 고양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관심과 존재감 확인이 아닐까 싶어요. 뒤돌아 앉아 있는 고양이를 부르면 돌아보지는 않지만 귀를 뒤로 쫓긋하잖아요. “관심받고 싶지만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다 집사야. 그러니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보렴”이란 뜻이겠죠.

주의할 점은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놀아주면 안 됩니다. 고양이의 상황을 몰라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첫째 고양이가 ‘에어 조던’처럼 점프하던 시절, 착지하면서 턱을 상에 부딪친 적이 있었어요. 아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구석으로 숨어들더니, 손길도 거부한 채 저를 원망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내가 그런 거 아냐’라고 항변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놀이를 할 때는 고양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점프를



유도할 때는 부딪칠 만한 것들을 치워둡니다. 고양이만 두고 외출할 때는 행어 끈 같은 것을 가지고 놀다 몸에 영킬 수 있으니, 낚싯대 등은 잘 숨겨두어야 합니다.

고양이 집사의 운명은 선택이 아닌 간택

인간이 같이해줄 수 없는 놀이도 있습니다. 한밤의 우다다. 혼자서도 하지만 두 마리 이상이라면 훨씬 재미있죠. 서로 쫓고 쫓기며 도둑도 되었다가 경찰도 되었다가 아주 ‘꿀잼’입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라면 둘째를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갈 곳 없는 업동이 한 놈 구제도 하고, 고양이를 낫 동안 혼자 둔다는 죄책감도 덜 수 있고요. 여건이 안 된다면 사람을 하나 더 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싱글이라면 이참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사람이 둘이면 두 배로 놀아줄 수 있잖아요.

고양이와 놀아주는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놀이에 흥미를 잃기 때문이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흥미를 잃더라도 근력 유지를 위해 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집사가 더욱 기운을 내 창의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루비의 말을 인용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초보 집사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데려왔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우리랑 좀 지내다 보면 슬슬 너희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외려 우리에게 간택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거야. 다시 말해 우리를 데려온 것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고양이계의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 미리 결정된 사건, 그리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진 사건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 바로 그때 집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집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모든 것은 고양이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집사님과 닥의 고양이가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랍니다.

답변 김송은_ 스토리컴퍼니 웹툰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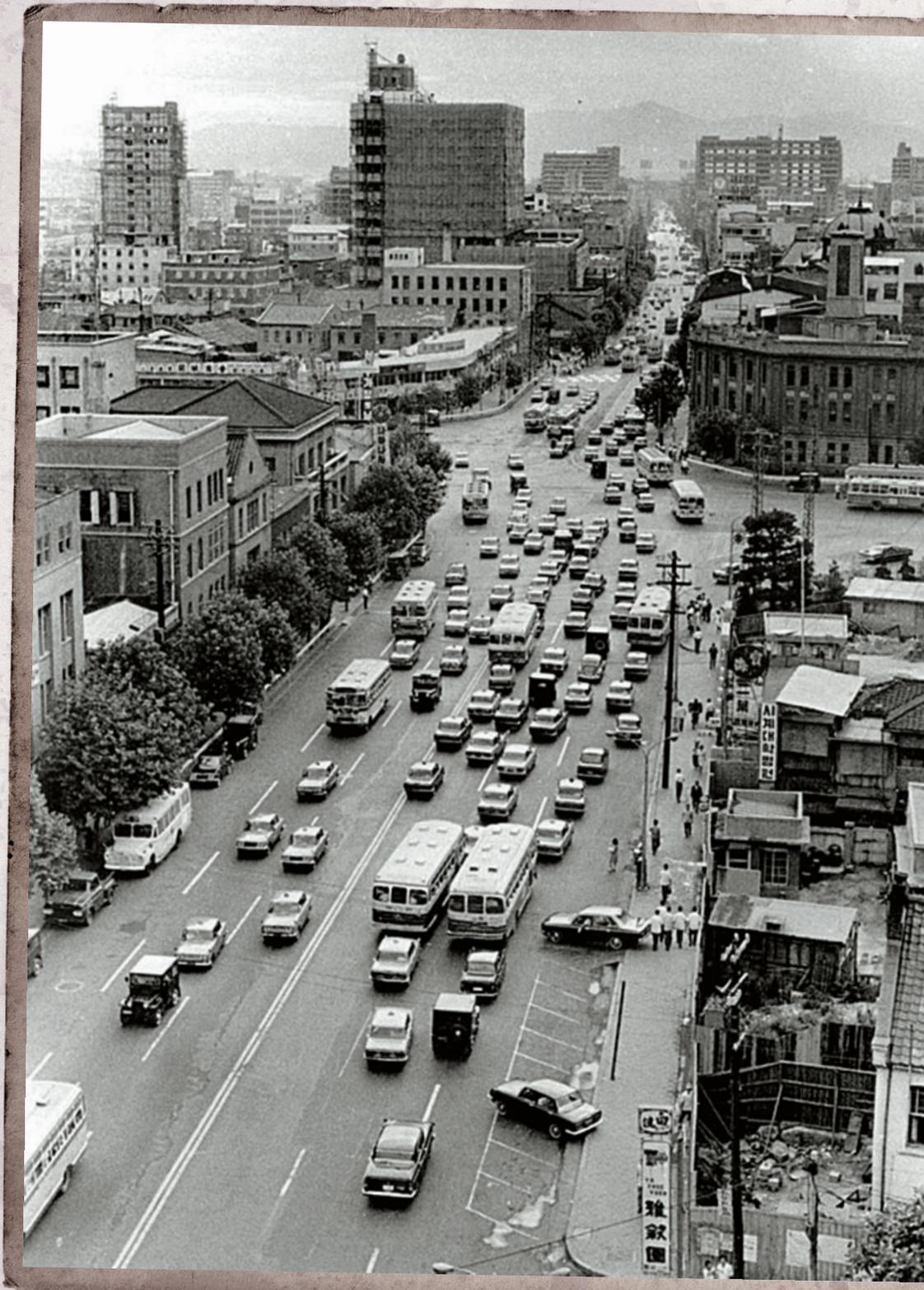
참고한 책 <고양이 공부>(김병목 지음, 희목원), <고양이의 기분을 이해하는 법>(하토리 유키 지음, 살림),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진중권 지음, 천년의상상)

참고한 사람 뉴, 이어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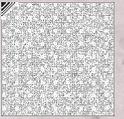
을지로1가에서 7가 사이

진화하는 도시 속 남겨진 추억

도시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차량 증가에 따라 도로는 넓어지고, 작은 건물이 오밀조밀 모여 있던 곳에는 대형 빌딩이 들어서 도시를 화려하게 만듭니다. 을지로도 60여 년간 많이 변했습니다.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시청에서 을지로7가 1번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이르는 2.74km 구간이 을지로입니다. 종로, 청계천로, 퇴계로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업무 지구로, 일제강점기에는 황금정통으로 불리다가 1946년 일본식 동명을 정리하면서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성을 따 을지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1> 1950년대 말 을지로



<사진 2> 1955년 을지로입구에 있던 보건사회부 청사.

을지로3가와 <취권>의 기억

을지로는 1~7가로 나뉩니다. 서울 도심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간선 도로임에도 종로나 퇴계로보다 도로 폭이나 고층건물의 집중도가 떨어져 개발이 늦어지다가 1984년 지하철 2호선 완공과 함께 블록 단위로 재개발되었습니다. 도로 전 구간을 지하철 2호선이 지나며 지하철 시청역에서는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고 3가역에서는 지하철 3호선, 4가역에서는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는 4호선과 5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사진 1>은 1950년대 말 서울시청 쪽에서 바라본 을지로입구 풍경입니다. 여기저기 빌딩을 올리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973년 롯데호텔이 들어선 자리에는 작은 점포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특히 '시계대학병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니다. 1979년 롯데백화점까지 개관하면서 이곳은 서울의 중심부로 떠올랐고, 지금은 을지로 1, 2가 일대에 고급 호텔과 백화점, 각종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상주 인구보다 출퇴근 인구가 더 많습니다. 또 관광객도 북적이고요. 당시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편도 3차로 도로였지만 차량이 많지 않아 흐름이 원활하네요.

3가 일대에는 명보극장, 국도극장, 중앙극장, 스키라극장 등 영화관

이 즐비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홍콩 액션 스타 청룡(成龍, 성룡)이 주연을 맡은 영화 <취권>이 국내 개봉한 1979년, 영화를 보기 위해 국도극장 앞에 줄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국도호텔로 바뀐 국도극장 뒤편으로 주택가가 넓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취권> 표를 사려고 모인 관객들은 극장 뒤편 주택가까지 길게 줄을 섰고, 뒤쪽에서는 이 줄이 극장표를 사기 위한 줄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없이 몇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암표상이 많아 돈이 있는 어른들은 암표를 사서 들어갔지만 학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마냥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리샤오롱(李小龍, 이소룡)과 청룡이 대결하면 누가 이길 것 같냐는 논쟁을 하며 지루한 줄 물

랐습니다. 권상우 주연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을지로입구와 보건사회부 청사

을지로 4, 5가 주변에는 방산시장, 중부시장 등 대형 재래시장을 비롯해 상가와 건축내장재, 인쇄, 공구, 조명기구를 파는 가게가 늘어서 있습니다. 또 보건사회부 청사도 을지로입구에 있었습니다. <사진 2>가 을지로입구에 있던 보건사회부 청사 모습입니다. 청사 앞길에 합승택시와 버스, 전차 등이 뒤섞여 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신은 1945년 광복 후 과도정부에서 신설한 위생국입니다. 위생국은 보건후생국을 거쳐 1946년 보건후생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1948년 정부 수립 후 사회부에서 보건후생부의 업무를 인수했습니다. 1949년에는 사회부의 보건 업무를 분리해 보건부가 만들어졌고, 1955년 다시 사회부와 통합, 보건사회부가 출범했습니다. 보건사회부는 1982년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했고, 1994년 보건복지부를 거쳐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됐으며, 2010년 다시 보건복지부로 환원됐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습니다.

사진 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이지원 영화감독의 고덕동의 추억

서울 같지 않은 서울

누구에게나 추억은 존재한다. 이따금 그 추억을 꺼내보며 낭만에 빠질 테지만, 그것을 다시 꺼내 놓을 공간이 없어졌다는 건 상당히 슬픈 일이다. 고덕동에서 성장기를 보낸 이지원 영화감독이, 재개발로 사라져버린 공간을 아쉬워하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한다.

서울의 동쪽 끝. 서울의 모든 곳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서울 중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고덕동. 나는 그곳에서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를 보냈다. 20대에 접어들면서 부모님은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가고 나는 흑석동으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동네를 떠났지만, 성장기의 추억을 오롯이 간직한 동네라 그런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고덕동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많았다. 상일동역에서 고덕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2차선 도로 양옆으로는 큰 나무들이 즐비했고 옆에 있는 작은 산에도 나무들이 빼곡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사이 사이에 조성된 작은 풀밭에도 수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상일동역에서 밖으로 나와 걷다 보면 항상 향긋한 풀냄새와 꽃냄새가 났다. 특히 여름에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울어대는 매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의 서울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은 나름 서울의 중심이라 할 동작구에서 살다 보니 그 동네가 얼마나 서울답지 않은 곳이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달동네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발전이 더딘, 그래서 더 아름다운 동네였다. 아마도 서울의 끝자락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멈춘 동네

2010년도인가. 대학교 졸업영화 시나리오가 너무 안 풀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고덕동에 간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고덕동만은 변



하지 않은 채였다. 그곳만 시간이 멈춘 듯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또는 혼자서 무수히도 걸었던 거리들, 신나게 뛰어놀던 놀이터.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다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이며 시끄러웠던 놀이터가 이제는 놀이기구에 녹아 들어버린지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외로운 아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것만 다를 뿐이었다. 그런 풍경이 낯설었지만 혼자 앉아 조용히 추억을 되새기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가만히 앉아 술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잠시 낭만에 빠졌다. 역시나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고덕동에서만 6번 이사를 다녔는데 5번은 주택에서, 마지막으로 주공2단지 아파트에서 살았다. 6번이나 이사를 다녔으니 고덕동 구석구석이 나에게도 추억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다. 주택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억하기로는 3번째로 이사를 간 곳이다.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집이었다. 그곳에서 정말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내가 그곳에 살았던 때는 초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2010년 에도 이미 1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가 붙였던 창문의 시트지가 아직도 버젓이 붙어 있는 것 아닌가! 타임머신을 타고 15년 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당장이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물론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서 돌아섰지만. 그 외에도 비록 담장은 없어지고 마당은 주차장이 되었지만 마당 한쪽에 자리했던 대추나무는 열매를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동안 멀뚱히 그곳에서 서서 그 당시의 추억들을 되새겼던 기억이 난다.

공간은 추억을 남기고

마음의 안식을 얻은 후,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꼭 이곳에서 영화를 한 편 찍자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역시나 나의 게으름 덕분에 결국 그곳에 대한 영화는 시나리오 구상단계에서 진척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몇 년 후 고덕 2단지 역시 재개발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다. 다행히 주택가는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어 남아 있지만, 주공아파트는 없어지고 말았다. 추억이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흐릿해진다. 눈에서도 기억 속에서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마땅히 시골이라 할 만한 곳이 없던 나에게 고덕동은 시골이자 마음의 안식을 주는 고향 같은 동네였다. 하지만 이제는 반쪽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 그건 좀 서글프다.

어릴 적 방학 때면 친구들과 뒷산에 가서 메뚜기부터 사마귀. 매미 등 수많은 곤충들을 채집했고 매일매일 동네 골목에서 팽이치기와 딱지치기 등을 하며 해질녘까지 지칠 줄 모르고 놀았다. 동네 독서실에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한 건지 잠을 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에 친구와 함께 새벽공기를 마시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던 낭만적인 시간들도 있었다.

나는 영화를 보거나 찍을 때 공간이 주는 정서나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편이다. 그 인물의 성격이나 분위기, 그리고 감정을 설명하는 데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덕동은 추억을 담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주는 독보적인 매력이 컸던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금 더 눈에 담아두지 못한 것,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매력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더 이상 그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크게 다가온다.

나무보다 높고 거대한 건물에 둘러싸이고, 향기로운 풀냄새는 커녕 매캐한 매연을 맡으면서 살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단에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고단하다는 것을 느껴서인지 어느 때보다 그 공간이, 그리고 그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간절해진다. 지금은 재개발을 하느라 공사장이 되어버린 고덕동. 공사가 끝나고 나무가 빼곡했던 자리에는 높고 거대한 아파트가, 녹이 스낫은 놀이터에는 우레탄 바닥과 플라스틱 놀이기구들이 채워지겠지만, 나는 다시 고덕동을 찾아가 혹시라도 남아 있을 흔적을 찾아보고 싶다.

글 이지원 단편영화 <여름밤>으로 2016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정말 우연히 영화를 전공하게 되면서 영화가 좋아졌고,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 몇 편의 단편영화 작업을 했고, 지금은 상업 장편영화를 준비 중이다.

그림 신나래





© 한겨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듣고

방 필런이 문학이듯
결정문도 문학이다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11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가는 탄핵 결정문에 쏠렸다. 고비도 있고 반전도 있던 탄핵 결정문은, 완벽한 기승전결의 구조로 한 편의 문학작품이 되기에 충분했다.

- 1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 2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전문을 전자책으로 제작, 무료로 배포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개요-사건의 발단'을 시작으로 덩덤하게 결정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피청구인) 대리인 측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나하나 기각했다. '소추 사유의 특정 여부' '국회 의결 절차의 위법 여부'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거부'에 대해 대리인측이 주장한 내용을 전부 논박하고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출발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 들어가자 "소추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생명권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계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 권한대행의 입에서 '그러나'가 언거푸 나오면서 각하 혹은 기각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 번의 '그러나'에 국민들의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을 무렵 이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준엄해졌다. 그리고 "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라고 뚜렷하게 밝혔다.

결정문을 읽기 시작한 지 21분이 되었을 무렵 이 권한대행의 입술이 잠시 긴장했다. 그리고 조용히 결론을 읽어 내려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긴 탄핵 국면이 비로소 끝나는 순간이었다. 탄핵 인용까지의 긴 과정을 생각하면 허무할 정도로 짧은 건조한 결말이었다.

논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문학작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A4 용지 89쪽으로 중편소설 정도의 분량이었다. 고비도 있고 반전도 있는 이 결정문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한 편의 문학작품이었다. 밥 딜런의 노래가 문학작품으로 인정받았듯 이 결정문도 ‘권선징악’을 막강한 논리로 풀어낸 문학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문학이 아니면 무엇이 문학이란 말인가? 가장 절제된 언어로 감정의 소용돌이를 극대화했다.

절묘한 결정문이었다. 지극히 보수적인 법의 논리를 전제로 시작했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무엇보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국정 농단 사건을 국가 시스템에 의해 다

시 일으켜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정문은 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대목이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중략)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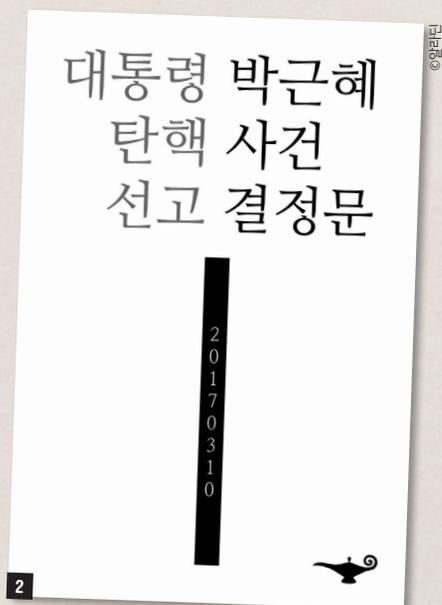
이 명쾌한 결론으로 가기 위해 재판관들은 진실을 꼭꼭 눌러 담았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가?’ 거듭 되물었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은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태를 탄핵 사유로 보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법관의 한 수’로 볼 수도 있다.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성실 의무 위반을 일반적 파면 사유로 볼 경우 사소한 성실 의무 위반도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행여 나중이라도 이 결론이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대신 김이수, 이진성 두 재판관이 보충 의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꾸짖으며 명백히 잘잘못을 가렸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의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건조한 결정문에 낭만을 보충했다. 그는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 간의 내란으로 비화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라는 플라톤의 <국가>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이다”라는 성경 아모스 5장 24절을 인용했다. 특히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을 결정문 안으로 끌어들이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행사로 나아가 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돋보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모든 구절이 좋았다.

글 고재열 시사HN 편집기획팀장



봄을 노래한 클래식 명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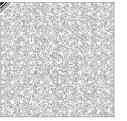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왔다. 길고 힘겨운 겨울이 물러간 자리에 찬란한 햇빛과 함께 찾아온 봄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져다준다. 그러니 섬세한 감수성의 음악가들에게 봄은 얼마나 설레는 계절이겠는가. 잘 알려진 클래식 명곡 가운데 봄을 노래한 음악작품이 꽤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비발디가 들려주는 봄

이탈리아의 작곡가 비발디가 쓴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봄>은 “봄이 왔다!”라는 시와 선율로 시작한다. 비발디의 <봄>은 기악곡으로서는 드물게도 시와 관련된 작품일 뿐 아니라 시구 하나 하나가 구체적인 선율에 그대로 대응되는 독특한 곡이다. 더구나 이 곡에는 ‘봄’이라는 계절이 담고 있는 역설과 모순이 시와 음악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더욱 흥미롭다.

비발디의 <봄> 악보에 적혀 있는 시를 누가 썼는지는 확실치 않다. 시의 작품성이나 베니스의 방언이 사용됐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작곡가 비발디 자신이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어떤 이는 이 시가 작품성이 떨어지는 시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만큼 번덕스러운 봄의 이중성과 유머를 잘 드러낸 시도 드물다. “봄이 왔다!”라는 구절에 해당하는 <봄>의 협주곡 도입부는 매우 화창하며, 곧이어 3대의 바이올린으로 표현된 새소리는 실제 새소리와 너무나





유사하여 감탄을 자아낸다. 그러나 경쾌한 새들의 합창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어오면서 봄이 번덕을 부린다. 바로 그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쾌한 새소리를 연주하던 현악 오케스트라가 격렬한 합주로 천둥과 번개를 흉내 낸다.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부분은 2악장의 개 짖는 소리가 아닐까 싶다. 비발디는 봄이 '춘곤증'의 계절임을 일깨워주며 독주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졸린 듯 나른한 선율을 안겨주는 대신, 비올리스트에게는 낮잠을 즐기는 주인을 깨우려는 강아지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2악장에서 비올리스트가 주기적으로 연주하는 '멍멍' 리듬은 봄날 오후의 낮잠을 떨쳐버리고도 남은 만큼 재미 있다.

봄날 시냇가의 산책

봄날의 자연을 묘사한 작품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 2악장에서도 우리는 봄날의 시냇물 소리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청력 이상 때문에 새 울음소리조차 또렷하게 들을 수 없었던 비운의 작곡가 베토벤. 그러나 그는 교향곡 제6번 <전원>의 2악장에서 그 어떤 작곡가보다도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를 생생하게 표현해냈다. 이 곡은 베토벤이 즐겨 산책하곤 했던 빈 근교의 하일리겐슈타트의 시냇물 소리를 닮은 잔잔하고 아름다운 물결로 시작한다. 첼로를 비롯한 저음역의 현악기들이 잔잔한 물결의 파동을 소리 내는 가운데 제1바이올린이 봄날의 시냇가를 산책하는 편안한 기분을 서정적인 선율로 노래한다.

아마도 그 시냇가의 끝에 당도했을 때 베토벤은 새들의 노랫소리를 어렵듯이 들었던 모양이다. 이 악장 말미에는 나이팅게일과 메추라기, 꿩 등이 하모니를 이루며 노래하는 음악이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마치 자연 그대로의 소리처럼 약간 어긋나면서도 묘한 조화를 이룬다. 나이팅게일의 유려한 노랫소리를 플루트가 연주하는 가운데 오보에가 메추라기 소리를 내고 클라리넷이 성급하게 '뻑뻑'하면서 새들의 합창에 끼어든다. 그런데 소리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이 곡을 들으며 봄날 시냇가를 산책한다면 어떤 소리가 자연의 소리이고 어떤 소리가 음악소리인지 구분이 안 될지도 모른다.

봄은 사랑의 계절

봄은 사랑을 시작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수많은 시인과 음악가들이 봄이라는 계절을 사랑과 관련지었던 것도 우연은 아닌 듯하다. 독일



의 서정시인 하이네히 하이네도 “아름다운 5월에 꽃들이 피어나고 사랑도 피어오른다”는 시를 지어 봄과 사랑을 노래했고, 하이네의 시는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대가 로베르트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탄생시켰다.

하이네의 시 중 16편의 시에 곡을 붙인 슈만의 <시인의 사랑>은 봄날에 사랑을 시작한 젊은이가 실연의 상처에 아파하다가 이를 극복하면서 성장해가는 일종의 '성장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주인공은 이 연가곡 말미에서 가슴 아픈 실연의 고통과 사랑의 마음을 커다란 관 속에 넣고 강물 속에 묻어버리니 말이다. 그러나 이 연가곡 중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역시 봄과 함께 사랑이 피어오르는 첫 곡이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Im wunderschönen Monat Mai)라고 시작하는 하이네의 시구는 이 문장의 느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슈만의 선율 덕분에 더욱 빛을 발한다. 전치사는 강세가 약한 약박으로 처리하고 중요한 단어는 긴 음표로 강조하는 슈만의 선율은 그 자체로 시가 되어 우리 가슴에 꽃힌다. 아마도 이 가곡을 작곡할 당시 슈만은 오래도록 염원했던 여인과의 결혼에 성공했기에 이토록 행복으로 가득한 선율을 쓸 수 있었으리라.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 비크와 작곡가 슈만의 열정적인 사랑은 클라라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의 반대로 좌절될 뻔했지만,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여 클라라와의 사랑을 이룬 슈만은 가슴속을 가득 채운 사랑의 기쁨을 놀랄울 만큼 아름다운 봄의 선율에 담아냈다.

이처럼 봄은 음악가들에게 있어 창조의 계절이며 사랑의 계절이었다. 또한 봄은 우리에게도 창조의 계절이며 사랑의 계절이 될 수 있다. 꽃피는 4월의 화창한 날, 봄을 노래한 클래식 명곡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라면 우리의 봄도 창조적인 열정과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글 최은규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부수석 및 기획홍보팀장을 역임했다. 월간 객석, 연합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 음악평론가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부천필 등에서 클래식 음악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 기상관측소

바람이 강해도
오던 봄,
그 봄을 알리던 곳

서울의 벚꽃 소식은 서울 기상관측소의 앞마당에서 시작된다. 1932년 경성측후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연 이곳은,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서울의 사계(四季)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준다.

벚꽃이 내린다. 내 눈앞이 분홍으로 물들어간다. 아련한 아름다운 풍경이 맘을 적신다.

밴드 '소란'의 <벚꽃이 내린다>라는 노래의 가사다. 이 노래를 들으면, 벚꽃이 내려 눈앞이 온통 분홍으로 가득 찬 풍경이 떠오른다. 봄이 왔음을, 또한 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벚꽃은 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설렘 가득한 두근거림이자, 유난히도 힘겨웠던 이 겨울

의 끝을 알리는 찬란한 희망일지도 모르겠다.

올해의 벚꽃을 기대하며 소개하는 곳은 바로 경성측후소, 즉 현재의 서울 기상관측소다. 송월동 1번지, 강북삼성병원 옆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만나는 언덕에 있다. 이 서울 기상관측소는 서울의 사계가 시작되는 곳이다. 벚꽃의 개화 시기는 이곳 앞마당에 있는 표준목인 벚나무에 세 송이의 꽃이 피는 그때이며, 그 옆 단풍나무에 단풍이 드는 그때가 서울의 단풍 시기이다. 월암근린공원과 인접한 이곳의 앞마당에는 벚나무, 단풍나무를 비롯한 계절을 알려주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 마치 도심 속 비밀정원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 나무들의 뒤편에는 오랜 시간의 힘을 간직한 하얀 건축물이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건물이 바로 1932년 건축된 경성측후소, 현재의 서울 기상관측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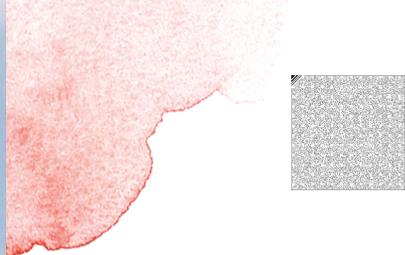
모더니즘과 양식주의의 경계에서

경성의 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오고 구름에 비가 싸여 온다. 래일은 맑고 치웁다! 그날 그날의 창공과 기압과 더부러 날을 보내는 경성측후소는 20년이나 오랜 락원동의 살림사리에서 지난 1일부터 인왕산 기슭 해발 87미터의 송월동 마루턱이에 약1천평 그지에다가 내화벽돌과 철근 콘크리트 견용하여 평가85평의 '모던' 청사를 지어 이사를 하였다 총공비는 3만 5,000원이다.

_1932년 11월 10일 동아일보 기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것은 1883년 인천해관에서 하루 5번 기상 관측을 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일본에 의해 1904년 부산, 목포, 인천, 용암포, 원산 등에 관측소가 설치되었고, 1907년 대한제국에서 농상공부 소관 측후소 관제를 공포함에 따라 경성, 평양, 대구 등에도 측후소가 설치되었다. 1913년 경성측후소는 교동 대빈궁(大嬪宮) 자리로 이전하였다가 1932년 현재의 위치인 종로구 송월동 1번지로 신청사를 건축하고 이전하였다. 지금은 하얀색으로 페인트칠했지만, 지어질 당시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은 벽돌로 쌓아 만들었다. 흰색으로 칠한 것이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붉은 벽돌로 지었던 건물을 오랜 시간 쓰는 과정에서 페인트칠한 것으로 예상된다. 붉은 벽돌의 청사 역시 그곳의 푸른 잔디와 붉은 꽃, 하얀 꽃들과 어울릴 듯하지만, 지금의 흰색 청사가 익숙해서인지 색색의 꽃들과 나무들 뒤에서 하얀 도화지 같은 역할을 하는 지금의 상태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 1 1939년 신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상분실(分室)과 멀리 보이는 노장(露場).
- 2 서울 기상관측소와 그 앞의 벚나무.
- 3 옥상 관측소 계단.



©문화재청

1930년대 초반의 관공서 청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들을 이 건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모더니즘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양식주의에서 완전히 발을 빼진 못한 모습. 시대는 모더니즘을 향해 달려가지만, 관공서로서의 위엄을 포기하기엔 뭔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 이전 시대의 흔적들을 건물 곳곳에 남겼다. 이 건물은 양식주의 건축의 중심을 강조한 현관부나 대칭적인 입면 대신, 축후소로 오르는 계단과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사분원 모양의 둥근 현관을 만들었으며, 전체적인 형태 역시 중앙의 2층 관측대를 중심으로 실들이 배치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외관상으로는 장식을 지양하고 장식 없는 아치형의 창호를 반복하여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의 특징인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인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건물 벽체의 상부에 장식적인 돌림띠(코니스)를 돌렸고, 벽체를 자세히 보면 가로 줄무늬들로 벽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 이전 시대 유행했던 양식주의 건축의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있다. 경성축후소 건물과 이어지는 경사지붕의 2층 건물 역시 1939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더니즘 양식의 건물이며, 축후소 서남 측에는 역시 당시에 만들어진 노장(露場)이 위치하고 있다.



같은 모습, 같은 역할로 우리 곁에 남은 건축

경성축후소가 이곳에 자리 잡은 게 1932년의 일이었으니, 무려 8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옛 건물이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그 용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예이다. 최근 근대 문화

유산들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건축물들이 멸실 대신 보존의 대상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나, 근대 문화유산들이 대부분 박물관이나 미술관, 혹은 카페 등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다소 염려스럽다. 근대기의 새로운 기능을 담기 위해 탄생했던 공간들이 지금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 채 그 시대의 기억을 담는 장소로만 활용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동시에 유사한 문화 공간들의 반복적인 생산으로 다소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공간이 계속하여 원래의 용도인 기상 관측소로 사용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기상을 관측하는 근대적 기능의 시설이었던 이 장소가 85년간 앞마당의 표준목들과 관측 기구들과 함께 이어져왔듯, 앞으로도 또 오랜 시간 이어지면 좋겠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에서 벚꽃이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

글·사진 제공 이연경.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사지도교수.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건축 역사 이론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도시들이 겪은 근대화와 식민화의 과정을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도시 환경, 그리고 건축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다.

차별의 시대를 조명한 실화 영화들



역사 속
가려진
'이름들'을 찾다

시나리오 작법에 이런 이야기는 아마 '절대 피해야 할 조항'에 포함될 법하다. 관객에게 미처 도착하기도 전, 제작자나 투자자가 너무 드라마틱하거나, 너무 꾸며낸 것 같으니 빠자는 조연을 했을 법한 장면도 많다. 언급하는 2편의 영화는 그런 예에 해당한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 그리고 차별과 편견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많은 영화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절의 공기와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지났다고 생각하는 그 과거 속에서 현재의 우리 역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실화 소재의 영화들을 소개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히든 피겨스>

첫 번째 들려줄 이야기는, 아니 그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라고 해도 좋겠다. 바로 나사(NASA)의 흑인 여성 과학자들을 조명한 영화 <히든 피겨스>다. 백인 남성들이 절대적 지위를 행사하던 1960년대. 인종 차별이 횡행하던 당시는 흑인들이 백인과 함께 화장실조차 쓰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나사 최초의 우주 궤도 비행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숨은 인재들이 있었다. 천부적인 수학 능력으로 우주 궤도 비행 프로젝트의 새 공식을 만들어낸 캐서린 존슨(타라지 P. 헨슨), 나사의 IBM 컴퓨터 정착에 큰 공헌을 한 도로시 본(옥타비아 스펜서), 진취적 자세로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가 된 메리 잭슨(자벨 모네).

나사는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지만,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 시대였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그들에게 행한 차별은 극심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담당할 프로젝트의 브리핑 참석을 거부당했으며,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다했음에도 승진에서 탈락했다. 능력과 상관없이 여자는 배제되어야 할 존재였다. 흑인이 들어갈 수 없는 백인 학교에 들어가야지만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원천적으로 기회가 박탈되는 수모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 세 여성은 '남자만 지구를 돌라는 규정은 없다', '누구의 도약이든, 우리 모두의 도약'이라는 마음을 먹고, 권위와 불의에 도전하고 항의해 자신의 역할을 해낸다. 다행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라면 인종과 성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 우주 임무 그룹의 수장 알 해리슨(케빈 코스트너)이 이들과 함께했다. 지지에 힘을 얻어, 세 여성은 전진한다. 아니, 역사가 그렇게 조금씩 전진했다.

데오도르 멜피 감독은 연출의 변을 통해 "흑백 분리법이 적용되던 나사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어떤 것이었는지 전혀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파헤치고 싶었다. 제목의 '피겨'(figure)라는 단어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도 마음에 든다. 당시 여성들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인위적인



‘숫자’로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은 말 그대로 우주 개발 경쟁의 판도를 바꾼 숨어 있는 인물들(히든 피겨스)이었다”고 말한다. 바로 그가 이 여성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현재의 우리가 이들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이다.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멜피 감독은 실존 인물 캐서린 존슨과 나사의 역사학자들의 고증, 경험담, 자료 등을 참고해 영화를 완성했다고 한다. 배우들이 연기한 캐릭터의 성격이나 스타일 역시 이들의 조언으로 구체화되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나사라는 비밀스런 공간, 그곳에 존재하는 더 깊은 이야기,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 <히든 피겨스>는 실화가 주는 힘이 더해져 한층 더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예술가 콤비를 통해 인종 차별의 시대를 돌아보다, <쇼콜라>

인종 차별에 관해서라면, 영화로 만들 법한 실화 소재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기록되지 않은 차별의 역사는 넓고도 깊었다. <쇼콜라> 역시 19세기 프랑스 최초의 흑인 광대 쇼콜라(오마 사이)와 그의 콤비 푸티트(제임스 티에레)가 겪은 엄혹했던 시대를 조명한다. 영화의 배경인 19세기 말은 모든 것이 화려하고 아름답던 벨 에포크 시대였다. 하지만 흑인에게는 예외였다. ‘쇼콜라’(초콜릿)는 당시 프랑스인들이 식민지에서 가져온 이국적인 문물 중 하나였다. 이는 검은 피부의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쿠바에서 프랑스로 온 흑인 라파엘 파디아 역시 피부가 검다는 이유

로 본명 대신 ‘쇼콜라’라는 예명으로 불리며, 시골 서커스 극단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괴성을 지르며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 한때 유명한 광대였지만 퇴물 취급을 받는 조르주 푸티트는 그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자신과 함께 광대 연기를 하자고 제안한다. 왜소한 백인과 덩치 큰 흑인이 함께하는 슬랩스틱 코미디는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다. 두 콤비의 무대가 영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쇼콜라와 푸티트의 시소의자>란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 이 웃음 뒤에는 흑인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볼거리로 조롱하는 당시의 편향된 시선이 존재했다. 노예로 태어나 무대에서 조명을 받았지만, 결국 그 차별의 시선 때문에 쇼콜라는 푸티트와 비극적 결별을 맞는다.

쇼콜라의 전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쓴 로쉬디 젤 감독은 “쇼콜라는 역사 속에서 잊힌 인물이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프랑스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를 더 잘 알게 도와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사는 데 더 나은 기반이 된다”라며 영화 속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반추해볼 기회를 마련하려는 뜻을 밝혔다. 영화에는 벨 에포크 시대의 화려한 무드가 잘 살아 있다. 특히 서커스 공연의 충실한 재연에 있어, 푸티트 역을 맡은 배우 제임스 티에레의 역할이 컸다. 찰리 채플린의 외손자이기도 한 티에레는, 어릴 적부터 서커스 무대에서 활동한 희극인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서커스 장면을 직접 창작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글 이화정_씨네21 기자



1, 2 나사(NASA)의 흑인 여성 과학자들을 조명한 영화 <히든 피겨스>.

3, 4 19세기 말 쇼콜라와 푸티트 두 예술가 콤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쇼콜라>.

2017 CALENDAR

4



전시

<TOO MUCH Department Store>, 허나영

2017 갤러리_맺음 후원공모 선정작(2) <TOO MUCH Department Store>는 'too much'한 것들의 집합소다. 너무 많은 물건, 정보, 연결, 노동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무엇을 버리고 다시 취할 수 있을까? 비물질 전문 마케터가 되어 <TOO MUCH Department Store>를 운영한다.

일시 ~4월 9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_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 시민창·시청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래예술공장
- 서울예술치유허브
- 금천예술공장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신당창작아케이드
- 남산예술센터
- 창작지원팀 제휴협력실 문화지원기증센터
- 공공예술센터 축제팀 문화나눔팀
-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기타 문화행사 추천

MON

TUE

WED

3

4

5

- 제31회 2017 한국현대춤작가 12인전(~4.9)
- 연극 <맨 끝줄 소년> SAC CUBE 2017(~4.30)
- 연극 <사랑해요 당신>(~5.28)

-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4.9)
- 국립창극단 <홍보씨>(~4.16)
- 삼청각 상설공연 런치콘서트 <자미>(~6.30)

10

11

12

- 연극 <내 아이에게>(~4.16)

- 2017 오페라 마티네 4월 <피가로의 결혼>
-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 전시 <마주한 공간>(~4.29)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SAC CUBE 2017(~4.30)
- 뮤지컬 <날개없는 천사>(~8.30)

17

18

19

- 텔레만 서거 250주년 기념음악회

- 경기 Jazz 프로젝트 <한국남자>

24

25

26

- 온 에어 콘서트 II <춤의 도시>
- 연극 <킬 미 나우>(~7.16)

- 클래식 동요 뮤지컬 <꿈꾸는 생상>(~6.11)

민간문화
관객의날



THU

FRI

SAT

SUN

1

- 아코르 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 연극 <B Class>(B클래스)(~5.28)

2

- 세계자폐인의 날 기념 <4.2 사랑 콘서트>
- 전통도에 47주년 기념전 <서광윤 展>(~4.11)

6

- 남산예술센터 <2017 이반검열> (~4.16)
- 국립오페라단 <팔리아치&외투> (~4.9)
- 동백아가씨의 사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4.9)
- 2017 정동극장 전통시리즈 <련 : 다시 피는 꽃>(~10.29)

7

-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4.23)
-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5.7)
- <예술이 자유가 될 때: 이집트 초현실주의자들(1938-1965)> (~7.30)

8

- 한마음살림장
- 뮤지컬 갈라콘서트 <봄을 노래하다>
- 스프링 페스티벌 II - 봄에 떠나는 유럽 음악여행(~4.22)

9

- 전시 <TOO MUCH Department Store>, 허나영(~4.9)

13

- 아름다운 목요일 클래식 나우! <이슈트반 바르데이 Cello>

14

- <뉴오페라 페스티벌 2017 - 나비부인> (~4.15)
-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5.14)

15

- 국립합창단 <마크-앙투안 샤르팡티에의 테 대음>
- 세종문화회관 파이프오르간 시리즈 X
-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6.18)
- <픽사 애니메이션 30주년 특별전> (~8.8)

16

20

- <태권무무 달하> - 서울
- 황덕호의 <THIS IS OUR JAZZ : 박윤우 트리오>
- 서울시합창단 합창명곡 시리즈 I - 헨델 오라토리오 <삼손>(~4.21)
- 국립오페라단 <보리스 고두노프> (~4.23)

21

- 남산예술센터 <가해자 탐구_부록: 사과문작성가이드>(~4.30)
- 연극 <피에타>(~5.7)
- 연극 <가족>(~5.14)
- 연극 <보도지침>(~6.11)

22

- 2017 세종 체임버 시리즈 <피아노로 써내려간 편지> I
- 소리인생 45주년 기념 <김영임의 소리 효 대공연>
- 완창판소리 <나윤영의 흥부가_만정제>
- 윤학 클래식뮤지컬 <첫사랑>

23

- 서울시극단 <왕위 주장자들> (~4.23)

27

-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4.29)
- 아트서커스 <라 베리타>(~4.30)

28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오픈스튜디오 <쌩브리핑-SSACC Briefing>(~4.29)
- 서울시청소년국악단 <꿈꾸는 세종> (~4.29)
- 수지오페라단 2017 오페라 <나비부인>(~4.30)
-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응녀>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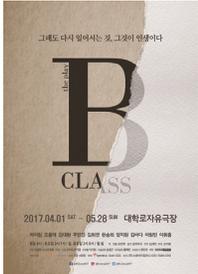
29

- <토요일은 청이좋아-청춘예감 콘서트>
- 한마음살림장
- 한국슈베르트협회 제63회 정기연주회
- 어린이 음악회 <아빠사우루스> (~5.14)

30

- 2017 피아노 지브리 콘서트

SAT_01

**연극 <B Class>(B클래스)**

<B Class>(B클래스)는 '경쟁'이라는 단어 속에서 개성과 꿈을 잃어가는 청소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담히 보여주는 작품으로, 경쟁으로 고통받는 10대들의 상처와 서로의 우정이 만들어내는 성장기 드라마다. <바람직한 청소년> <모범생들> 등의 작품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오인하가 극본과 연출을 맡았다.

일시 4월 1일(토)~5월 28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장소 대학로자유극장

관람료 전석 4만 4천 원

문의 070-7589-0761

TUE_04

제31회 <2017 한국현대춤작가 12인전>

<한국현대춤작가 12인전>은 그동안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무용계 각 부문에서 탄탄한 기량과 작가정신을 바탕으로 자기세계를 구축한 중견 무용가들이 모여 한국 춤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제시해온 국내 무용계의 가장 권위 있는 무대 중 하나다. 1987년부터 매년 4월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개최하며 꾸준히 무대를 이어왔다.

일시 4월 4일(화)~9일(일)
화~토 오후 8시, 일 오후 5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2263-4680

WED_05

**국립극단 <흥보씨>**

기발한 연출력과 비상한 필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고선웅이 극본·연출을 맡았고, 배우이자 소리꾼 이자람이 작창·작곡·음악감독을 모두 맡아 절정에 다다른 음악적 공력을 선보인다. 고선웅 연출은 대본을 집필하며 고전 속 권선징악의 교훈은 살리면서도 원작에는 없는 새로운 이야기와 캐릭터를 추가했다. '흥보' '놀보' 형제의 출생에 얽힌 비밀 사연은 물론 '다른 별에서 온 스님' '말하는 호랑이' 등의 캐릭터를 더해 극적 긴장감과 재미를 높였다.

일시 4월 5일(수)~16일(일) 화·수·토·일 오후 3시,
목·금 오후 8시(단, 4월 5일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연극 <맨 끝줄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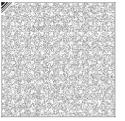
<맨 끝줄 소년>은 이제 고인이 된 김동현 연출의 마지막 유작으로, 2015년 자유소극장 무대에 올라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초연 당시 드라마투르그 겸 윤색으로 참여했던 손원정이 연출을 맡고, 김동현 연출이 생전에 염두에 두었던 우미화 배우도 합류했다. 손원정 연출은 특유의 섬세함과 통찰력으로 초연의 연출의도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더욱 완숙하고 조밀해진 공연을 선보인다.

일시 4월 4일(화)~30일(일)
화~목 오후 8시, 금~일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일반석(1층 지정석) 5만 원,
비지정석(2, 3층) 3만 원, 맨 끝줄 좌석 1만 원

문의 02-580-1300



THU_06

**연극 <2017 이반검열>**

이연주 연출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폭력, 검열과 차별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재구성했다. 2000년대 초반 민주주의 확립 이후 2017년 현재 오히려 쇠퇴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라보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연결을 통해 차별과 혐오가 국가적인 폭력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일시 4월 6일(목)~16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월·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sartscenter.or.kr / 02-758-2150

FRI_07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국립극단 '젊은극작가전' 첫 작품으로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를 소극장 판에서 선보인다. 윤미현 작가의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는 지난해 시작된 국립극단의 창작극 개발 프로젝트 '작가의 방'을 통해 탄생한 작품이다. '내가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작가의 고민에서 시작해 오랫동안 노인들을 관찰하며 기획한 '노년시리즈 3부작'(1부 <귀적>, 2부 미발표) 중 마지막 작품이다.

일시 4월 7일(금)~23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화 공연 없음)

장소 소극장 판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www.ntck.or.kr / 1644-2003

<예술이 자유가 될 때:**이집트 초현실주의자들(1938-1965)>**

193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이집트 모더니즘의 중심이 되었던 초현실주의 경향의 기록으로, 이집트 초현실주의의 역사와 전개, 반파시즘, 탈식민주의 운동 등을 통한 국제 초현실주의 단체들과의 연결고리를 조명한다. 샤르자 미술재단, 이집트 문화부,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의 협력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탈서구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근대시기의 다양한 면면과 20세기 국제 사회의 상호연계성을 탐구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일시 4월 7일(금)~7월 30일(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관람료 미정

문의 02-2022-0600

SAT_08

시민청 <한마음살림장>

시민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비롯한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형 소풍장터가 열린다.

일시 4월 8일(토), 29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시민청 지하 1층 시민플라자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 02-739-7331

SUN_09

**전시 <TOO MUCH Department Store>, 하나형**

2017 갤러리_맺음 후원공모 선정작(2)
<TOO MUCH Department Store>는 'too much'한 것들의 집합소다. 너무 많은 물건, 정보, 연결, 노동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무엇을 버리고 다시 취할 수 있을까? 비물질 전문 마케터가 되어 <TOO MUCH Department Store>를 운영한다.

일시 ~4월 9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_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MON_10



연극 <내 아이에게>

세월호 참사를 겪은 어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하는 작품이다.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참사의 역사를 새롭게 복원하고, 연극이라는 형식으로 무대화하여 관객들과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

일시 4월 10일(월)~16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장소 성북마을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10-3882-4324

WED_12



전시 <마주한 공간>

2017 갤러리_맺음 후원공모 선정작(3). 우리는 백지 같은 공간과 대면한다. 사람과 공간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관계가 형성된다. 공간과 대면하여 쌓아간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일시 4월 12일(수)~29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_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SAC CUBE 2017

2016년 초연 당시 한태숙 연출의 노련하면서도 새로운 해석과 배우들의 열연으로 연이은 매진을 기록했던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이 다시 한 번 무대에 오른다. 작년의 관극 포인트가 '윌리의 분열'이었다면, 이번 공연은 점점 더 옥죄어오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청춘의 좌절에 명암을 더한다.

일시 4월 12일(수)~30일(일)
화~금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3시
(4월 26일 오후 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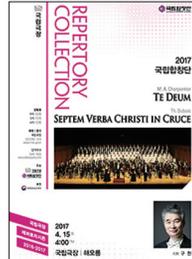
장소 CJ 토월극장

관람료 OP석·R석 5만 5천 원, S석 4만 원.

A석 3만 5천 원

문의 02-580-1300

SAT_15



국립합창단

<마크-앙투안 샤르팡티에의 테 데움>

샤르팡티에의 '테 데움'(Te Deum)은 전주곡을 포함한 10개의 작은 곡들로 구성되며 이탈리아 풍의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구천 지휘자 특유의 섬세한 곡 해석, 뛰어난 기량의 솔리스트와 국립합창단만의 완벽한 앙상블로 합창음악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합창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일시 4월 15일(토) 오후 4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문의 02-2280-4114

THU_20

국립오페라단 <보리스 고두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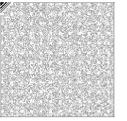
<보리스 고두노프>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러시아를 지배했던 실존인물 보리스 고두노프의 비극적인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황권 찬탈의 야심을 품고 황태자를 살해한 후 그 명령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한 보리스 고두노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곡가 무소륵스키는 러시아 역사의 한 단면을 그린 이 작품 곳곳에 화려한 기교의 아리아보다는 러시아적인 색채가 물씬 풍기는 장엄하고도 숙연한 합창과 중창을 배치했다.

일시 4월 20일(목)~23일(일)
목·금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15만 원, S석 12만 원, A석 8만 원,
B석 5만 원, C석 3만 원, D석 1만 원

문의 02-580-3584



FRI_21

**연극****<가해자 탐구_부록: 사과문작성가이드>**

2016년 제53회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 제7회 두산연극예술상을 수상한 '여기는 당연히, 극장'의 작가 겸 연출가 구자혜가 2017년, '예술계 성폭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사회를 다시 한 번 폭로한다.

일시 4월 21일(금)~30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sartscenter.or.kr / 02-758-2150

**연극 <가족>**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시리즈가 제1회 국립극장 장막희곡 당선작인 <가족>으로 다시 찾아온다. 가족 간의 부대낌 속에 스며든 우리 현대사의 먹먹함과 통행금지를 피해 다녔던 예스러운 재미를 함께 선사할 것이다.

일시 4월 21일(금)~5월 14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5월 5일(금) 오후 3시
(화 공연 없음, 5월 3일 공연 없음)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1644-2003

**연극 <보도지침>**

1986년 전두환 정권 당시, 김주연 한국일보 기자가 월간 <말>지에 '보도지침'을 폭로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보도지침 폭로 사건의 실제 인물들이 무대 위에서 새롭게 탄생하여 지금과 다를 바 없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시 4월 21일(금)~6월 11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티오엠 2관

관람료 전석 5만 원

문의 1544-1555

SUN_23

**서울시극단 <왕위 주장자들>**

헨리크 입센의 대작 <왕위 주장자들>이 1863년 발표된 이후 154년 만에 국내 초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현대 산문극의 시초라는 평가를 받으며 입센 출세작들의 밑거름이 된 이번 작품은 인물들 간의 의심과 믿음, 자기 확신 등이 일으키는 갈등을 스펙터클하게 진행시킨다. 서울시극단은 13세기 노르웨이를 배경으로 한 고전극에 현대적이고 모던한 감각을 더했다.

일시 ~4월 23일(일)
월·수~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2시·6시 30분, 일 오후 2시
(화 공연 없음)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399-1000

TUE_25

**연극 <킬미나우>**

조이의 성장과 독립으로 인한 갈등을 다루는 작품으로, 장애인 또한 독립성을 지닌 평범한 개인임을 보여주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가족을 위한 희생과 '나'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가 부딪히는 현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죽음 앞에서 <킬미나우>는 과연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일시 4월 25일(화)~7월 16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4만 원

문의 02-2230-6600



THU_27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

국립무용단과 프랑스 샤요국립극장 상임안무가 조세 몽탈보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지난 3월 국립극장에서 한국 초연 후 같은 해 6월 샤요국립극장 무대에 올라 '포커스 코레'(Focus Corée)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한층 완성된 모습으로 국내 무대에 귀환한다. 작품의 제목인 '시간의 나이'는 과거를 추적해가며 새로운 것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시 4월 27일(목)~29일(토)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FRI_28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오픈스튜디오 <쌈브리핑-SSACC Briefing>

일시 4월 28일(금)~29일(토)
장소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관람료 무료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응녀>

2014년 초연을 시작으로 국립극장에서만 네 번째 공연이다. <변강쇠 점 찍고 응녀>는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더 이상 불리지 않는 잃어버린 판소리 일곱 바탕 중 하나인 '변강쇠 타령'을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고선웅 연출은 '변강쇠타령'이 색(色)을 밝히는 호색남녀 이야기라는 편견을 깨고, 박복하지만 당찬 여인 응녀를 중심으로 한국 여성들이 가진 삶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일시 4월 28일(금)~5월 6일(토)
 화·수·토·일·공휴일 오후 3시, 목·금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원, A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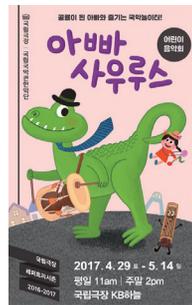
SAT_29

시민청

<토요일은 청이좋아-청춘예감 콘서트>

세대가 문화로 공감하고, 예술로 소통하는 청춘-공감 뮤직콘서트가 열린다.

일시 4월 29일(토)
장소 시민청 지하1층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 02-739-0057



어린이 음악회 <아빠사우루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소재로 하는 <아빠사우루스>는 무엇보다 생생한 국악 라이브 연주 가장 큰 특징이다. 국악기로 공룡의 발소리를 만드는가 하면 방귀소리, 빗소리, 친구들의 재잘거림까지 표현하며 재미와 신비로움을 만들어낸다. 독주, 중주, 10인조의 작은 오케스트라 등 국악기의 다양한 양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일시 4월 29일(토)~5월 14일(일) 평일 오전 11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
장소 국립극장 KB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SUN_30

2017 피아노 지브리 콘서트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 앨범 중 가장 사랑받는 <피아노 지브리>, 그 앨범의 주인공인 일본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브라이트가 다시 한 번 한국을 찾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토로> 등 지브리의 수많은 명곡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일시 4월 30일(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2-552-2505



2017.
04.21.-04.30.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가해자 탐구

부록:사과문작성가이드

작/연출 구자혜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서울문화재단
여기는 당연히, 극장
- 제작 남산예술센터
여기는 당연히, 극장
- 예매 남산예술센터, 인터파크, 대학로티켓닷컴,
클립서비스, 에스24 공연, 옥션티켓
- 문의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NAMSAN
ARTS CENTER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독자엽서

박헌정 님 (서울시 송파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논현도서관에서 신문 옆에 있던 [문화+서울]을 우연히 읽었습니다. 가벼운 기사+현 정치적 상황을 다룬 기사, 문화예술 공연을 다룬 기사까지. 다양한 기사와 내용에 놀랐습니다. 그만큼 [문화+서울]이 추구하는, 아니 문화 예술계를 대표하는 책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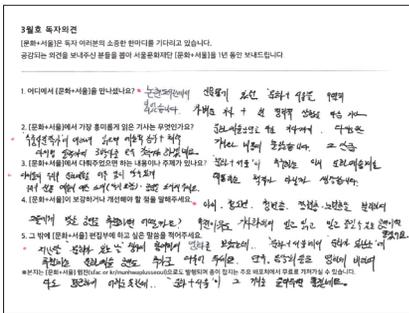
'수중사진작가가 되려면 예술적 창작, 체력과 다이빙 실력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아이들이 우리의 문화예술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우리의 전통 예술에 대한 이야기(악기 포함)나 공연을 소개해 주세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을 분리하여 그들



에게 맞는 공연을 추천하면 어떨까요? 추천 이유도 기사화하여 믿고 즐길 수 있는 공연 정보를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지난달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하여 영화를 보았는데, [문화+서울]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추천하는 문화 예술 공연도 추가로 다뤄주세요. 연극, 음악회 등은 영화에 비하여 다소 접근하기 어려운 듯한데, [문화+서울]이 그 거리를 줄여주면 좋겠네요.

4인용 식탁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 만인지!
저희 넷은 4인용 식탁으로 맛있게 친해졌습니다."
이주희, 정의성, 이재승

편집 후기

볼금에는 유난히 야근을 하기 싫지만,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이 방문교과 걸렸네요. 눈꺼풀이 무거워요.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장

#YoSoy132

안현미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 차장

1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볼타는 금요일 책상에 쌓여 있는 글을 열심히 읽었다니 어느새 나는 토요일과 가까워져 있다. 눈꺼풀이 무거워질수록 마음만은 가벼워진다.

임동민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앙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